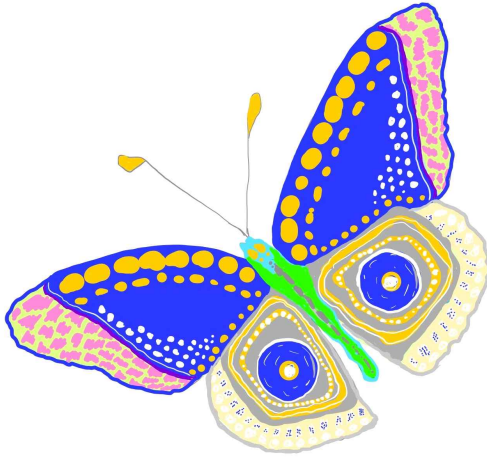


전자책

숨적이는 책 시리즈 1권

연결망에서 생태학으로 이어가는 데 필요한 변신의 존재양식



Latour's Modes of Existence : Reality of Hiatus

라투르의 존재양식 해제

공백의 실재

최종덕 씀

움직이는 책 시리즈

움직이는 책 시리즈는
출판사 없는 최종덕의 전자책 저술공간이다.
독자 의견이 반영되는 열린 책이다.
종이에서 벗어나 PDF/EPUB 형식의 자유판본이다.
누구나 무료로 가져다 볼 수 있지만, 인용/참조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한다.
책 안에서 개념어 검색이 가능하며 하이퍼링크로
지식을 연결하고 확장한다.
움직이는 책 시리즈 첫 번째로 『라투르의 존재양식
해제』를 내고 앞으로 『화이트헤드 중기 자연철학』
등을 기획중이다.
전자책은 최종덕의 홈페이지 philonatu.com에서
자유롭게 받아갈 수 있다.

<저자소개>

저자 최종덕은 물리학과 수학 그리고 철학과 생물학을 공부해 오면서, 현대자연철학의 지식을 삶의 수행성으로 변화시키려는 작업을 시도 중인 독립학자이다.

『생물철학』, 『의학의 철학』, 『비판적 생명철학』, 『이분법을 넘어서』,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 등 현대자연철학 관련 책을 다수 출간했다.

최종덕의 전문연구와 생활 글쓰기 자료 모두를 저자의 홈페이지

philonatu.com에서 볼 수 있다.

라투르의 존재양식 해제
공백의 실재론

초판 2024년 6월 10일
지은이 최종덕
편집 최종덕
연락 philonatu@gmail.com
URL <https://philonatu.com>
출판사 없음
책값 없음

* 이 책 표지와 본문에 실린 그림과 표 모두 저자의 저작물입니다.

<일러두기>

이 해제의 원저는 라투르의 2012년 작품 『존재양식의 탐구』이다. 2013년 영어판과 2023년 출간된 한글판이 중심이었고 원저인 2012년 불어판은 내용을 대조할 경우에 참조했다.

(한글판) 브뤼노 라투르 2023, 『존재양식의 탐구, 근대인의 인류학』 (황장진 번역) 사월의책.

(영어판) Bruno Latour 2013, *An Inquiry into Modes of Existence: An Anthropology of the Moderns*, Catherine Porter (tr.),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불어판) Bruno Latour 2012, *Enquête sur les modes d'existence: Une anthropologie des Modernes*. La Découverte

- ① 이 책 라투르 존재양식의 해제는 전적으로 라투르의 2012년 작품 『존재양식의 탐구』 한 권만을 위한 것이다.
- ② 책은 3부 16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원저의 개별 챕터 따라서 해제도 장별로 구성했다.
- ③ 각 장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라투르의 전작들과 개념과 용어를 공유하고 있는 책의 특성 때문에 중복된 내용들이 생긴다.
- ④ 인용 출처는 괄호 안 쪽수 (123)로만 표기했는데 영어판 출처는 숫자 앞에 * 표시(*124), 불어 원본 출처는 **표시(**124)를 했다.

<차례>

일러두기 (4)

감사의 글 (9)

등장인 소개 (10)

이 책을 읽는 방법 2가지- 관찰과 상상 (14)

몇몇 용어 해설 (17)

존재양식, 경제와 생태, 외교관, 가로지르기

1장 존재양식의 존재자들 (22)

연결망, 연결이중망, 번역, 가치고유성, 통과, 종교에서 변형

2장 이성의 범주오류 (29)

일차/이차오류, 해석의 키, 참과 거짓 혹은 적정성과 비적정성

전치사 존재양식, 화이트헤드의 상식, 연결망의 교차와 대조

기존 ANT의 강약점, 연결망 조건과 향후 프로젝트, 대문자 이성의 역사

라투르의 실재reality

3장 더블클릭의 유령 (39)

불연속의 통과, 대응론, 불변의 가동물, 지시의 연쇄 지식 확장, 춤의 악보,

재생산 양식, 근대 폭포효과, 더블클릭, 화이트헤드와 수리온, 발두색,

4장 재생산 물질론 (52)

존재양식, 지시 양식에서 재생산 양식으로, 관념적 유물론, 3+1 차원 세계,

형식관념, 힘의 선, 계보, 근대인의 오류, 연결망 이해, 양식과 상식,

근대 물질론, 근대의 마법, 라투르의 조연

5장 정치적 존재양식 (64)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재생산과 지시의 혼동, 번역과 전송,
직선의 말하기, 직선의 언어와 굴곡의 언어, 융합, 정치적 말하기,
정치양식의 자기생성, 정치에서 더블클릭, 잘 말하기, 절합,
이성과 정치의 잘못된 만남, 정치적 원, 존재론적 다원주의, 근대인의 환상

6장 타자로서의 존재 (78)

논쟁의 여지없는 사실, 구성과 비판, 근본주의, 창설instauration,
타자로서의 존재, 이상파괴, 구성에서 창설, 믿음, 객체 박물관, 지식의 환상,
근대의 땅에서 이주하기, 근대의 허구 존재들, 물질의 실재화,
재생산양식과 지시연쇄양식 혼동하지 않기, 근대인의 위기

7장 공백의 심리학 (90)

타자로서의 존재양식, 제도와 관습, 집합체, 인식론과 심리학,
백인들의 건강한 유물론, 심리와 지시, 프로이트, 내부 관념과 외부 실재,
정신의 내면성으로서 심리학, 변신의 존재양식 민족정신의학, 창설의 변신,
구성과 실재, 합리성과 더블클릭, 정신생성 존재자, 물질과 자연, 존재 사양,
생성되는 차이, 차이와 변신의 사양, 변신, 우주론적 존재양식

8장 기술철학 (107)

종교 및 변신의 존재양식, 기술의 불투명성, 초월성, 초월에서 내재로,
경험의 경험, 사회기술 연결망, 비물질적 연결장치로서 기술,
조로의 칼과 더블클릭, 기술과 변신, 기술의 지그재그, 호모파베르,
기술대응론 비판, 기술의 혼종성, 비인간 기술, 기술 목록의 불연속성,
부사로서 기술, 번역과 반역으로서 기술, 기술의 스피릿, 기술과 기술자,

탈연동, 목적론, 생태화

9장 예술철학 (128)

존재와 표상의 이분화, 근본 경험주의와 2세대 경험주의, 픽션 존재양식,
미학의 무한성, 과학에서 픽션, 픽션과 지시체, 근대인의 자연주의,
기호에서 탈출하여 의미로 접근하기, 기호와 상징,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가이아로 가는 비탈길 걷기

10장 습관 양식과 제도 (142)

제도양식, 객체와 실재, 행위과정과 전치사, 본질과 습관, 습관양식의 내재성,
습관양식의 전치사, 습관양식의 생략과 망각, 실체와 외양, 지시와 암시,
수동 재시작 버튼, 돌민의 비계

2부 중간 결론 (155)

존재양식의 다양성, 준객체, 준주체, 힘의 선, 계보, 변신의 존재양식,
주객체 연결

11장 종교철학 (161)

집합체로서 종교, 종교적인 것의 귀환, 자아에 대한 오해, 사랑의 친밀감,
돌봄과 구원, 회심, 엄폐성, 광신주의, 이분화와 존재론적 탈선, 종교와 과학

12장 정치철학 (174)

중용의 정치, 대표성의 위기, 비이성 정치의 과장평가, 객체-지향 정치
코스모폴리틱스, 우리와 그들, 정치와 원의 양식,
공백이 사라진 미적분의 정치, 정치양식의 교차, 사회와 정치

13장 법철학 (187)

법의 존재양식 일반, 법의 전문성과 다공성, 법적 경험, 망설임에 대하여,

반복과 갱신, 통과와 재연결, 준주체로서 법, 법과 원의 양식

14장 경제철학1 - 내재의 경제학 (196)

애착의 가치, 자연의 두 가지 개념, 자본주의, 경제 간극, 무질서의 간극, 온도의 간극, 자원의 간극, 애착-도덕, 조직의 3 양식, 조직양식과 대본, 조직화의 작은 초월, 대본과 기입, 사회와 개인, 재물질화로서 경제화, 경제화와 소유,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15장 경제철학2 - 평등경제를 위한 애착 양식의 전환 (210)

개인과 사회 관념의 추상화, 조직화, 대본과 기술, 불평등 뒤집기, 고립은 없다, 인간-비인간의 연쇄양식, 소유에서 재생산으로, 탐진치 애착 장애물 5 가지 제거하기, 연결존재자로서 교환의 삶, 애착양식의 이동성, 등가-교환 경제학의 허구, 평등경제학

16장 경제철학3 - 도덕경제학 (227)

메타배정자, 총계정원장, 가치측정기, 수치에 중독된 경제학, 지구위기의 경제적 원인, 양심의 거리낌, 존재와 가치, 절합에 대하여, 도덕 존재양식, 도덕적 객체로서 신유물론 경향, 객체-지향론, 도덕철학, 도덕의 사양, 경제학의 모순된 배리, 라투르의 경제인류학, 물리학과 경제학, 생태학적 경제학, 시장과 국가라는 폭군

에필로그: 경험철학과 생태화를 위하여 (246)

15개 존재양식, 경험철학, 소통하는 외교관

참고문헌 (250)

찾아보기 (256)

<감사의 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신유물론 분과에서 같이 책을 읽어온 현남숙, 정희수, 정유진, 이현재, 서영화, 이승준 선생님께 가장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6년 전 라투르를 한국에 처음 소개하신 김환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계의 학문’과 전자책 실현에 조언을 주신 강신익 선생님은 저의 소중한 학문 동지로서 그지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와 같이 세상의 지혜를 탐험하던 주변 사람들, 라투르 표현대로 그런 학문의 연결망 존재양식은 비록 비가시적이지만 항상 저를 복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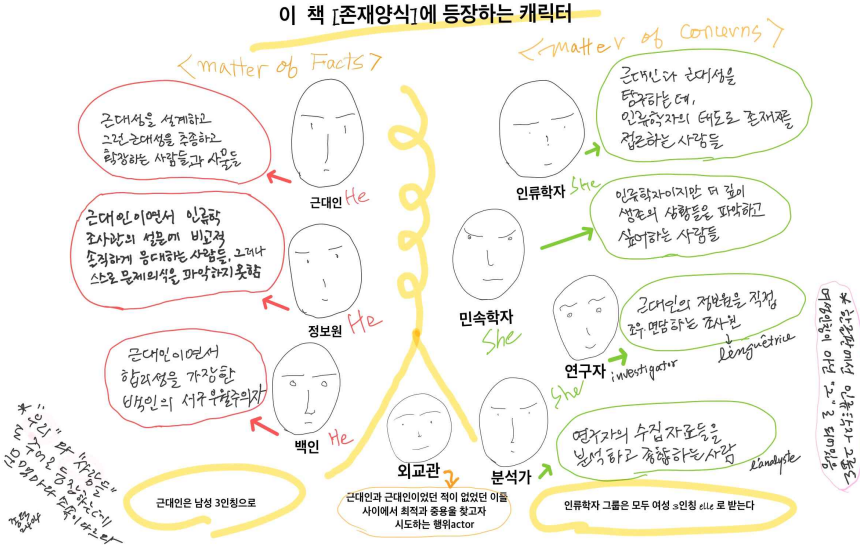
시간나서 기어 올라가곤 하는 치악산 고둔치 길 돌맹이 하나하나에도 이 책의 글몽치들이 묻어 있습니다.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존재이유 없는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부는 혼자 하더라도 공부를 이루는 일은 혼자되지 않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공부는 지식의 독백일 수 없습니다. 공부는 타자에 귀기울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람에 감사할 뿐입니다.

2024년 6월

최종덕

<라투르 『존재양식의 탐구』에 등장하는 캐릭터>



<등장인 소개>

근대인

1. 플라톤과 데카르트의 후손인 근대인은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성을 통해서 세계를 말끔하게 객관화시키고 자아를 영원히 정체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이다.
2. 비합리주의를 배격하면서 계몽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의 모습을 놓치고 있다.(29-30)
3.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법과 정치의 존재양식을 관념화시키고 초월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존재양식을 신비화시킴으로써 전문가와 대중들을 서로에게 분리했다.

4. 근대인은 자연과 사회, 사실과 가치가 분명하게 구분될 것이라는 이분법적 입장을 고수한다.

정보원

정보원informants이란 이 세상 해당 영토에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원시문화 형태의 거주지 관찰연구를 하는 문화인류학자들이 해당 원주민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런 정보를 전해주는 원주민이 곧 정보원이듯이 근대인이 사는 집단의 이야기를 민족학자나 그 연구원에게 들려주기도 한다.

백인

근대인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근대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다.

인류학자

1. 이 책에서 인류학자란 인류학자의 관심과 관점을 갖으면서 동시에 철학적 파악을 시도하는 포괄적 관찰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을 유비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2. 인류학자가 마치 남태평양 군도에서 원주민에 대한 현장연구를 하듯이 근대인을 대상으로 현장연구하는 태도를 갖췄다는 점에서 라투르는 인류학자라는 표현을 썼다.
3. 구체적으로 인류학자는 이 세상 오늘에 사는 사람들 특히 근대인의 영역 즉 독자적으로 이해되었던 영토들의 경계선이 얼마나 불분명하고 자기아집에 빠져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민족학자(민족지 연구자)

1. 새로운 것(영역)을 탐험하게 되는 시험trial의 시도자들(63)이 민족학자의 의미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개념은 영역간 벽을 허무려는 시도를 말한다.
2. 정보원(원주민, 현장 노동자 혹은 실험실 연구자, 해당 영역을 수행하는 실무자 그리고 그런 장치를 사용하는 일상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관찰하면서 놀라움으로 연계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자.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정보원도 놀라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의외의 요소들을 추가하며 존재의 연결망은 더욱 풍부해지고 복잡하고 확장된다.

연구자

인류학자나 민족지학자와 더불어 근대인의 사유와 행동을 현장에서 직접 면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들이다.

분석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연구자나 민족학자가 조산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사람들이다.

외교관

1. 근대인과 인류학자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존재자 생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차이를 차별이 아닌 중용으로 합쳐보려는 시도를 구하려는 사람들이다.
2. 중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생태화의 길을 모색하려는 사람들이다.

<등장인의 성별인칭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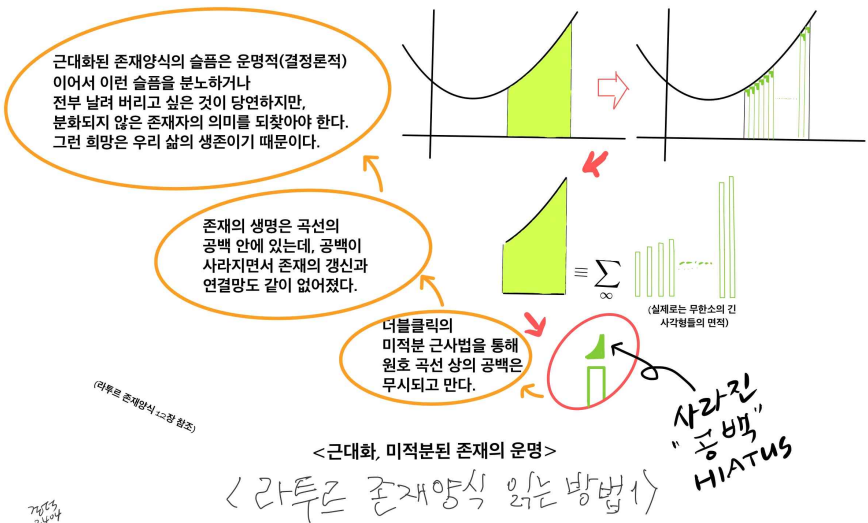
1. 이 책에서 라투르는 근대인, 정보원 그리고 백인을 남성인칭 “He”으로 사용하며 인류학자, 민족학자, 연구원 그리고 조사원을 여성인칭 “She”로 사용한다.
2. 인류학자는 단순히 근대인을 관망하는 관찰이 아니라 참여하는 관찰자이다. 인류학자는 근대인 주변의 비인간을 포함한 연결망을 세밀하고 섬세하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라투르는 인류학자를 여성인칭 “she”으로 부른다.
3. 인류학자를 여성명사로 일컫는 것은 라투르 작품 *Science in Action*(1988)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을 읽는 방법 2가지- 관찰과 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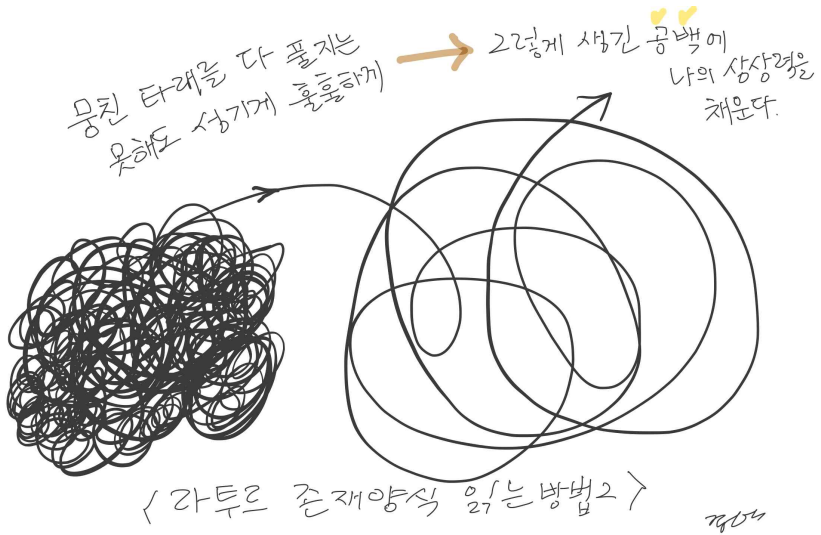
첫째 이성적 계산법으로 사라진 공백HIATUS을 되찾으려는 섬세한 관찰력으로 책을 읽으며, 둘째 뭉치거나 쪼그라진 사유의 타래를 툭툭 털어 성겨진 공백을 채울 든든한 상상력으로 책을 읽는다.

근대주의 이성의 금자탑에 해당하는 미분법은 구부러진 곡선을 수학적으로 무한분할한 후 그렇게 미소 분할된 직선의 면적을 합하여 전체 곡선의 면적으로 대체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미적분법은 과학의 승리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이지만 그 대신 곡선과 직선의 차이에서 생긴 공백의 재생산 확장성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 공백 안에 인간-비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미래가 내재되어 있다. 이 책은 수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내재된 공백을 관찰하는 용기를 내어도 괜찮다.



이 책을 두 번째 방법은 계산에 지쳐 꼭 쪼여져 있는 뇌 속의 신경회로들을 조금씩 풀면서 머리를 훌훌하게 놔두자. 그 훌훌해진 사이사이에 공백을 만들어서 그 공백 깊이 상상력이 스며들어가게 두는 방법, 그것이 이 책을 읽는 아주 소박한 둘째 방법이다.



라투르의 원저 『존재양식의 탐구』에는 그 혼한 각주 하나 없지만, 플라톤의 존재론에서 근대 인식론의 철학이 내재되어 있으며, 현대 화이트헤드와 들뢰즈 철학이 응축되어 있다. 그래서 라투르 원저 『존재양식』을 읽기가 쉽지 않다. 여기 원저 속 깊이 내재되고 응축된 기성 철학의 논의들을 다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도록 해제본 『공백의 실재』를 시도했다.

자, 준비가 되었으니 읽기 시작하자. 이 해제본은 라투르의 원저의 챕터에 맞춰 써져 있다. 기초 개념이 나오는 1부는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있지만 원저와 다르게 2부와 3부에서는 아무데서나 먼저 읽어도 된다. 관찰력과 상상력의 마음만 잘 챙기면 말이다.

라투르의 존재양식

몇 가지 용어 해설



몇몇 기초 개념

존재양식

1. 단일하고 유일하다는 플라톤 존재론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다수적이며 상호 생태의 존재이며 서로에게 소통가능한 존재의 모습이다. 존재론과 인식론이 합쳐진 구조에서 존재의 양상과 존재의 실재가 하나의 몸체를 나타낸다.
2. 라투르 고유의 형이상학으로서, 깊은 존재론과 관련되어 있다.(44)
3. 현장에서 드러나는 사건을 이론적으로 포괄하는 메타언어 즉 철학을 통해 존재양식의 탐구가 가능하다.(47)
4. 유일성 대신에 다수와 다중, 독립성 대신에 관계와 교차, 불변성 대신에 변화와 번역, 절대성 대신에 상호와 교차의 양태를 보여주는 양식으로서, 그런 존재양식은 인식과 존재를 통합하는 양식이다.

경제와 생태

1. 경제economy와 생태ecology는 oikos 라는 친숙한 거주지의 두 가지 형태였으나, 근대 이후 경제의 땅은 거주 불가능하게 되었다. 근대인은 경제의 땅 안으로 이주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2. 생태의 땅은 아직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지금은 '생태'의 땅이 지속가능하다는 명분으로 팔렸지만 아직 경제의 땅만큼 실제적이지 않은 것이 약점이다.(49)
3. 근대인은 경제라는 디스토피아와 생태라는 유토피아 사이를 떠돌고 있는 무리다.(50)

4. 생태 유토피아를 라투르는 가이아로 은유한다. 주변에 눈을 뜬 일부의 근대인이 지금의 근대라는 인류학적 땅을 탈출하여 살고 싶은 곳을 찾고 있는데 그런 땅이 가이아이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라고 변함없는 땅은 아니라고 라투르는 말한다.(49)
5. 경제의 땅에서 생태의 땅으로 이주하려는 설계도 위에서 벌어지는 기초공사가 바로 이 책 『존재양식의 탐구』이다.

(방법론적 태도로서) 외교관diplomatic 역할이란

1. 근대인이 자랑하는 합리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이다.(28)
2. 자기와 타자 간의 경계를 재협상하여 새로운 공역을 찾아가는 과정이다.(41)
3. 어둠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섬세한 탐험이다.(41)
4. (겉으로) 엄격한 근대인에게 배신자라는 비난이나 낙인에 굴하지 않는 중요한 위상이다.
5. 외교관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다양하고 다수의 존재양식들 사이의 연결을 파악하는 노력이다.
6. 구체적으로 말해서 개별 영역(예를 들어 과학이나 법이나 종교와 같은 유형)에서 자신의 이론이 이론 외적 요소들과의 불연속성을 연속성으로 변화(<통과>)시키려는 연결작용의 행동이다.
7. 이 책은 근대를 벗어나도록 존재의 다양한 모습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근대인을 경멸하지 않으며 오히려 포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대인과 소통해야 한다. 사실 알고 보면 근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인간(비인간 포함)도 그런 근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근대인의 실상을 관찰하는 것이 인류학자의 일이며, (2)좀 더 깊은 현장까지 파고들어 관찰에 그치지 않고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민족학자의 일이며, (3)현장에서 구체적인 면담하고 기록하는 것이 연구자의 일이다. 이들의 일 모두가 외교관과 같은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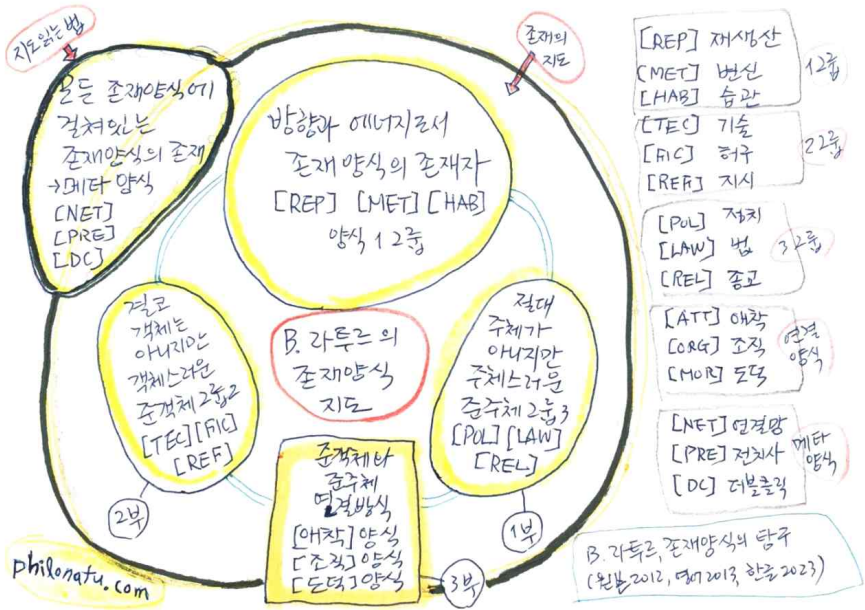
8. 이런 의미에서 인류학자 그룹은 외교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81)

가로지르기

1. 인류학자는 법, 정치, 과학, 종교, 경제 등 각각의 영역이 고유한 동일성 영역으로 분리-경계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음을 알게 된다. 경계선이라는 것이 동질적인 두 가지 집합을 나누는 구분선이라기 보다는 이질적인 요소들 간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통행crossborder traffic의 접촉면이다.(57)
2. 가로지르기의 예로서 과학실험실의 상황을 보자. 과학실험실에서 신약 제조에 관여된 미생물 배양을 하는 어느 생물학자는 실험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하고 윤리문제로 목사와 상의하며 현미경 수리를 하러온 기술자와 협의하며 단백질 분석장비 구입을 위해 산학협력단 회계사와 상의하고 지방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부시장과 논의하기도 하며 향후 생물학적 발견물 관련 벤처 기업 투자자들의 방문을 받기도 한다. 이런 행위들은 과학 외적인 요소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안에 외부의 법과 경제, 정치와 종교가 이미 다 들어와 연결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58) 실제 영역은 연결망뿐이다.

존재양식은 새로운 표현 코드 [***]

1. 이 책 전반에 걸쳐 라투르 고유한 의미를 갖는 [존재양식]은 연결망의 존재양식[NET]처럼 알파벳 철자 3 글자 코드로 표기된다.
2. 1부에서 10개의 존재양식[***]이 설명되는데 전체 15개의 존재양식이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소개될 것이다.



라투르의 존재양식 1장 해제
존재양식의 존재자들



연결망이란

1. 서로 다른 범주들 사이의 경계가 있어도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관계성을 갖는다. 연결망 안에서 개별 존재자의 경계는 분절되는 구획이 아니라 연결과 소통을 위한 통로crossborder traffic이다. 라투르는 연결망을 다음의 비유로 설명한다.
 - ① 하수도 연결망이나 케이블 연결망처럼 구체적인 비유로 설명가능하다.
 - ② 인터넷망과 인터넷정보가 다르듯이 또는 이동되고 있는 것과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으면서(송유관이 휘발유로 만들어지지 않듯) 연결망 자체의 연결성이 있다.
 - ③ 연결망의 연결력은 연속적이다. (송유관이 누출되면 운영자는 밸브를 닫아야 한다)
2. 이질적인 것을 결합하는 것이며, 경계선에 제한되지 않는다.
3. 경험적 조사연구와 그 방법론, 즉 관찰과 관심의 태도가 연결망에서 가장 중요하다.

연결망 사례: 연결망의 이중운동double movement

1. 인터넷 연결망은 인터넷 기술결과로 탄생한 통신과 그런 통신을 가능하게 한 기술여건과 연관된 자본이나 정책 등의 연결망 형태다. 이것도 연결망의 한 양식이다.(60)
2. 연결망으로서 가스관 망은 단순히 송유관 연결망에 그치지 않고, 그런 가스관을 만들기 위해 강철관 제작기술, 철탑기술, 국제조약이나 협력 혹은 갈등조정외교, 투자기업 유치나 세계 에너지원 동향 등의 송유

관-밖-전체 연결망을 말한다.(61)

3. 연결망은 요소적 연결망과 기술적 연결망의 이중운동이다.(66)

존재양식(인식과 존재를 연결한 형이상학)으로서 연결망[NET]

1. 이질적 영역 사이의 다양성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다양성 가운데 개별 영역의 특유한 뉴앙스(음조 tonality)의 섬세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차이의 다양성과 다양한 것마다의 음조를 상실하지 않고 포괄하여 조화하는 것이 연결망이다.
2. 연결망의 이중운동 연결망을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가치와 서비스를 공급한다.
3. 기술적 연결망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정보원들의 이중적 태도를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 정보원인 경우 법적 내부와 동시에 초법적 외부(예: 법을 짓누르려는 정치권력이나 종교적 신념들, 혹은 법 외 인간관계나 경영상태 등등)가 서로 관계하는 공존의 존재양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4. 과학자 정보원의 경우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가장 비과학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종교의 정보원인 경우 종교적이면서 가장 불경스럽기도 한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이런 이중성을 수궁할 때 연결망의 관계성이 이해될 수 있다. 라투르는 이중적 태도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an ineffable " je ne sais quoi,"의 태도라고 표현한다.(68)

연결망 [NET] 존재양식에서 번역 -동일성 존재론과 다른 점

1. 세포배양 실험실의 사례를 보자면, 시간변화에 따른 배양상태를 전혀 다른 수단인 도표로 보여주는 것이 번역의 한 가지 사례이다. 다른 말로 해서 존재자의 전건과 후건을 연결하는 것이 번역이다.(74)
2. 여기서 “전건”과 “후건”이라는 용어는 논리학에서 자주 접했는데, 이 용어는 연속적 논리로 본 전건과 후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 번역의 전건과 후건을 말하는 것이다. 앞의 배양실험실 상황을 다시 보자. 실험실에서 혹은 실제 세포군에서 배양상태의 결과는 예측가능하지 않다. 수많은 외부변수들이 간섭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양상태의 전건은 후건 사이의 관계는 변형과 변이를 항상 배태하고 있다.
3. 불연속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연속적인 것들로 바꾸어 주는 일, 변형을 포섭하여 더 큰 존재양식으로 접근하는 길을 “번역”translation이라고 한다. 라투르가 말하는 “번역”도 들뢰즈의 의미방식과 비슷하다. 번역의 연결망을 추적하는 행위를 시험trial 이라고 한다.(74)
4. 번역을 통해 불연속적인 것이 연속적으로 보이게끔 된다. 이런 번역은 객체 입장에서 존재자의 동일성이 고정된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즉 번역은 존재자가 항상 동일성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작업이다.
5. 수학 같은 순수관념들의 존재론적 동일성으로 경험계 존재를 지배할 수 없다. 현실의 경험세계 혹은 자연세계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법은 없다. 현실 자연의 모습에서 존재론적 혹은 전통 형이상학적 동일성은 없으며, 그런 동일성이 정해지지 않는 것을 “불연속성”혹은 “변형” 혹은 “공백”이나 “도약”이라는 용어로 라투르는 설명한다.
6. 불연속을 연결망 안으로 포섭하는 과정이 번역이다. 존재의 연결은 타

자들과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계속 스스로를 변형시켜가야 하는 번역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과정을 (경유하는 것을) “통과”PASS라고 표현한다.

가치 고유성은 연결망을 방해한다

1. 자기영역만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고유한 성질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가치 다양성이다. 가치의 고유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다른 영역과의 경계선을 강하게 지키려하게 되고 결국 결합의 다양성을 잃게 된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2. 가치의 고유성은 결국 가치의 폐쇄성으로 간다.
3. 예를 들어 자기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만 하면 과학과 정치는 연결되지 못하고 법과 종교도 별개의 영역으로 남게 된다.(66)

통과PASS 그리고 연결망

1. 법의 경우, 법조인이 사건을 다룰 때 법 조항을 벗어난 수단과 절차 혹은 여타 주변조건과의 관계 상황들에 크게 영향 받는다. 이런 관계상황이 법조인에게는 연속적으로 여겨지겠지만 법 밖에 있는 사람에겐 불연속적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내부의 법과 외부의 다양한 수단(절차)이 하나의 유체fluid로 순환되는 연결체가 법 존재양식이다. (법 존재양식은 13장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2. 수단(절차)을 연결하여 하나의 유체 같은 체계로 보이기 위해 불연속 사이의 공백을 도약함으로써 연속적으로 보이게 하는 연결법이 있는데, 그렇게 불연속 존재에서 연속적 현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통과" 개념

의 핵심이다.(69-70)

3. 과학의 경우 좀 더 이해하기 쉽다. 효모를 연구하는 과학자는 시간에 효모 변화와 그 변화를 도표로 변형transformation하는 것이나 도표를 특정 수학적식으로 변형하는 것 등등, 여러 과정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통과이다. 이런 통과가 과학 외부 사람에게는 불연속으로 보이지만 과학자 자신에게는 연속적이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과학자의 수행능력이다. 그런 수행능력에는 과학적인 것과 과학적이지 않은 것 사이를 연결하는 행위능력도 포함된다.
4. 불연속으로 보이는 것을 연속으로 바꾸는 통과pass를 거치는 것이 [NET] 연결망 유형의 특징이다.
5.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경계도 연결망으로 결합될 수 있다.(73-4) 여기서 “통과”란 논리적 연속성의 연결루트가 아니라 불연속과 공백, 번역과 변형의 과정을 의미한다.

종교 유형에서 나타난 변형과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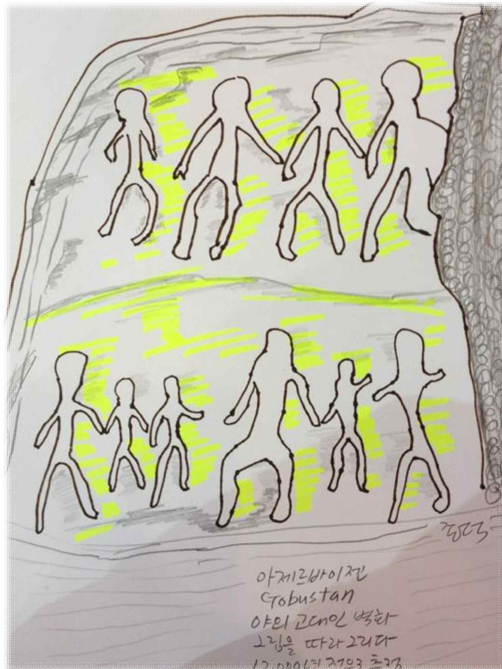
1. 종교 유형에서는 종교 원론 외에 부수한 외적 요건들 즉 권력, 돈, 교회 규모, 정치적 끈, 자기 교회의 신도수 등의 변형이 마치 종교의 연속성으로 통과되는 제도화로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통과를 이해하지 않고 종교연구는 불가능할 정도다. 여기서 말한 종교원론은 종교적 원리주의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며 단지 종교 탄생의 기초 도그마를 말한다.
2. 종교 외적인 요소들로 종교 자체를 유형화하는 가치의 변동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종교의 충실성을 종교 외적 요소로 규정하는 경우가 역사에서 자주 나타났다. 거꾸로 말해서 종교 유형은 종교 원론과 종교

외적 요소들 사이의 피할 수 없는 행위자-연결망 유형임을 보여준다.

3. 특정 종교 가치와 해당 특정 종교 제도 사이의 복잡성이 교회 역사의 특징이다.
4. 종교 유형의 변형이 다른 유형의 가치를 변경한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작은 오류가 과학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며, 거꾸로 아주 소수이지만 과학의 발달이 종교의 외형이나 원론을 수정해갈 수도 있다.(77-8)
5. 종교 존재양식에 대하여 라투르의 종교철학 11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라투르의 존재양식 2장 해제

이성의 범주 오류



일차오류first-degree mistakes, 해석의 키 interpretive key

1. 대화자 사이의 키[KEY]가 같더라도 다른 관찰방식(관점)으로 대할 경우 다른 감각으로 수용될 수 있다. 이는 편향의 오류"를 일으킨다. 이런 오류를 일차오류라고 한다.
2. 일차 오류는 감각오류로서 범주 가이드를 잘못 받아 생긴 오류이다. 예를 들어 관찰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오류 들은 교정가능한 지식이며, 이를 동일 범주 해석의 키라고 한다. 범주가 동일한 경로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라서 그 오류에 대한 교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런 감각오류는 범주가 벗어나지 않는 한 교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일차 오류에 해당한다.(87)
3. 일차 오류는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잠정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 지식의 경로 즉 인식론의 경로에서 일어난 오류라면, 그 경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비용이 들고 논란이 있기는 하여도 다행히도 수정하여 수행을 마무리할 수 있다.(91)
4. 그러나 오류가 수정되더라도 아마 영원히 잠정적 해결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객관적 지식이란 언제든지 새롭고 다른 지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차 오류 second-degree mistakes

1. 이차 오류는 해석의 키가 위치한 경로가 동일하지 않고 키 자체가 다른 경로에 있는데서 오는 오류이다. 범주 오류는 이차오류에 해당한다.
2. 존재 양식이 갖는 감각 오류(일차 오류)가 아니라 양식 자체를 바라보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오류를 말한다. 감각sense오류가 아니라 방향 direction오류이다. 감각 오류를 제거해도 방향의 오류는 남을 수 있

다.(91) 다시 말해서 방향과 경로가 다른 범주에 놓였던 감각오류일 경우, 전 범주 안에서 아무리 감각 수정을 한다고 해도 헛발질만 한 셈이다.

3. 방향오류는 교정되기 쉽지 않다. 20세기 언어철학자 라일(Gilbert Ryle, 1900-1976)이 지적한 범주오류의 예를 들어보자. 소르본 대학을 찾아가서 안내자로부터 많은 대학 건물을 안내받았다. 인문대 캠퍼스(faculté des lettres), 자연과학대 캠퍼스(faculté des sciences et ingénierie), 의대 캠퍼스(faculté de médecine) 그리고 도서관과 기숙사 등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르본 대학이 어디냐고 반문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대학이라는 범주와 산하 캠퍼스라는 범주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류이다. 이를 길버트 라일은 범주 유로라고 표현했다.
4. 범주오류는 길을 잘 못 드는 실수를 하여 건물을 못 찾는 수준의 일차 오류와 전적으로 다르다. 감각의 실수로 길을 못 찾는 것은 일차 오류이며, 이런 일차 오류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교정할 수 있다.(안내를 받거나 지도를 꼼꼼히 살피면서 본관 건물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방향오류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 대상을 접근하는 접근방식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오류이다.(89) 소르본 대학 내의 수많은 건물들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소르본 대학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우문은 곧 범주오류이다.
5. 법원 소송에서 내가 소송에 이겨도 내가 피해 받은 심적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 나는 승소했지만 그동안 피해 받은 상황을 되돌려 원점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직장 상사나 정치 권력자와 마주하는 일상생활인의 경우 권력이 강한 상대가 거짓을 일삼아도 나는 그에게 충고 한마디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권력의 비밀에 갇힌 나는

여전히 방향 오류에 빠져있다.(89) 탐구 경로와 범주가 다르다는 데에서 오는 것이 “방향 오류”다.

참과 거짓이란

1. 양식마다 다른 진리진술verdiction(진리판단 근거)에는 여러 타입이 있다. 양식 내부에서 말하는 진리진술은 동일 양식, 동일 경로에서 판단되므로 오류의 원인 자체에 대한 오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92)
2.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하는 옳고 그름은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이라도 "법적" 존재양식 내부에서 내려진 자기만의 결과일 뿐이다.
3. 법적 틀이 아닌 포괄적 큰 틀에서 혹은 틀 밖에서 타 외부 요소들, 권력편향이나 보이지 않는 계급화의 차이 등에서 오는 경로-밖-오류로 말미암아 법정 내부의 판결의 진위는 이차 오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라투르의 지적이다. 이런 오류론은 라투르 법철학의 기초로 된다.(94) 라투르 법철학은 13장에서 다시 논의된다.
4. 참과 거짓의 잣대는 특정 존재양식의 내부에서 정해지는 것이 근대인의 현실이다.

적정성 상태Felicity conditions과 비적정성 상태 Infelicity conditions

1. 적정성: 혹시 상이한 범주에서 개념을 다루는 것은 아닌지 잘 관찰하여 적정한 범주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각각의 존재양식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적정성 기준을 가지고 있다. 존재양식1의 적정성 잣대로 존재양식2의 진리판단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2. 비적정성: 가시적이고 근대인이 소위 객관적이라고 하는 사유의 수단으로 오류를 제거했다고 할 때 그 오류는 일차 오류에 해당할 것이다. 범

주 안의 일차 오류는 없어졌어도 범주 밖 이차 오류는 여전히 잔존할 수 있다. 이차 오류를 그대로 안고 간다면 서로 다른 범주 사이에 비적정성 오류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해당 범주 밖, 다른 범주의 문제라서 생기는 오류, 즉 비적정성 상태에서 객관성의 기준은 동의되기 어렵다. 동일 대상이라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음조로 드러난다.(97-8)

3. 화해: 라투르의 적정성 문제는 그 용어의 정의를 하고 끝내는 데 있지 않다. 다른 영역, 다른 존재양식 사이에 단절이나 고립이 아닌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각기의 존재양식 사이에서 비적정성 상태가 어떻게 화해될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 일이 중요하다.

전치사 존재양식 [PRE] Preposition

1. 명제가 진술된다는 것은 그 명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여 진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 명제는 자신의 위치를 통해서 자신의 의미가 전달되고 파악될 뿐이다.
2. 명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치사 존재양식[PRE]은 해석의 키 interpretive key와 같다. 특정 범주마다 고유한 범주 내부 해석방식이 다르듯이 전치사 존재양식은 그렇게 다른 범주의 방향을 알려준다.
3. 전치사를 통해서 그에 따라붙는 개념의 관계유형이 이해될 수 있다.
4. 전치사는 전치사에 붙는 것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일정한 각도와 일정한 키[KEY]로 우리에게 관여한다.”(98) 독일어 동사의 경우 전치사가 아예 동사 안으로 합체된 동사들이 아주 많다. 동사는 어떤 종류의 전치사 (해석의) 키[KEY] 합체되는지에 따라 동사의 뜻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끌어온다는 뜻의 동사 ‘ziehen’은 전치사Präposition 키 ‘aus’, ‘an’, ‘zu’, ‘auf’ (혹은 ‘herauf’나 ‘hinauf’) 등, 어떤 전치사

[KEY]를 붙이냐에 따라서 뜻이 정반대로 되는 등, 동사 활용도가 확장된다. 다시 말해서 전치사에 다라 범주가 다르다는 뜻이다. 그 정도로 전치사 의존도가 높다.

5. 전치사는 어떤 것의 토대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그 전치사에 의존한다.(99)
6. 전치사가 달라지면 영역 혹은 범주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렇게 달라진 영역 혹은 범주와 맞닿으려면(crosssing; 관통하려면) 그들 범주마다의 음조(tonality;뉴앙스의 뜻임)에 맞춰 조화되어야 한다.
7. 연결망 양식과 같은 대부분의 일원론의 약점은 범주마다의 가치가 특화되지 못한다는 데 있는데, 이런 약점을 전치사 양식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라투르는 말한다.(105)

화이트헤드의 상식 common sense

1. 서로 다른 범주, 서로 다른 전치사에서 변환되는 수많은 다양한 해석의 키들을 조율하는 것은 결국 타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며, 그런 관심이 바로 상식common sense이다.
2. 라투르는 상식common sense과 양식good sense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식은 주어진 범주 내부에서 주어진 음조양식에 맞춰진 내부-논리적 해석키에 따른 이해방식이다.

연결망과 전치사의 양식 [NET·PRE]에서 교차와 대조

1. 내가 어떤 연결망에 위치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앎을 통해서 서로 다른 영역 사이의 경계선에 억압되지 않는 자유로움을 얻기

때문이다.

2. 동일한 상황이라도 다른 [PRE]에서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파악되기도 한다. (앞의 전치사 4번 문장을 다시 읽으면 된다)
3. 모든 상황은 [NET]양식과 더불어 [PRE] 양식에서도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연결망 양식은 결합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전치사 양식은 다수 양식들의 차이를 파악하게 해준다.(104)
4. [NET·PRE] 양식의 교차 관계를 이해한다면 왜 종교를 법이나 과학으로 판단할 수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105)
5. 존재양식 사이를 연결하는 교차를 통해서 양쪽의 분지를 관찰하고 혹은 양쪽 사이에서 적정성 상태(앞의 해설을 참조)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양쪽을 대조contrasts함으로써 교차를 가능하게 한다.(105)
6. 예를 들어, 동일한 "자연"이라는 용어가 서양철학의 범주와 동양철학의 범주에서 왜 그렇게 다른지를 알려면 동서양 철학에서 "자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상호대조하면 쉽게 양쪽 사이의 대화와 교차가 가능해질 것이다.
7. 연결망 존재양식은 가시적이며 다른 범주 사이의 교차를 강조하고, 전치사 존재양식은 비가시적이고 다른 관점 사이의 차이를 강조한다. 적정성 상태는 연결망 양식이 아닌 전치사 양식의 관점에서만 비교되는 것이다.(106)

기존 행위자-연결망이론 ANT의 강점과 약점

1. ANT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제도 관념을 해체하면서 인간-비인간 연결을 보여주며, 사회 양식은 유기체, 물질적, 경제, 심리 등 다른

양식과 연결되고 확장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또한 설명가능하다는 데 강점이 있다.

2. 한편 약점도 도사려 있다. 해당 영역 내부 정보원(종사자 혹은 옹호자)들이 집착하는 그들만의 가치를 구별하기 어렵다. 연결망으로서 결합을 가능하게 했지만 결합된 요소(영역)들 사이에서 어느 것이 얼마만큼 결합에 기여했는지를 알기 어렵고 단지 성공한 요소들만의 통합으로 여겨질 위험이 있다.(106-7)
3. 이런 라투르의 솔직함에 감탄했다.

연결망 양식의 조건

1. 연결망 양식으로 연결망 자체를 묘사할 수 있다. 영역의 자기고유성만 강조하는 근대주의자는 연결된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묘사하지도 못한다.
2. 연결망 양식은 그런 근대인과 대화하면서 그들이나 우리나라 각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할verify 수 있어야 한다.
3. 행위자의 설명과 연결망 개념의 묘사가 서로 차이나는 이유를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론과 실천의 차이를 좁힘으로써 다른 양식, 다른 영역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연결의 재정식화가 제안될 수 있어야 한다.

연결망 프로젝트의 시험자로서 외교관

1. 경험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현장에 충실해야 한다.
2. 연결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도권 안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 점은 라투르 연결망 철학의 독특성이다. 연결망이 들어 오지 못한 존재자들 혹은 연결망 존재양식을 부정하는 존재자들까지 포용하고 대화하는 노력을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라투르의 기본 태도이다. 라투르는 이런 태도가 서론에서 언급한 “외교관” 태도라고 표현했다.

3. 다양한 가치들을 설명할 수 있는 연결망이어야 한다.
4. 연결망 이후의 거주민들로 하여금 이전 거주민들보다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108-9)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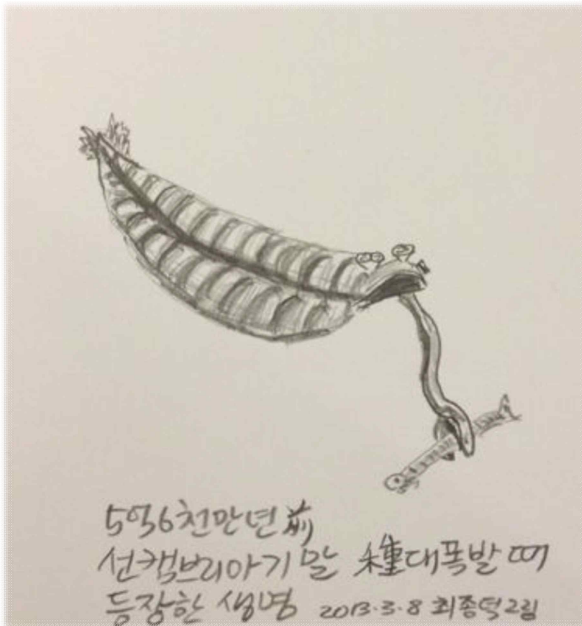
이성, 대문자 이성의 역사

1. 근대의 편협한 이성에서 벗어나 오류에 안주하지 않고 사물의 이치를 따라 합리적 존재자로 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희망하는 삶의 형식을 대문자 이성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109) 즉 근대인의 이성의 폭에서 탈출하여 포괄적이고 연결망 근거로서 이성을 말한다.
2. 라투르가 말하는 대문자 이성은 연결망 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투르 표현 그대로 “연결망 없는 이성은 케이블 없는 전선이고 가스관 없는 가스이며 통신 연결장비 없는 전화통화이며, 걷지 않는 하이킹이며 법적 수단 없는 법정 원고와 같다.”(110)
3. 연결망 없는 합리성은 내용 없는 기호들의 수학적 식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좋다.
4. 근대인이 뺏어간 이성은 기하학적 합리성 RATIONAL 일 뿐이다. 진짜 합리성(대문자 합리성)은 다양한 연결망들에서 다양한 전치사들의 맥락을 가닥별로 혹은 단계별로 끊이지 않고 추적하는 과정이다.

라투르는 실재reality를 수용하는가?

1. 실재는 다 만들어진 기성품처럼(베르그손이 말한 것)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실재는 오히려 존재 자체가 사실을 확립하는 작업의 과정에 있다. 존재는 형성 중에 있으며 만들어지고 있다in the making고 라투르는 말한다.(109)
2. 라투르는 기성 철학사에서 말하는 실재론을 거부하지만 라투르 방식의 실재론을 찾아낸다.
3. 라투르가 찾는 실재는 마누엘 데란다의 평평한 존재론flat ontology과 맥을 같이 한다. 인간과 비인간, 큰 것과 작은 것, 인공물과 유기물, 모든 것은 평등하게 존재한다.(마누엘 데란다 2009,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 잠재성에서 현실성으로)

라투르의 존재양식 3장 해제
더블클릭의 유형



양식(영역;범주) 외적 불연속을 뛰어넘어야 하는 통과passage 과정

1. 법적 수단으로서 통과, 과학적 증거로서 통과, 종교적 설교로서 통과, 전천후all-terrain양식인 결합의 연결망으로서 통과, 이런 통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 교차하려는 능동적 행동이며 둘째 범주 사이 적정성 상태를 용기있게 질문하고 응대하는 행동이다.(119)
2. 단일 존재양식의 범주 실례로서 법의 존재양식을 보자. 법원 판결은 법적 존재양식의 원론인 법의 텍스트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양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텍스트 외적인 권력구조나 관성화된 법조인 사이의 내부 조직력 혹은 자본과의 연결 등의 법 외적 불연속성에 기대어 있다. 법적 판결이 법적 텍스트에만 의존되지 않고 법 외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라는 뜻이다. 한국의 정치상황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된다.
3. 법적 판결은 이성이라는 진리조건을 벗어나서 법적 텍스트 외의 공백과 불연속성을 통해 도약하는 통과passage과정인 법정 현실을 메꾸고 있다.
4. 범주 내부 정보원들은(법정 형식을 지켜야 하는 내부 사람들) 이성을 도약하는 통과 혹은 교차를 통한 판결을 부정하면서 내부 이론(법정 텍스트) 자체의 이성적 대응능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정보원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120)
5. 통과란 쉽게 말해서 어떤 존재자가 거쳐야만 하는 환경과의 관계, 간섭, 영향 등의 요인들에 응답하는 양식이다. 논리적 응대는 통과 양식 없이 진위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라투르의 존재양식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이성주의 응대는 통과 양식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통과를 거치면서 번역과 변환, 공백과 불연속이 드러난다.

대응의 실제- 무엇이 대응된다는 말인가

1. 실증주의 혹은 기존 진리대응설에 말하는 대응론의 철학적 권력(파워)에 우리는 머뭇거릴 필요 없다. 근대인은 그런 대응주의 진리관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지만, 통과 없는 대응은 세계를 설명할 수 없음을 라투르는 잘 말하고 있다.
2. 대응은 실제로 세계와 명제와의 대응관계가 아니라 세계를 묘사한 진리진술 양식과 범주 내부의 진리진술 양식 사이의 관계일 뿐이라고 라투르는 말한다. 근대인은 전혀 별개인 두 가지 진리진술 양식 사이의 관계를 마치 진술과 세계 사이의 1:1 대응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라투르는 강하게 비판한다.(121) 논리학에서 대응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연결망 안에서 주객의 관계를 대응론으로 보는 근대인의 절대적 대응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라투르의 태도다.

불변의 가동물 immutable mobiles - 모바일 수행은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다

1. “이동할 수 있지만 불변하고, 표시 가능하고, 판독 가능하고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속성을 갖는 객체”가 불변의 가동물이다. 라투르 1986년 “시각화와 인식”이라는 논문에서 이 용어가 처음 표현되었다. (Latour 1986)
2. 일회성(‘일시적’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뜻은 ‘한 번 생성되면 그 후로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사건 혹은 그 흔적을 여러 장소와 다양한 시간에 지속적이고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문자적 표현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발생한 후에도' 여러 방식으로 타자에 의해 적용된다는 점이

다.(Rheinberger 1997, 106).

3. 라투르가 처음 ‘불변의 가동성’ 개념을 생각했을 때 인쇄술의 발명이라는 기술적 전환을 염두에 두었다. 인쇄술 개발로 인해 한번 만들어진 문서나 그림이 손상 없이 다른 지역 다른 시간에도 원본과 똑같이 재현된다는 데 착안하여 현대과학기술도 불변의 가동성이라고 확장시켜 설명했다. 손으로 그린 지도나 비문 도표나 글쓰기 모두 불변의 가동물의 사례이다.
4. 불변의 가동성으로서 데이터는 이동가능하지만 원본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책은 불변의 가동물로서 대표적인 사례인데,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양한 방식으로 복제되어 퍼진다. 인쇄술 발달로 널리 전파되어 책의 불변성이 가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Latour 1986, 11)
5. 불변성이란 시각화된 것 혹은 기입된 데이터의 증거력을 부여한다. 이런 증거력 있는 불변체를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돌려주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가동성이 있다고 말한다.

지시의 연쇄 chains of reference - 지시의 연쇄는 단절/고립의 사물(양식)과 다르다

1. 불변의 가동물은 그것이 불변이라고 해도 여전히 세계를 그대로 묘사한 것은 아니다. 지도가 영토와 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간의 실수를 하면서도 (약간 헤맬 수도 있지만) 영토를 걸어간다. 불변체가 가동함으로써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런 불변체의 불연속적 변형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것을 라투르는 지시의 연쇄chains of reference라고 부른다. 윌리엄 제임스가 재밌는 말투로 표현한 “진리의 보행”deambulatory이라는 은유와 비슷하다. 연쇄 없는 지시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경험을 주지 못하며 단지 편린 조각들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125-7)

2. 정신과 실재는 밧줄로 서로에 연결된 일대 일 대응체가 아니라 지시의 체인처럼 하나의 몸이다. 화이트헤드 이해방식으로 사건의 연속체라는 뜻이다.
3. 불변의 가동물을 만들 때 주로 원본, 영토의 눈에 띄는 특징을 추출 extract한다. 그런 추출된 특징들은 그 자체로 알아보기 쉽지 않지만 그것들의 연쇄를 통해서 우리는 지도의 품질을 알 수 있다.(128)
4. 그런 추출된 지도표시는 오류도 있고 누락도 있다. 지도에서 무엇을 지시한다는 뜻은 오류를 보고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현실의 땅에서 reference지시체에 도달하는 길은 꾸불꾸불하고 불연속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아 보인다. 지도 같은 이상적인 영토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도 없이 영토에서 지시체를 찾아갈 수 없을 것이다. 지도는 이성의 역할을 한다.(129)
5. 현실의 영토는 지시체 하나로 독립된 땅은 없으며 모든 것이 연결된 망이다. 쉽게 말해서 지시의 연쇄 안에서 이성의 역할은 행동을 통해 (실제로 영토를 걸어가면서) 불연속과 공백으로 가득한 단계를 뛰어넘는 도약을 경험한다.(130) 실제 땅을 걸어갈 때 지도와 영토는 별개의 존재양식이 아니라 연결된 크로싱이다.
6. 인식대상과 인식주체라는 기존 칸트 식의 인식론은 지시의 연쇄가 확장되어 누적된 결과물의 양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상과 주체인식이 대응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대응 이전에 이미 양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인식 연결망에서 작동된 것이다.
7. 연쇄라는 점에 집중하면 주체와 대상이라는 두 극단이 사라진다.(130)

8. 지시의 연쇄란 주체와 대상, 정신과 실재 사이에 매달려 있는 밧줄 같은 것이 아니라, 정신과 실재를 하나의 몸으로 갖고 있는 기다란 뱀 같은 하나의 몸뚱어리다. 연쇄의 몸뚱어리는 어디라도 늘어날 수 있다.(130)
9. 쉽게 말해서 지시의 연쇄는 과학 장치 혹은 제도 과학자나 그들의 기술 등과 같은 상호 연동된 상주 지식들이 서로 관계하고 연관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고정 pre-given된 것이 아니라 연관체 내부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서 협상하거나 안정화되는 역동적 과정의 소산물이라는 점이다.
10. 다시 말하거니와 세계는 지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지시체의 연쇄들로 구성된다.
11. 지시의 연쇄를 이해한다면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세계는 인식되는 사물이 아니다. 세계를 인식하는 정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식되는 세계와 인식하는 정신의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존재의 연결망이다.(131)
12. 기존 물질, 지시체라는 딱딱한 존재 관점에 머물고 있다면 지시의 연쇄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 지시의 연쇄는 지식의 연관성 파악을 위해 필수적이다.
13. (가장 중요) 불행히도 라투르는 이런 지시의 연쇄가 지식의 연관성으로 가는 통로를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유했다. (134)

지식의 연쇄를 통한 지식의 확장

1. 고정된 관점에서 탈피하여 관점의 이동displacing the viewpoint이라는 장치에 유연하다면 과학 지식은 무제한 확장될 수 있다.(135) 예를 들어 행성이나 은하계 연구하는 천문학자에게 갈릴레오의 굴절망원경에서 반사망원경으로의 발달, 최근의 허블 망원경에서 제임스웹 망원경의 발달로 인해 천체 지식은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었다. 한편 역학방정식의 발달로 인해 천체 지식은 정교한 엄밀성을 갖게 되었다. 천체는 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지만 그 천체를 대하는 관찰수단과 관점이동의 누적된 변화가 지식의 확장을 가져왔다. 이런 과학의 변화가 지식의 연쇄를 설명하는 사례로 될 수 있다.
2. 여기서 지식 확장이란 지식 자체의 외적 확장도 있지만 내적인 의미로서 동일 지식이라도 다른 각도로 전개되어 새로운 창조를 낳을 수 있게 된다.
3. 지식을 우리와 절연된 객관적인 것으로 본다면 그런 지식은 환원불가능한 고립된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137)
4. “지식 너머”란 자기 지식이 속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현존을 평등하게 존중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즉 다른 양식(영역)과 교차하여 자신의 궤적과 다른 지식의 궤적이 만나는 하나의 연결망을 이루게 하는 태도이다.

과학에 기반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근대인) 진리대응설에 대하여 되물어보기(인류학적 질문)

1. 과학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실재, 사물)와 만나고 있는가?
2. 사물이라는 인식대상과 인식주체가 대응된다는 말이 실제로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3. 세계보다 앞선 인식의 틀이 과연 가능한가?
4. 세계와 명제(말)가 대응되고 있나?
5. 명제지식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가?(116-7)

진리대응론으로 춤을 출 수 없다 : choreography(춤의 악보)

1. 상호-반응(co-response)의 뜻으로 대응이 정신과 세계 사이의 고정된 관계가 아님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탱고를 출 때 춤추는 두 사람은 상대 동작(세부 움직임)에 서로 반응해야 하듯이 상호-반응은 춤추는 동작 춤사위 하나하나를 연결하여 새로운 창작무로 형성시키는 안무결합choreography(안무악보)으로 되어야 한다.(138)
2. 그런 코레오그래피 즉 안무결합 없는 기존의 대응 지식론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없다고 이해된다.
3. 한편에는 존재자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존재자에 대한 지식이 대응된다는 전통 대응론 주장은 일종의 과업분할division of tasks된 것으로 적합성의 오류다.(139)
4. 존재existence와 그 존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진리조건 truth condition이 분리되었다는 것이 과업분할이며, 이것이 바로 범주오류에 해당한다.(141)
5. 추상화된 범주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범주를 상실해버린 상태의 비적합성 오류가 바로 과업분할의 결과이다.

재생산의 존재양식 1

1. 화이트헤드의 ‘사건’의 철학을 조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재생산’ 개념은 사건의 연쇄event sequences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알 것이다.
2. 재생산 양식[REP]과 지시의 양식 reference [REF]의 교차(위험한 관계) [REP • REF]를 이해해야 한다.
3. reproduction재생산 존재양식은 공백과 도약을 통과하면서 적정성 조건을 충족하려 한다.
4. reference [REF]지시양식은 반드시 연쇄를 통하여 자기와 다른 상이한 양식에 결합되어야 의미가 있으며, 그때 비로소 양식 사이의 공백을 넘어서 연쇄가 확장된다. 연쇄 없는 지시는 고립된 물체에 지나지 않으며 공백과 불연속에 충돌된다.
5. 그래서 지시양식과 재생산 양식은 위험한 관계[REP • REF]로 교차되어 있다고 말한다.(146)
6. 다른 측면에서 보면 [REP • REF]는 주체와 객체의 결합을 의미한다.

근대인이 자축하는 승리 그리고 근대의 폭포효과

1. 실험실에서 환원가능한 단순 번역(displacement, translation; 직역)을 가능하게 하고 변형 없는 순수정보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말한다. 근대인이 이루어 놓은 선명한 환원주의, 기하학적 추상화, 기계론적 물질관, 자연과 인간 혹은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의 구도를 짜놓은 근대인의 직조기와 같은 방법론적 도구가 더블클릭의 존재양식이다.
2. 사물의 이질성을 부정하며 도약, 공백, 통과를 부정하는 진리관이다.
3. 연결망의 존재양식을 비이성적이라고 단언하며 상대주의자로 낙인찍는

사악한 천재(모든 것을 다 아는 악마evil genius)로 표현된다.(149)

4. 근대가 만든 주관과 객관의 이분화는 모든 분야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 날렸고 그런 승리는 “근대의 폭포효과”로 이어졌다. 이론과 실천의 차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 마치 폭포의 낙차와 같다고 라투르는 비유한다. 그런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인 “근대의 폭포효과”는 다른 모든 것을 집어삼킬 정도로 그 소리와 후폭풍이 커서 다른 것들 모두를 ‘어둠’ 속으로 가두어 놓았다. 이것이 바로 근대의 슬픔이다.(147)

더블클릭의 도구를 휘두르는 근대인

1. 근대를 <이성> 지배의 출현과 확장으로 규정하는 표준적 정의에 따르면 이성은 바로 그 이성만 허용하는 방법 양식의 하나인 더블클릭 double click [DC]의 자기확장이며, 그들만의 진리기준(원천)을 고집하여, 자기 외에 다른 진리기준(원천)들을 모두 고사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
2. 라투르는 이성 지배의 더블클릭의 존재양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진리의 원천을 인정하고 유념해야하며, 이는 단순히 유념해야 할 과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3. 진짜 근대인이라면 거꾸로 진리의 다양한 양식들을 하나로 용융하지 말고 서로에게 응답하며 타자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진짜 근대이며 라투르는 이런 근대를 대문자 “근대”MODERN로 표시했다. (이 책 전반에서 대문자 근대가 많이 표현되지는 않았다.)
4. 꼬여진 근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역사의 실타래”를 직접 풀어가는 실천을 수행해야 한다. 불행히도 근대는 이런 실천을 오히려 역공격하여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것으로 낙인찍으려 한다. 이런 실천을 비합

리성으로 몰아가는 근대의 ‘악마적 천재’evil genius같은 태도가 바로 진짜 오류라고 라투르는 강조한다.(150)

5. 재생산 양식[REP]이 연쇄 없는 지시체로 빠져서 용융된 것이 근대의 제도화이며 이런 제도화의 결과가 근대의 물질 개념이다. 그 물질은 유물론적 개념에서 탈피 못하고 있다. 근대 인류학의 주요 특징이다. 유물론에서 벗어난 물질을 다시 이해하려면 재생산양식과 지시의 연쇄가 서로 교차되고 연결되어야 한다.[REP • REF]

근대인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준 화이트헤드

1. 라투르에게 화이트헤드 영향력은 크다. “연속성의 생성은 있지만 생성의 연속성은 없다” there is a becoming of continuity but there is no continuity of becoming는 화이트헤드의 말은 재생산 양식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다.(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35.) 화이트헤드의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생성은 계속 생성되지만(라투르는 이를 “반복”이라고 표현했다) 똑같은 것을 재현하는 생성becoming은 결코 생길 수 없다는 뜻이다.
2.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개념은 현실체actual entities이다. 현실체는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지만 원자론적 구성방식과 전혀 다르다. 기존 형이상학의 원자론에서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지만 화이트헤드의 현실체 존재론에서는 개체요소가 아닌 관계가 기본요소이며 그런 관계와 관계 사이의 [관계]가 현실체이다.
3. 현실체actual entities는 플라톤 존재론처럼 정지되고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고 생성 중인 불연속적 관계의 단위이다. 생성 중에 있는

존재의 그 다음 현상은 예측불가능하고 무목적성이라서 화이트헤드는 생성의 연속성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물론 과정 중에 놓여진 존재는 불변이 아니라 지금도 변하는 생성 과정에 있다.

4. 화이트헤드에서 “자연의 이분화”는 전형적인 구체성을 잘못 놓은 오류이다.(Whitehead The Concept of Nature 2장) 마찬가지로 정신/세계 및 정신/물질 이분법적 분할은 거부되며, 일차 특성과 이차 특성의 구별도 거부된다고 라투르는 확실하게 말한다. The "bifurcation of nature" and the mind/world and mind/matter splits are rejected, as is the distinction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qualities.

구성주의 비판: 수리오의 쌍방향 구성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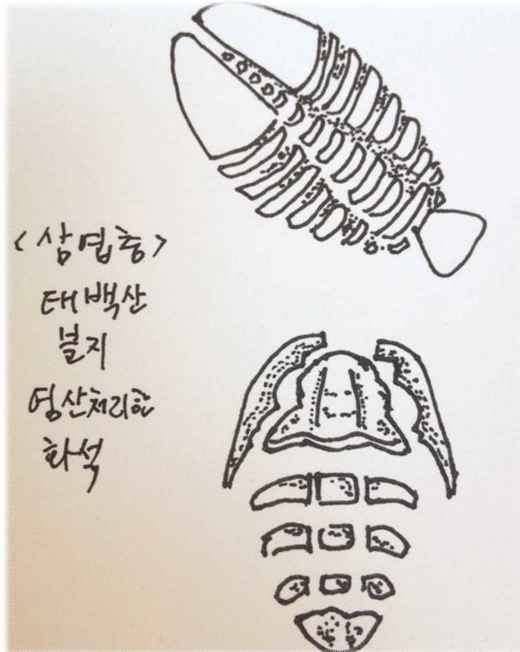
1. 사회적 구성주의를 교정하면서 라투르는 이 용어를 예술철학자 수리오 Souriau의 ‘창설’instauraton 개념으로 대신 설명하려고 한다.
2. 라투르는 존재자가 자아나 사회로부터 투사된 구성결과라는 인간중심의 일방향 구성주의를 부정하고 그 대신 외부대상이나 세계가 인식자를 재구성하기도 하는 쌍방향의 구성을 강조한다.
3. 라투르의 미학 혹은 예술철학은 9장에서 창설 개념이 자세히 설명되지만 먼저 간단히 말하자면, 예술가가 세계를 만나면서 세계를 창조하는 작품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세계가 예술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가의 창작은 창조creation라고 부르고, 세계(존재의 연결망)가 예술가를 창조하는 것을 창설instauraton이라고 부른다. 창조는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의 상호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근대인과 원주민: 원주민을 원시인으로 간주한 근대인 탐구하기 - 발두색의 지적

1. 라투르가 보기에 근대인의 세계관은 전통 서구인이 대하는 “원시인” savages 혹은 “미신” superstitions을 조우하는 태도와 놀랍게도 비슷하다. 더블클릭[DC]의 무기를 휘두르는 근대인의 이성적 이론과 추상적 관념의 허점을 이 책 전반에서 라투르는 지적하고 있다.
2. 그런데 기술철학자 발두색 val Dusek이 보기에 라투르의 지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왜 근대인이 그런 이론과 관념을 갖게 되었는지 그런 이론과 관념이 환상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라투르는 그런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3. 예를 들어 어느 집단의 문화가 타 집단의 문화에서 유래했다는 그런 방식대로 라투르는 근대인과 비근대인 사이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했지만 그 차이의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발두색의 생각이다.(Dusek 2014)
4. 발두색은 라투르의 기술 양식이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로 작용되어야 한다는 라투르 기술철학의 의미를 크게 부각한다. 라투르와 발두색에서 공통적으로 기술은 객체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확장도구이며 확장해가는 땀질 역할을 하여 타자성에 내재하는 틈을 연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연결을 통하여 네트워크는 확장된다.(Val Dusek 2014)
5. 라투르의 기술철학은 8장에서 다시 자세히 논의된다.

라투르의 존재양식 4장 해제

재생산 물질론



존재양식modes of existence을 다시 정리하면

1. “존재양식”이란 진리진술이 각각 다른 존재 형태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존재양식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이 지닌 관습, 존재 방식, 행동유형, 서식지, 장소 등을 언급하며 존재양식을 서술한다. 이 책 『존재양식의 탐구』AIME에서 이런 태도를 유지하지만 '양식'과 '존재'라는 두 개념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확장된 존재들(beings)에 관심을 갖는다.
2. 존재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해당 존재만을 탐구해서는 답을 낼 수 없으며 단지 그 존재가 다른 외적 환경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세심히 관찰하여야 한다. 이때 세밀히 관찰한다는 뜻은 제3자 방관자로서 존재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그 연결망에 참여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3. 라투르 존재양식에서 말하는 존재 혹은 존재자는 플라톤의 존재, 데카르트의 존재와 다르게 불변성 대신에 변화와 생성, 완전성 대신에 질문과 응답, 유일성 대신에 다수와 다의(다중성), 순수성 대신에 이질성과 복잡성, 독립성 대신에 연결과 맥락, 추상성 대신에 상황과 경험의 양상을 갖는 존재양식을 말한다.

근대의 지시 양식 [REF] - 연쇄 없는 지시체들의 존재양식

1. 실증주의 과학은 지시 양식 메뉴에 따라 파드되pas de deux(춤추는 두 사람)를 단순한 대응 배역으로 간주한다. 춤추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응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서로의 동작에 귀기울이며 서로의 호흡을 느끼는 복합적이고 연결된 재생산 양식의 행동이다. 단순히 주어진 각본 주어진 춤사위 악보에 따라 움직이는 지시 양식의 행동이

아니라는 뜻이다.

2. 원자 양성자, 유전자, 세포, 생명개체, 행성, 우주들의 존재가 만약 지시 양식으로 환원된다면 생명과 우주의 현상은 단순 물체들의 배열에 지나지 않는 무생명의 서사시일 뿐이다.(155)

관계적 재생산 양식[REP]의 무대에서 생태화로 가는 길

1. 차이로 가득한 세계와 만나는 통로가 바로 재생산의 존재양식이다.
2. 재생산 양식은 인간만이 아닌 비-인간의 행위를 포함한다.
3. 객관성으로 결정되지 않는 포괄적 세계까지 이해하는 통과과정을 거친다.(156)
4. 연결망 존재자들은 단순 지식의 조연이나 공범으로 오인되고 싶지 않은 것이며(156), 세계와 사물 그리고 나는 재생산 양식이라는 하나의 무대에 올려 같이 춤추는 배우들이다.
5. 재생산 양식[REP]이 연쇄 없는 지시체 양식[REF]으로 섞이거나 혹은 둔갑되어 자연의 물질이 이성으로 오도된 "물질"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관찰한다. 그래서 재생산 양식을 회복하는 일은 근대화modernize 대안으로서 생태화ecologize 가능성 타진하는 첫 번째 과제이다.
6. 반복해서 말하거니와 재생산 양식이 가장 소중하게 구체화되어야 하는 주제는 바로 생태화ecologize이다.

존재자의 생존 : 물질의 탈관념화

1. 근대인이 보는 물질은 지식의 요건과 생존의 요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뒤섞는 융합의 합성composite 장치로 태어난 것이다.(164)

2. 그런 물질관의 관습에 빠진 근대인은 자신을 자랑스런 유물론자라고 믿고 있다. 근대인 혹은 근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서 물질은 정신의 가장 관념적인 산물이다. 근대인은 바로 그런 믿음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된다.(164)
3. 이런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물질을 탈관념화de-idealize 해야 한다는 것이 라투르의 기본입장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살아갈 공간 living space를 재정복할 수 있다고 라투르는 말한다.(164)
4. 존재자의 생존subsistence은 관념적 실체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하여 초(월)세계의 실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며 초월성이 아니라 경험적 공백을 뛰어넘는 창의성으로부터 겨우 존재의 생존이 가능하다.(159)

근대인 살고 있다는 3+1 차원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1. 라투르가 말하는 3+1차원은 관념과 개념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를 말한다.(161) 구체적 경험과 동떨어진 근대인의 개념 세계를 뜻한다.
2. 근대인은 거꾸로 현실의 법, 도덕, 이야기, 정치, 경제, 종교 등 현실적인 존재양식들이 4차원의 이성 범주 안으로 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지를 도리어 걱정하고 있다. 인류학자는 이런 근대인의 걱정 자체가 바로 범주오류임을 지적한다.(162)
3. 근대인은 지구를 정복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도 살 곳을 찾지 못한 채 정착지를 찾아 헤매고 있다.(162)
4. “나는 자연인이다” 티비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자연인”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근대인의 상실된 유토피아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근대인이다. 근대인이 부러

워하는 토착민, 혹은 원주민 혹은 “타자들”로 되돌아가고 싶어 한다. 4차원 근대를 뿔내면서 3차원 비근대를 멸시하던 근대인이 왜 거꾸로 3차원의 자연인을 공경하는 것인지, 이것이 근대인의 아이러니이다. 그러나 여기에 공포가 숨어있다고 라투르는 말한다.(163)

5. 근대인은 애초에 집을 떠난 적이 없었고 4차원의 세계에 살았던 적도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근대인이 만약 원주민의 집을 회복하려는 순간 새로운 야만성이 창조된다는 것이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라투르의 역설이다. 실제로는 근대인이 4차원 이성의 세계에 살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는 라투르 전작의 주요 주제임을 잘 알고 있다.)

형식form의 종과 횡

1. 인류학 현장연구나 고고학을 사례로 말하자면 발굴현장에서 채취한 표본을 탈지면에 조심스럽게 두른 다음에 설합에 넣는 일이 바로 형식화하는 것이다.(167)
2. 형식은 다양한 변형을 통해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는 형식의 변형을 통해 세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형식은 접근제공사access providers이다.
3. 여기서 말하는 ‘형식’과 6장에서 말하는 ‘형식’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4. 횡적 형식을 통해서 장치를 다른 관찰대상(지시체)으로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다.
5. 종적 형식을 통해서 변형을 거치게 되고 결국 장치의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즉 자료(관찰데이터; 여기서는 지시체)의 불변성(정확성)을

관찰자에게 가져올(이동) 수 있다.(168)

6. 형식의 확장에서 라투르는 지식에 끝이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자면, 구글 맵 위에 손가락으로 주~욱 드래그하여 시베리아 구석 동네까지 훑히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손가락 끝에 지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형식의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168)
7. 그러나 형식의 결과가 확정되고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접근된 것은 지시체의 단면일 뿐 전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169-170)

재생산 존재자를 정리하다

1. 고양이나 효모 같은 자연의 개체들은 힘의 선이나 계보들을 타고 가면서 도약, 공백 혹은 불연속성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게 통과된 존재를 재생산의 존재라고 말했다. 재생산 존재양식은 타자성을 요구한다. 타자성은 존재자의 불연속을 뛰어넘게 해주는 일종의 경험의 지지대이기 때문이다. 타자의 지지대 없이 존재를 동일성으로 포장하려면 어쩔 수 없이 관념의 실체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실체 도입이 근대인 사유의 뿌리다.(171)
2. 라투르는 “재생산의 존재”라는 말을 통해 과학 자체가 세계의 또 다른 존재 방식이라고 했다. 따라서 과학 네트워크는 세계가 과학과 과학적 실천(과학탐구행위)에 의해 재생산되고 변형되는 장비와 수학적식을 통해 지시체 사슬chains of reference을 매체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재생산 존재양식은 그 자체로는 물질적이지 않으며, 습관, 언어, 구조 등으로 구체화되는 힘의 선으로 구성되는 만큼 기존 형이상학이 강조하는 실체의 존재자와는 전혀 다르다.

3. 근대인은 재생산 존재와 지시체 존재를 혼동하고 있다. 근대인은 재생산 존재자를 지시 존재양식으로 역지로 바꿔 말하기 때문이다. 이런 혼동은 물질이 "이중 범주오류"double category mistake 로 인해 만들어진다.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관념화된 물질 범주를 경험적이고 연결망으로 실재하는 물질 범주로 오해하는 혼동이 바로 근대인의 가장 큰 오류를 낳았다고 라투르는 지적한다.
4. 지시물의 불변가동성the immutable mobiles of reference은 지식의 확장을 가져다주어 사물의 연결망으로 안내할 수 있지만 연결망에 접속하는 통과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생산 존재beings of reproduction와 다르다.
5. 여기서 통과란 논리적 절차와 대비되는 양식으로 삼단논법으로 이행되는 연속적 존재 모습 외에 도약과 불연속이 내재된 변형 과정이다. 통과는 연속적 이행이 불연속적 변형을 의미한다. 라투르 존재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식의 하나가 재생산 양식이다. 그리고 인간-비인간을 포함한 참여의 연결망을 품고 있는 것이 재생산 존재양식의 특징이다.
6. 재생산 존재양식은 가시적이고 단위로 존재하며 경계로 구획되어 일정 공간을 차지하는 데카르트 식의 물질의 존재양식이 아니다. 재생산 양식을 물질처럼 이해한다면 그것은 범주오류이며 적정성을 벗어난다. 재생산 양식은 관계와 과정 그리고 교차에서 생성되는데, 그 생성방식은 '힘의 선'lines of force에서 나온다.

힘의 선(lines de force)

1. 연결(association)하는 양식으로서 힘의 선은 단순히 사물 간의 상호작용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변화시키는 역동적 관

계다.

2. 이질성(heterogeneity)의 양식: 힘의 선은 인간, 사물, 기술, 이념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있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각 요소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힘의 선을 통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형될 수 있다.
3. 과정(process)의 양식으로서 힘의 선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어떤 요소가 네트워크에 추가되거나 제거되면, 전체적인 관계도 재구성된다.
4. 힘의 선은 에너지 흐름이나 힘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시한다. 힘의 선을 따라 가면 특정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5. 라투르는 “힘의 선”을 통해 과학, 기술, 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과학 기술 발전은 단순히 과학자들의 두뇌 활동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실험장비, 이론, 사회적 맥락 등 여러 요소가 얽혀있는 힘의 선을 통해 이해된다는 뜻이다.
6. 물리학에서 힘의 선은 그 자체로 활성화 존재자는 아니지만 그런 힘을 통해서 비로소 모든 존재가 생성되는 보이지 않는 궤적이다. 존재가 그 궤적을 타는 방식은 반복repetition과 양quantity의 성질을 갖는다. 물리학에서 힘은 이런 반복과 자기증식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반복과 양의 관성의 결과가 힘이다. 그 힘은 시간경로에 따른다.
7. 재생산의 존재자 [REP] 를 인식하는 길은 “힘의 선” 말고 “계보”도 있다.

계보

1. 힘의 선들이 반복과 양의 방식으로 드러난 것을 물질세계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물질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기보다 역사적 경로 안에서 연결망을 형성한다. 그런 존재양식은 계보를 따르면서 재생산에 참여한다.(158-9) 특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상이나 사물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계보다. 계보는 힘의 선으로 짜여진 지도(map)와 같다. 특정한 사상이나 사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는 뜻이다.
2. 힘의 선은 계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힘의 선이 등장하거나 기존 힘의 선이 변화하면, 계보도 함께 변화한다.
3. 계보 lineages도 마찬가지로 힘의 선의 궤적이다. 4장에서는 계보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3부에 다시 나올 것이니 그때 다시 적절한 설명을 시도하기로 한다.

라투르가 지적하는 근대인의 오류 3 가지

1. 물질에 대한 근대인의 오해: 데카르트에서 물질은 연장 실체로 되면서, 물질이라는 관념이 등장했다. 물질 실체의 등장은 범주오류이지만 말이다. 근대인은 이제 물질 사유를 통해 실제 사물을 기술한다고 믿게 되었다. 실제로는 사유의 실체가 물질을 상상한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인은 그 물질을 실체(substance이면서 동시에 reality)로 믿었다는 점이다.(171) 물질은 사유 실체가 아니지만 연장 실체도 아니다.(175)
2. 일차성질과 이차성질의 이분화bifurcation: 일차성질은 원본의 성질을 객관화한 것이고, 이차성질은 주관적 성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구분으

로부터 자연은 이분화된다.bifurcation 이는 화이트헤드 철학의 기초이다. 실재한다고 믿는 일차성질과 실재하지 않고 단지 감각작용의 현상이라고 믿는 이차성질의 이분화는 근대철학의 기형이다. 이런 이분화로 인해 앞서 말한 (변형을 허용하지 않는) 단순 이동, 논리적 인과론, 무경험의 관념 등의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라투르는 비판적으로 말한다.(178)

3. 교차 없는 단순 운반(전송): 고립된 지시체 안에서 세계와 지식 사이의 대응을 기반으로 한 지식이 근대인의 지식관이다. 이런 대응론 지식은 번역translation의 양식 없이 단지 단순 전송displacement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교차 없는 단순 운반에 지나지 않는다.(172)

연결망 이해가 과학의 실질적 성과를 높인다.

1. 현실 과학자의 태도와 과학적 발견의 성공도는 이런 연결망을 이해하는 과학자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고립된 지시체, 단절된 물질로 세계를 인식하는 과학자는 실제로 연구 일선에서 혹은 실험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어렵다.
2. 과학의 탐구대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대응론적 지식(라투르는 이런 지식을 좀비같은 사물과 대응되었다고 믿는 지식이라고 표현한다)으로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과학 연결망의 이동(변형을 통한 이동, 모바일)은 손목의 맥이 뛰는 것만큼이나 경험적이라고 라투르는 강조한다. 그래서 이런 경험적인 것을 무시하고 순진한 기계론적 대응론에 속아 넘어가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180)
3. 과학사회학의 보내는 제안서와 같다. 현장과학의 현실적 태도를 강조한 라투르의 강점이다.

양식good sense에서 벗어나서 상식common sense으로

1. 굳센스(양식)는 근대성 중심으로 이뤄진 표면적이고 실증적인(단순하고 변형없는 방법론) 결과를 얻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이런 굳센스는 결국 세계의 존재자 접근에 실패한다.
2. 반면 상식으로 접근하는 화이트헤드 방식의 상식세계common-sense world는 도약, 불연속, 공백을 다 읽어내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존재자의 세계를 접근할 수 있다. 불행히도 근대인은 가상의 합리적 실체 속에 “잠겨서”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상식세계를 못보고 있다.(183)

근대인의 물질론과 합리주의

1. 근대인은 물질을 세계를 구성하는 한 조각으로 여긴다.
2. 근대인은 물질을 연장-사유 실체라고 보면서 자신을 주체로서, 지시체 존재를 객체로 믿기 시작한 이상한 배경도법scenography을 만들었다.
3. 이러한 이상한 배경도법이 바로 "합리주의 마법"이라고 라투르는 꼬집어 표현한다.(180-1)
4. 근대인의 묘사법을 합리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합리주의는 이차성질이 갖는 비실재적 묘사(마법으로 얻은 성취감의 효과가 아닌)를 보일 수 없다.(181)

근대인은 마법으로 얻은 성취감에 왜 그렇게 빠져 있을까?

1. 근대인이 근대인으로 되는 동기, 즉 근대인의 정체성에 빠져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필연성의 조건들(기학학으로 산술적 답이 보이는 필연

의 형식), 통로 없는 세계(형식과 질료를 이분화하거나 혹은 그 둘을 서로 혼동하는 증상), 연결망 없는 지시체들(이 세상 외부의 모든 노이즈를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실험실 유토피아의 신념), 변형 없는 전이로 구성된 세계를 접수하는 일은 그 이득이 엄청나기 때문에 근대인의 근대적 작용이 발생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181)

2. 그런데 이런 현실이 오늘의 전지구적 생태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점도 현실이며, 후자의 현실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위급한 현실이다.

물질 개념에 대한 라투르의 조언

1. 근대인은 물질이 실재real things를 기술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관념일 뿐이다. 근대인의 실재는 관념과 사유 작용이 물질을 상상해내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110)
2. 진짜 물질은 제도이며 조직이고 힘의 분배 등을 포괄한다.
3. 존재자와 물질을 혼동하면 안 된다. 합리성이라는 핑계로 존재자와 물질을 혼동하여 존재를 물질의 흥수에 빠트리고 있다.
4. 더 나아가 물질은 자신을 확장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물질은 존재의 공백이나 불연속성 그리고 번역 양식과 변신 양식을 무시한 채 인과론이라는 이성의 끈으로 모든 존재자에 침투하는 존재의 위협을 라투르는 직시하며 경고한다.(182)
5. 그런 합리적 실체(혹은 관념적 실재)가 현실 공간에 속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투르는 강조한다.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되찾아 와야 한다.

라투르의 존재양식 5장 해제

정치적 존재양식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1. 근대인이 말하는 유물론은 관념론의 하나다. 물질은 다른 존재자와 교차되어 융합된 결과일 뿐이다.
2. 근대인은 스스로를 주객의 이분화 혹은 1차 성질과 2차 성질이 이분화된 가상공간에 거주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3. 근대인도 실제로는 이분화 세계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라투르는 지적한다. 이는 라투르 저작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었다』에서부터 강하게 언급되었다.
4. 근대인 자신의 합리성을 보장받기 위해 근대인은 과학을 오용하고 있다.(196)
5. 근대인의 특징은 재생산양식[REP]와 지시양식[REF]를 융합시켰다는 데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융합이 아니라 혼동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190)

재생산 양식과 지시 양식의 혼동

1. 물질의 상징과 실체를 혼동하면 안 된다.(189)
2. 재생산양식[REP]과 지시체 양식[REF]의 융합은 결국 물질을 오해하게 된다. 즉 근대인의 몸은 이분화된 세계에서 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그런 이분화 속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이다.(190)
-자연의 이분화와 정신/신체의 이분화, 양쪽의 이분화를 혼동하고 있다.

번역과 전송

1. 번역translation/traduction: 공백의 은유와 비유, 어구 전환, 완곡 표현, 수사적 장식 등의 불연속적 전환(191)을 소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재생산 존재양식이 창조적으로 생성된다. 재생산 양식은 라투르가 비유한 “변형의 폭포”를 허용하는 번역을 통과해야 한다.(193).
2. 여기서 “변형의 폭포”에서 폭포cascade의 의미는 주된 존재자의 흐름이 강해서 주변의 다른 존재자들은 모조리 빨려들어가 깊은 바닥으로 내동겨쳐진다는 뜻에서 사용된 용어다. 폭포는 지시의 폭포처럼 근대인의 증폭효과도 있고 여기 변형의 폭포처럼 재생산 양식의 증폭효과도 있다.(147)

직선의 말하기

1. 직선의 말하기straight talk 는 한글판에서 직설적 말하기로 번역된 것인데, 해제본에서는 ‘직설’이라는 용어 대신에 은유의 상징성이 더 많아 보이는 “직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직설”과 “직선” 차이는 단순한 음조 차이일 뿐이다.
2. 언어의 기교나 수사적 장식 없이 이국주의나 도발적 발화 없이 단절과 공백도 일체 없이, 전환과 완곡한 표현도 부정하고 즉흥과 은유도 없이 문자 그대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다는 말하고 쓰는 방식이 “직선의 말하기”이다.
3. 논쟁의 여지없는 필연성의 전이이며 단순한 전송, 번역 없는 전송 혹은 변형을 경계하는 정보전달의 방식이 직선의 말하기다.
4. 단순전송displacement/translation이란 더블클릭[DC]을 통해 필연성에서 필연성으로 전이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인데, 더블클릭의 단순전

송으로는 재생산 양식에 접근할 수 없다.

5. 단순전송을 직선의 말하기straight talk (직선의 언어)를 통한 이동이라고 라투르는 표현한 것이다. 이는 스피노자가 거부한 기하학적 방식 more geometrico(라틴어 in a geometric manner/style: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처음 제시됨)의 글쓰기로 제한된다.(193) 다시 말해서 기하학적 방식을 채택한 근대인은 모든 존재양식의 품질을 다 놓치고 만다 (disqualification).(194) 근대인은 직선의 말하기의 강령에 묶여있다.

직선의 언어와 굴곡의 언어

1. 더블클릭 [DC] 정보와 직선의 말하기straight talk 옹호자들은 거꾸로 이동, 작동, 불연속성, 공백 등의 존재양식을 거꾸로 비난하고, 거기에 "불완전" 혹은 "평범함"이라는 라벨을 붙인다. 그래서 결국 시인이나 상인 사제나 현자들은 불완전한 존재자로 낙인찍힌다. 그들은 심지어 과학자들까지 비난한다. 스스로를 합리주의자로 자평하는 직선의 언어 옹호자들은 그렇게 불완전하다고 낙인찍는 상대방을 “굴곡의 언어” crooked talk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다닌다고 비난한다.(195)
2. 쉽게 말해서 직선의 말하기에 자만하는 근대인은 직선의 말하기 하지 않는 집단에 대하여 거짓말쟁이나 가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구부러진 말하기”의 당사자라고 비난한다는 뜻이다.
3. 물론 진짜 굴곡되고 비뚤어진 사람들은 근대인이지만 말이다.(198)
4. 이런 상황에서 경험 자체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다. 더블클릭은 형식화되지 않는 경험을 부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경험을 보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게 된다.(195)

직선의 언어와 굴곡 언어 사이의 교차,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근대인 주장1) 실제의 객체를 기하학적으로 그대로 묘사할 수 있으며 그런 언어화법을 형식화한 것이 근대의 최고 성취한 것이 바로 근대인이 옹호하는 직선의 언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자신들의 직선의 언어 사용을 존재론과 인식론을 혼동하지 않기 위한 통로로서, 그들은 자신의 직선의 어법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포장하고 합리화시키는 데, 이것이 더 큰 문제다.(209)

(근대인 주장2) 근대인이 비근대인을 비난하기 위해 그들은 비근대인에게 “굴곡” 언어라는 라벨을 붙여 부정적으로 간주한다. 비근대인이 활용하는 시, 상징, 수사법, 의미번역들, 모두 굴곡 언어라고 단정지으면서 근대인은 비근대인을 업신여기거나 비난한다.

(비근대인이 본 근대인; 라투르 입장1): 근대인은 객체 묘사에 필수적인 직선 언어의 성취를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언어 특히 정치양식의 언어는 직선의 언어를 빙자한 최고의 허위와 거짓의 양식이라고 말한다.

(라투르 입장2): 앞의 (근대인 주장2)처럼 근대인이 비근대를 비난하기 위해 활용하는 굴절 언어가 실제로는 근대인의 허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연습되어야 할 진정한 존재양식이다. 그래서 [더블클릭]의 유혹을 완전히 거부하기 위해 직선의 말하기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206) 직선의 말하기를 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억압과 근대인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도 괜찮다.

‘융합’ amalgam이라는 단어 번역

1. ‘amalgam’을 융합이라고 번역을 해서 독자들이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 아말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인데 융합이라고 번역

하면 마치 긍정적 연결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말감은 하나가 강제적으로 혹은 권력에 의해 다른 것을 포획해버리는 그런 비난 투의 의미를 포함한다.

2. 예를 들어 정치[POL]는 지식의 연결망(재생산 양식 [REF] 혹은 [KNOWLEDGE])을 녹여버려서 무시한다는 뜻이 아말감 용어의 속뜻이다. "융합"보다는 "용융"(시킨다)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체 흐름에 어울린다. 근대인의 [더블클릭]은 두 존재자를 대등하게 융합하는 것이 우세한 존재자가 다른 존재자(타자)를 용융시켜버린다는(녹여버린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
3. 또 다른 예를 들어 과학지식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근대의 모습을 라투르는 경고한다.(196) - "근대인은 공적 논쟁을 종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을 납치한 사람들이다"라고 라투르는 말한다.(196) 과학이 정치에 아말감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치적 말하기는 거짓과 조작의 기술이라는 말의 의미는?

1. 정치적 말하기는 합리적 실체 RES RATIOCINANS의 범주와 다르다. 근대인이 만들어 놓은 관념화된 물질에서 촉발된 실체로서 데카르트 실체 이상으로 확장된 합리적 실체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합리적 실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균중을 흥분시키고 마녀의 가마솥을 끓임없이 휘젓고 있다고 라투르는 말한다.(198)
2. 이성과 정치의 잘못된 만남을 통해 정치 행위가 자기합리화로 빠진 정치적 말하기를 의미한다.
3. 합리화된 정치적 말하기의 거짓, 조작 기술은 정치적 말하기를 직선의 말하기로 포장했기 때문에 생겼다.

4. 정치적 말하기의 오류는 말하기를 하는 사람의 욕망과 의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없는 필연성의 문제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이성을 갖고 말하는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5. 정치적 말하기의 현실은 긴급하고urgency 다중적이며multitudes 혼돈의 와류turmoil 속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라서 이상적이거나 이상화된 이데아 혹은 필연적 논리와 무관하다.
6. 정치적 말하기는 이상화된 이데아나 필연성의 논리보다는 경험과 열정의 감정을 통해 집단의 단결과 목표, 의지와 자율성 등 행동능력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7. 여기서 자율성autonomy이라는 말은 의지를 갖고 자유의 행동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의지를 갖고 복종도 하는 이중적 행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용된 것이다.(203)
8. 정치적 존재양식은 실제로 직선의 말하기나 지시 양식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갱신과 반복의 운동으로 드러난다.
9. 그런 운동성 안에는 고향과 배신, 일탈과 공포, 불복종과 탈퇴, 조작과 비상상태 등과 같은 수많은 불연속성이 있으며 그런 불연속성이 연속성의 곡선으로 외형화된다.
10. 한편 정치적 말하기는 존재의 단절과 공백을 뛰어넘어 흘러가듯 연속화한다. 연속성의 곡선으로 만들어진 정치는 이성 논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참과 거짓을 정의하는데, 자기생성의 아우토피우스autophous의 존재를 보여준다.

정치 존재양식의 자기생성의 특성을 접근하려면

1. 더블클릭의 기계적 합리성으로 정치적 말하기를 규율잡으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2. 직선의 말하기라는 명분으로 군중을 무질서한 동요 속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고라의 군중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구비진 말하기”curvature를 배워야 한다. 여기서 “구비진 말하기”라는 표현은 근대인이 비난 투로 말하는 “구부러진 말하기”crooked에 대조법으로 말한 것이다.
3. 정치 양식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중 혹은 아고라(광장)에 모인 대중이다. 여기서 직선의 말하기를 통해서 대중을 해산시켜 버린다면 정치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고 라투르는 의미심장하게 표현한다.

정치에서 더블클릭을 벗어나려면

1. 직선의 말하기 관념을 먼저 삭제해야 한다.
2. 이성과 수사학 사이의 대립을 중용으로 재창조하는 번역과 통과를 거쳐야 한다.

“직선의 말하기”에서 “잘 말하기”로

1. 진지하게 권위적 어조를 띄며, 진리조건을 모방하지만 결국 지루함의 언어이다. 진리조건을 모방한다고 하지만 진리의 적정성을 분별하지 못한다.
2. 스스로를 대변하는 사실일 뿐이다. 즉 자기를 말하는 화법에 갇혀서 타자를 허용하지 못한다. 타자를 단절시키고 자기동일성 속에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하기라는 점이다.

3. 직선의 말하기는 근대인의 언어로부터 배운 것이다.
4. 절대적 참의 언어를 강조하지만 우리의 진짜 유일한 언어인 “자연어”를 경멸한다.
5. 필연성에서 필연성으로 연결하는 엄격한 말하기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동일성의 언어는 현실에서 동어반복 아니면 거짓의 말하기로 되는 것과 같다.
6. 말하기의 진짜 엄격함이란 그런 동일성의 말하기가 아니라 올바른 음조, 즉 컨텍스트를 잘 맞춘 음조로 말하기이다. 잘 말하기란 자기 독백이 아니라 아고라 광장에 모인 타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귀기울이는 말하기이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잘 말하기의 핵심이다.

절합을 다시 해명하다

1. 절합을 통해서 존재자들의 이음매junctures가 작동된다.(219)
2. 절합은 여러 다양한 존재자들을 이어주는 마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디가 돌아갈 수 있는 공백을 포함해야 한다. 겉보기에 공백은 불필요한 요소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음매 역할에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그런 공백이 방향과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존재양식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다시 해명하다

1. 존재양식이라는 용어는 앞 장에서 자주 언급한 예술철학자 에티엔 수리오에 의해 도입된 말이다.
2. 존재양식이란 기호와 사물의 이분법을 넘어서 있다. 그리고 인식론과

존재론을 합친 상태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그런 존재양식은 오로지 “경험”을 통해 접근될 수 있다.

이성과 정치의 잘못된 만남(융합)을 해체하기 위해 존재양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 3 가지

1. 전치사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다. 자신이 취하는 존재양식이 범주오류인지를 관찰하고 확인하면서 존재자의 음조(뉴앙스)를 무시하지 않고 전치사 양식이 제대로 맞는지를 재검토한다.
2. 궤적과 통과를 추적하는 불연속성 및 공백을 통해 인식되는지 확인한다. 자신의 존재가 연속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연속성과 공백과 고유궤적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인지는 아닌지 다시 조사해본다.
3. 존재양식의 적정성 및 비적정성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존재가 참과 거짓이라는 기준이 확실적인 근대인의 기준이 아니지를 되물어보는 적정성/비적정성felicity/infelicity conditions 상태에 맞는지의 여부를 파악한다.(200)

정치 양식에서 원circle이란, 정치적 말하기

1. 논쟁의 여지없는 필연성의 언어인 직선의 말하기로는 정치적 의도를 표현할 수 없다.(201)
2. 직선의 말하기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구부러진 말하기로 변신되는 것이 정치적 말하기의 숨겨진 모습이다.
3. 관념의 이데아로 접근하는 지시의 연쇄 통로는 정치적 말하기의 과제인 긴급성, 다중성, 혼란함의 복잡다난한 문제를 풀지 못한다.(202)

4. 멀리 떨어져 있는 관념적 존재로서 정치를 하려는 이상주의는 참과 거짓이라는 논리적 기준으로 틀리거나 거짓은 아니지만 적정성과 비적정성의 기준에서 적정한 접근법으로 볼 수 없다.
5. 정치는 운동 중에 있으며 그래서 정치적 말하기는 공백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202)
6. 근대인이 보기에 갱신과 반복의 정치적 말하기는 구부러진 양식으로서 거짓의 진위판단으로 귀착되지만, 인류학자가 보기에 갱신과 반복을 통해 공백이 재생산되는 적정성으로 판단된다.(203)
7. 구부러진crooked 말하기가 내부적으로 반복되는 성질인데, 라투르는 이런 성질을 자기순환성autonomy이라고 이름 붙였다. (번역서에는 "자율성"이라고 했는데 그 어조에서 긍정 의미를 보이는 자율성 대신에 부정 의미를 담은 자기순환성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치적 말하기는 자유와 복종이 하나의 집단 안에서 자기순환autonomy되는 "감싸는 운동"movement of environment을 되풀이하는 원의 존재양식을 보여준다는 뜻이다.
8. 감싸는 운동과 자기순환성이라는 점에서 정치양식을 "원"circle의 존재양식이라고 라투르는 표현했다.(203) 다시 말해서 자유와 복종의 행동이 반복으로reprise 갱신되는 감싸기 운동이 정치의 존재양식이며 이 양식을 설명하는 데 "원"circle 개념이 도입된다.(203)
9. 다르게 표현한다면 정치 양식은 항상 자신의 언어로 상대에 대하여 참과 거짓을 판정해버린다는 점에서 자기 회귀적인 원의 양식이다.(204)
10. 물론 정치적 말하기가 없으면 집단도 없다. 정치는 집단을 통해서 구현된다.(204) 정치적 말하기가 위선의 집단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 자체를 근대인은 원하지 않는다.(205) 이 점은 라투르 정치철학에서

아주 중요하다.

11. [정치적 말하기]와 [더블클릭]이 만나면 더 나쁜 괴물이 만들어진다.(205) 더더욱 정치양식 자신의 원 안에서 투명성과 진실을 추구한다는 위선된 명분을 겉으로 내세우지만(205) 실제로는 정치현장의 고통과 조롱, 모략과 아부, 배신과 이탈, 허세와 조작, 거짓과 위선들을 더 키운다는 뜻이다.(204)
12. 직선의 말하기나 지시[REF]가 원의 존재양식을 판단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데, 다시 말해서 고통과 배신, 일탈과 공포, 불복종과 탈퇴, 조작과 비상상황 유도 등과 같은 불연속성과 공백이라는 운동의 반복인 원의 존재양식을 해명하지 못한다.
13. 정치적 말하기는 “스스로를 대변하는 사실”facts that speak for themselves로 표현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의 존재양식이다.(*144)
14. 정치적 말하기는 자기순환의 원 운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존재양식은 아우토피우스autophous라는 자기생성self-engendering의 힘을 갖고 있다.
15. 그렇다고 정치적 말하기가 참과 거짓에 무관심하고 무관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204) 이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근대인이 표현한 그대로 정치적 표현이 구부러진 말하기라는 뜻을 받아들이면서도, 정치의 구부러진 말하기가 정치의 객관적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라투르는 강조한다.(206) 정치적 존재양식의 비이성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6. 정치 양식의 ‘원’(그들만의 권력 서클)에 대하여 12장 해제에서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설명된다.

분석과 “잘 말하기”

1. 분석철학의 "분석"은 방법론적으로 옳았다. 그러나 계몽이라는 간판을 달고 "분석"이 존재를 지배해버린 더블클릭의 믿음으로 실제의 존재양식은 사라졌다.(207) 더블클릭은 정보가 공백이나 불연속성, 번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기 때문이다.(208)
2. 분석언어로는 "잘 말하기" speak well를 할 수 없다.
3. 근대인은 분석언어를 통하여 번역과 맥락에서 독립적으로 참이 되는 언어를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언어의 엄격성with rigor 을 추구함으로써 필연성에서 필연성으로 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진전을 하지 못하는 자연어는 적합하지 않은 비합리성의 존재라고 그들은 주장한다.(*139)
4. 실제로는 그런 엄격성이 오히려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라투르의 역공격이다. 분석언어가 아니라 적절한 음조(tonality; 뉴앙스)를 가지고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진짜 엄격성이고 그런 말하기가 진짜 "잘 말하기"라고 라투르는 역설적으로 말한다.(*139)
5. 변형과 이동, 은유와 변신이 가득한 자연어를 무시함으로써 필연성을 필연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합리주의에 빠지고 있다.

존재론적 다원주의 그리고 존재양식들

1. 기존 근대인은 사물을 합리적 실체에 기반한 외부세계로 정의했다.
2. 근대인은 물질이라는 관념을 "논쟁의 여지없는" 필연성의 실체로 잘못 생각했다.
3. 진위 여부를 더블클릭이라는 직선의 언어로 표현하는 존재의 획일주의

에서 벗어나야 한다. 존재양식은 다양하다.

4. 다양한 음조를 통해서 다양한 존재양식은 그 각각 고유한 진리판단의 원리(principle of veridiction)를 가지고 있다.(*143)
5. 존재양식의 특징으로서 (1) 비분절의 세계와 분절의 언어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으며, (2) 기호와 사물 사이의 구별이 없으며, (3) 관계의 끈이 가까우면 마치 실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4) 반대로 그 관계가 너무 멀면 비실재로 여겨진다.too remote it is not the real thing. (*145)는 점이 있다.

근대인의 환상에서 벗어나 '잘 말하기' 연습하기

1. 오캄의 면도날은 하나가 아니라 다원적 세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2. 직선의 말하기 그리고 원의 존재양식의 속뜻을 이해해야 한다.
3. 진리판단은 유일하지 않고 단일하지도 않음을 깨닫는다.
4. 말과 세계, 지식과 세계, 인식대상과 인식주체를 더 이상 구별하지 않는다.
5. 물질의 단일실체론에서 벗어나고 분절된 언어에서 벗어난다.(*149)

라투르의 존재양식 6장 해제

타자로서의 존재



6장의 질문과 시도된 대답들

1. 객관적 설명인가 아니면 도구적 해석인가? 혹은 실재론자인가 아니면 상대주의자인가?
2. 구성은 무엇인가? 구성주의의 다양한 뉴앙스가 있어서 오해받기 쉽다. 일반적 비난의 하나로서 구성된 것은 가짜 관념일 수 있다는 비판이다.
3. 형식주의가 낳은 개념적 이론이 구체적 경험계 실천을 지배해버린 근대성이 이제는 실천의 존재양식을 거꾸로 비합리적인 것으로 낙인찍고 있다. 이론과 실천을 갈라놓은 이분화의 근대성은 어떻게 [이상 파괴]의 존재양식으로 진전했는가?

“논쟁의 여지없는 사실”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나는 탈구축의 구성

1. 확실한 지식, 객관주의, 직설적 말하기straight talk, 이런 것들이 객관적 실재인가 아니면 도구의 해석 혹은 구성된 결과인가라는 질문에서 (232) 근대인은 객관적 실재라고 답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잘 모르는 구성된 결과였다고 라투르는 답한다.
2. 라투르가 말하는 구성construction은 자연과 무관하게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며 자연의 존재물을 독립적으로 인정하는 실재론도 아니다. 구성이라고 해서 실재하는 세계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과학에서 구성이란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관찰 장비가 달라지면 구성결과물도 달라지거나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3. 구성 결과물은 유일하지 않으며 외부조건과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라투르는 데리다의 탈구축de-construction 개념을 받아와서 구성은 항상 재구성 혹은 재구축이라고 말한다.

근대인이 사랑하는 비판 양식 - 구성construction과 비판critique

1. 라투르는 구성과 비판에 대하여 말하는데 구성 양식은 비판 양식과 다르다고 한다.(234) 비판 양식은 근대인이 만든 주요한 방법론적 도구이다. 비판을 이해해야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라투르가 말하는 비판의 의미를 검토한다.
2. 철학이나 정치 종교나 법 등의 존재양식에서 사용되는 제도화된 개념이나 장치들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내부에 안고 있었던 의심스러운 조작, 진부한 은유, 결함 있는 번역, 잘못된 투사 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여 그렇게 제도화되기까지 의미의 변형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비판이다.
3. 근대인 존재양식의 하나인 그러나 비판 양식은 나의 관점에서 본 행위이다. 나의 관점에서 이뤄진 비판은 상대의 변형과 공백 그리고 불연속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234) 즉 나의 비판양식에 의해서 너의 불연속은 비난을 받거나 사라지게 된다. 결국 나의 진리관에 의해 다른 모든 진리관이 배제되는 진리의 획일성 위협이 비판 양식 안에 도사려 있다.
4. 라투르에서 비판은 주어진 특정 단일 영역 안의 개념을 해체하는 데 유효하지만 다른 양식, 다른 범주의 개념들에 적용되기 어렵다. 데리다에서 구성은 해체가 아니라 탈구축de-construction이기 때문에 구성을 위한 비판 양식의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다.

근본주의fundamentalism 에게 들려주는 목소리 - 구성 행위를 알려주기

1. 근본주의란 다음처럼 정의된다. 외부의 해석이나 변형 혹은 번역 나아가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근대인이 계몽했던 타자들을 분열된 타

자로 간주하며 타자의 다양성을 관광상품으로 향유하면서도 타자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경향을 근본주의라고 한다.(236) 라투르는 이런 근본주의자들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를 낸다.

2. 그 목소리는 구성 행위에 대한 것이다.

- ① 첫째, 행위의 이중성doubled action이다. 행위를 하는 사람은 혼자서 행위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동반한다. 이런 점에서 행위는 원래 행위 이중성이다. 고립된 행위는 없다.
- ② 둘째, 행위 방향의 불확실성 uncertainty of the direction of the action이다. 무엇인가를 구성하는 행위는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방향이 고정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다.(어디로 튈지 모른다)
- ③ 셋째, 구성하면서 구성자는 가치판단을 하면서 구성의 품질을 고민한다.(237-9)

3.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했다는 근대인의 실재론도 알고 보니 구성주의의 산물이었다. 외부세계로서 실재하는지 아니면 신의 도움을 받아 창조된 개인의 사적인 관념인지에 대한 질문 속에서 앞서 말한 구성 행위 3가지 문제는 사라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세계가 실재한다면 구성물 가설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고, 세계가 신의 창조물이라면 인간의 구성은 처음부터 언어도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대인도 구성주의에서 벗어날 없다는 사실을 6장에서 충분히 보여줄 것이다.

4. 근대인이 만든 인공물은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기하학적 상상력의 작품인데 근대인 모두가 이를 찬양하느라 정신없었고, 이를 찬양하지 않는 부류에 대하여 비합리적이라고 낙인찍었다.

창설instauraton에 대하여

1. 창설instauraton에 대하여: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창조품이 아니라 창설품이다.
2. 창설은 프랑스 예술철학자 수리오 Etienne Souriau(1892-1979)의 개념을 라투르가 차용한 것으로서, 창조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구축하는 내재적 힘이라고 보았다. 특히 예술적 존재는 정형화된 것 아니라 존재와 예술가가 만나면서 변신가능한 존재로 된다. 그런 존재를 묘사하는 것이 예술이며 그런 점에서 예술 행위를 창조라는 말 대신에 창설이라고 했다.
3. 번역자는 이를 창설로 번역했는데 영어의 instauraton 번역 이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4. 예술가는 작품을 만들 때 단순 창조만의 작업이 아니라 존재와 대화하고 변형하는 창설에 몰입한다. 대화하고 변형하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 과정을 예측할 수 없는 작업이다. 라투르는 이런 과정을 스프링크스의 수수께끼에 비교하면서, "알아맞혀라.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을 것이다" 로 표현했다.(242)
5. 라투르는 수리오의 창설의 존재양식을 그대로 받아온다. 그래서 라투르의 구성은 없는 것에서 아무거나 만드는 관념행위가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 이미 타자와의 관계흔적이 있는 것들 가운데 새로운 것을 찾아 구축하는 그 무엇이다. 라투르는 이 점을 크게 강조한다.
6. 예술작품의 사례를 다시 들어보자. 조소 예술품은 첫째, 대리석 돌덩이 리가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둘째, 작가의 창의적 능력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셋째, 이런 정도 즉 첫째와 둘째의 존재양식으로는 기껏해야 정원용 소형 석고상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례

는 창설의 이해에 도움이 크게 된다.

7. 불확실성, 불연속성, 존재고민의 댓가를 치루면서 공백의 고개를 넘어 가는 과정, 즉 창설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작품이 탄생된다.(243)

존재로서의 존재에서 타자로서의 존재로 이행

1. 존재로서의 존재Being-As-Being는 자기 존재를 보증하는 실체에 기대며 초월의 관념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존재로서의 존재는 한 가지 존재 유형만 추론할 수 있다.
2. 한편 타자로서의 존재Being-As-Other는 창설을 요구하는 존재로서 불연속성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타자로서의 존재는 실체 대신에 생존 Subsistence에 의존한다. 관념적인 초월 내재성이 아니라 불연속과 공백을 통과하여 살아남는 그런 작은 초월의 내재성이다. 여기서 작은 초월이란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통과 과정이다. 이런 초월을 초월-하강trans-descendence이라고 한다.(245)
3. 이런 통과를 거치는 타자로서의 존재는 비로소 다른 유형의 타자 존재로 횡단할 수 있다.

우상파괴와 반물신숭배의 근대 지식 그리고 먼지구름 속에 사는 근대인

1. 지식이라는 종교religion of knowledge의 탄생은 근대인의 산물이다. 과학을 포함한 근대인의 지식은 우상숭배를 부정하는 우상파괴 그리고 물신숭배를 거부하는 반물신주의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fetishism) 민족지학으로 본 근대인에 대한 정의는 우상충돌iconoclasm 이라고 라

투르는 자기가 만든 용어로 해명한다.(249)

2. 그러나 근대인은 기존의 숭배를 파괴하면서 또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된다고 라투르는 지적한다. (253) 이런 숭배의 악순환을 라투르는 “이미지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이미지 전쟁은 모든 존재양식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252) 이미지 전쟁의 하나인 우상파괴의 악순환은 결국 우상파괴의 원천을 상실한 데서 온 결과다.
3. 이런 근대인의 원천 혼동은 과학에서만이 아니라 종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근대인의 단언은 불가피하고 필연적으로 우상 없는 또 하나의 다른 신을 창설하기 위한 매개로 연결된다.(251) 근대인도 역시 변이 없이 혹은 창설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전투 용어fighting word로 바뀌진 "합리적"이라는 단어는 타자의 파괴를 일삼는 도구로 전락된다. 이교도들 넓게 말해서 타인, 타자 일반을 미몽에서 일깨워야 한다는 계몽주의 의무감을 근대인은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의무감이 파괴적인 폐허를 가속화시켰다. 그 파괴의 현장에는 먼지구름만이 뭉개져 있다.
5. 근대인은 항상 먼지구름 속에 산다. 역사 내내 반복되어 온 근대인의 우상파괴의 망치질은 파괴를 가소한다. 그리고 파괴 이후에 새로운 이미지를 건설한다. 그런 이미지는 새로운 우상을 건설한다는 뜻이다. 물론 근대인은 이런 건설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기하학적 이성의 승리 탐으로 우기고 있음을 라투르는 지적한다.
6. 이미지들은 다시 파괴되고 또 새로운 이미지를 건설하고 파괴하는 파괴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남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은 결국 폐허의 먼지이다. 라투르가 말한 먼지구름은 그런 먼지들의 수사법이다. 근대인

은 그런 먼지구름 속에 사는데 익숙해져야 한다고 라투르는 말한다.(253)

구성에서 창설로

1. 타인을 구별하는 쉽볼렛(이국인을 구별하기 위한 단어발음 테스트 기준)을 통해서 합리적 인간과 비합리적 인간을 나누는 것이 근대인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근대인의 편향은 구성주의의 폐해이다. 남의 작은 티를 잘 보고 비난하면서도 자기의 큰 흠의 대들보를 못 보는 것이 구성주의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성은 창설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257)
2. 라투르는 보통 구성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섬세한 면에서 라투르 자신은 구성주의가 아니며 탈구축주의도 아니라 창설주의자라고 한다. 나는 이를 창설적 구성주의로 표현한다.

믿음에 대한 믿음belief in belief

1. “믿음들”의 반대는 진리이지만 “믿음”의 반대는 전치사들의 명시적 규정(the explicit determination of prepositions)이다.(*172) 여기서 단수의 믿음은 특정 믿음체계를 말하며 그런 특정 믿음체계는 절대주의를 지향하므로 타자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2. 반면 "명시적 전치사의 규정"은 방향이 붙은 사물(벡터)처럼 상대주의적 존재양식이므로, 단순 믿음은 전치사들의 명시적 규정과 반대가 된다.

근대인이 만든 객체 박물관이 있다면 그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것들

1. 자연주의와 합리주의
2. 이분화bifurcation
3. 발없는 악마 : 그들이(근대인이) 분개하며 "악마를 쫓아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의 발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When they speak indignantly about "chasing out the demons," we would do well to look at their feet! 악마를 퇴치하는 근대인이 떠 다른 악마인지를 확인하라는 뜻이다.(261) 당시 종교회화에서 그려진 악마는 발이 없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했다.
4. 폐허와 먼지구름, 정원에 있는 작은 조각소품들, 오감 면도날에 베어버린 물질들이 근대인 박물관을 채우고 있을 것이다.

확실한 지식이 있다는 환상

1. 형식주의가 경험세계를 지배함으로써 지식의 확실성이 보장된다는 환상이다.
2. 상식의 자명성에 위배된다.
3. 지식의 확실성은 신으로부터 보증된다는 열정을 동반한다.

근대의 땅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1. 근대인의 오만: 맹인(근대인)이 겁 없이 큰 길로 뛰쳐나가는 것은 일종의 오만이다.
2. 포스트모더니즘: 나가지 않고 머물거나 뒤로 움칠거리기가 포스트모더니즘이지만, 결국 낙심에 빠지게 된다.

3. 이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근대주의의 현실이다. 이런 근대주의를 끝내기 위해 우리는 근대인의 땅에서 가이아의 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263)
4. 거주지 이전을 위해 라투르가 제안하는 수단이 앞서 말한 창설적 구성주의다.(264)
5. 이 책에서 가이어 용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 책 발간 2012년 이후 가이어 논의는 생태정치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다.

근대인의 비판적 자비심이 만든 존재자들

1. 허구 존재자fictional beings, 신gods, 우상idols, 정념passions, 상상 imagings들이 바로 근대인의 비판적 자비심(기독교 자비심 말고)이 만든 실재적인 것real things이어야 한다고 했다.(*176)
2. 어떤 것은 받아들여야 할 긍정적 신념convictions으로 표상되고, 또 어떤 것은 피해야 할 부정적 환상phantasms으로 표상되는 것의 차이일 뿐이며, 이런 존재양식들은 모두 신화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possible return of the irrational and of archaism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을 굳게 막아내려는 자기극복의 실재라고 근대인은 이해하고 있다.(*176)
3. (being / existence 번역: being은 존재 혹은 존재자로, existence는 존재양식으로 번역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4. 여기서 정념이란 데카르트의 정념을 겨냥한 용어로 추측된다. 데카르트의 정념은 타자에 의해 작동되면서도 자기 주체가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라는 믿음의 하나이다. 데카르트는 이런 정념을 기계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념 발생의 원인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정

념론 1649) 라투르는 정념이 객관적 분석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데 카르트의 생각을 반대하는 것 같다.

근대인이 본 유물론, 물질을 실재화하기 - 양분 넣어주기

1. 근대인은 물질에서 활력을 제거했다.
2. 지식의 양식과 재생산의 양식을 혼동하여 물질을 오해하고 있다고 라투르는 지적한다. 근대인의 선형적 오해는 재생산 양식을 지식의 양식으로 잘못 용융amalgam시킨 결과이다. 그런 잘못된 오해로 수용된 물질을 라투르는 “환상으로 표상된 것에 다시 환상이 덧대어 붙여진 것”이라고 했다.
3. 유물론이 약간 모호하거나 거친 면이 있는 것subtle or crude은 거의 문제가 되질 못했다. 근대인이 말하는 유물론의 물질은 험벗고 차가워서 존재론적 실재성이 미흡하다고 라투르는 확인한다. 진정한 유물론자가 되기 위하여 물질을 살찌우고 통통하게 해주는 존재론적 실재성의 양분을 물질에 넣어줘야 한다고 라투르는 강조한다.(*177)
4. 이렇게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유물론을 포기할 필요 없다고 평가된다. 라투르는 6장 말미에서 이렇게 말한다. “유물론은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볼만한 미래다.” Materialism is still a thought of the future.(*177)
5. 이래서 라투르가 아직도 신유물론자로 분류되는 것 같다.

지시연쇄와 재생산 양식을 혼동하지 않기

1. 지식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해야 하는 지시의 연쇄이다. 지시체는 독립

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지시체reference 사이의 연결이 더 중요하다. 지시체 연쇄는 지시체가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받느냐 하는 관계 부여를 말한다. 관계는 지시체 사이의 사슬로 비로소 탄생된다.

2. 한편 사물들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도약의 재생산 양식이다.
3. 이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시의 연쇄 존재양식과 사물(세계)의 생존에 필요한 도약의 재생산 존재양식, 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265)

두 가지 경험을 되찾아오기 - 근대인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1. 경험론(경험주의) 철학에서 일차성질(계량화 성질)과 이차성질(계량불가능한 감각적 성질)을 이분법으로 구획한 후 이차성질을 배제함으로써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다 놓치고 마는 생존 위기에서 탈피해야 한다.
2. 존재의 전치사 양식이 세계 내부에 있음을 파악한 후, 존재자로서의 존재에서 타자로서의 존재로 전환함으로써 경험의 내재성을 되찾아오는 일이 중요하다.(267-8)

라투르의 존재양식 7장 해제

공백의 심리학



전체 문맥

1. 만약 비가시적 존재양식을 부정한다면 가시적 세계 같은 것도 없다.
2. 주체 자율성이란 내부 자체의 존재론적 귀결이 아니라 외부와의 연동과 섭동에서 온 것이다 존재를 이해하기 위하여 혹은 존재를 알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존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존재 내부와 존재 외부라는 경계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경계의 관념에 갇혀서도 안 된다.
3. 창설instauration은 치료적 장치의 역량을 보여주지만 치료 장치만이 아니라 우주론적 존재론을 함의한다.
4. 왜 경험인가- 근대인이 만든 실재론 혹은 객관주의에 갇혀있지 말고 라투르가 생각하는 진짜 실재의 의미를 변신의 존재양식과 재생산의 존재양식을 통해서 되살릴 수 있다.
5. 7장과 8장의 질문: 비합리성과 기술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근대인의 개혁 전선 혹은 전쟁 전선의 탐구방법(질문지questionnaire)을 비가시적 존재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가시적 물질적 존재에 적용하는 것이 8장이다.
6. 7장은 주객 이원화에 빠진 근대인들이 자기의 주체, 주관, 자아, 에고를 어떻게 고집하고 있는지를 관찰한다.

타자로서의 존재양식

1. 존재 유형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연속성을 잘 관찰하면 비로소 그 불연속성과 공백이 드러난다.
2. 모든 각각의 존재양식은 항상 타자로서의 존재being-as-other의 한 버전이다. 불연속성과 연속성, 차이와 반복, 타자성과 동일성은 하나의

존재양식 안으로 합생한다. (274)

제도와 탈제도institution and destitution 혹은 관습과 박탈

1. 미신이나 판타지로 여겨지는 비가시적 집합체collectives를 방지하려고 근대인은 합리성 무기를 들고 전선에 나섰다.
2. 근대인이 보기에 전자를 관습이라고 보고 후자를 박탈이라고 본다면, 근대인은 관습의 전근대 제도를 말도 안 되는 괴물로 여긴다. 근대는 그런 괴물과 싸워서 미신의 마법과 돌팔이들의 권력을 종식시켰다고 자부한다.(275)
3. 양쪽에서 이해하는 존재양식은 전혀 다르다. 근대인은 비합리성의 존재 양식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그런 비가시적 존재양식을 또 다른 문화의 고유성임을 깨닫지 못한다.(276)
4. 근대인은 가시적 물질성이 아닌 비가시적 물질을 '허상'과 '환영'이라고 폄하하면서 그런 비가시성을 전적으로 회의한다.

근대인은 비합리 집합체에 대해 왜 그렇게 회의적인가?

1. 과학혁명 시기에서조차 교회 신도들과 선교사들은 (물신적인 모습으로 여겨지는) 마녀와 무당들을 화형에 처한 끔찍한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타고 남은 재가 아직도 식지 않았다고 라투르는 표현했다.
2. 중세 마녀전쟁의 상흔을 목격한 근대인 역시 마녀전쟁을 벌인 교회와 권력의 비합리적 행동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고 라투르는 말한다. 그 이후 근대인의 회의는 도를 지나쳐서 또 다른 비합리적 요소 모두를 제거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근대인의 문

제가 생겼다.(276)

인식론과 심리학

1. 외부성exteriority을 접근하는 인식론 그리고 내부성interiority을 접근하는 심리학으로 구분한 것이 근대인의 대표적인 태도이다.
2. 심리학은 비가시적 존재를 묘사하기 위해 정신 내면의 마음을 보는 것이고, 인식론은 가시적 존재를 묘사하기 위해 외부세계를 보는 것이라는 근대인의 이분법적 오류를 라투르는 지적한다.
3. 심리학의 내부성과 인식론의 외부성은 실제로 서로 연결되고 있지만, 이런 연결성을 놓친 채 외부 세계를 과장하는 인식론과 내부 세계를 과장하려는 심리학을 별개의 탐구방식으로 보는 근대인의 방법으로는 존재양식을 탐구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277)
4. 정신생성적 연결망 psychogenic : 이성적 외부를 지향하지만 비합리적 내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은 정신생성적 연결망의 한 가지 특징이다. 라투르는 이런 특징으로부터 내부와 외부가 연결된다는 아이디어를 강조한다.
5. 근대인의 탐구방식에서 비가시적 존재는 심리학으로 가시적 존재는 인식론으로 접근하려는 이분법적 태도를 통해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조차 잘못 되었다고 라투르는 말한다.
6. 물론 심리학을 비판하는 라투르에 대한 근대인의 우려와 반론도 크다.
① 비가시적 존재양식을 서술하는 정신의 내부성을 라투르가 거절한다면 내부성을 구성하는 영혼의 정념passion까지도 버려야 한단 말인가? 주관(성)을 버리는 것은 좋으나 심층 자아나 영혼도 함께 버려질 것이

라는 우려가 있다.

- ② 이에 대하여 라투르는 대답한다. 보편적 인간성의 자아, 혹은 예고가 버려지지 않으며, 근대인조차도 그런 자아(심리)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라투르는 말한다.(278)
- ③ 예를 들어 비합리성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근대인도 역시 불법 환각물질이나 향정신물질에 빠지고 점쟁이들의 리얼리티 티비 쇼를 낚 놓고 보고 있으며, 심리치로나 정신분석 관련 직업이 더더욱 왕성하며, 공포 영화나 환타지 영화 혹은 그런 컴퓨터 게임에 하루 종일 밤낮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백인들, 근대인이 자찬하는 건강한 유물론

- 1. Whites 대문자로서 '백인'은 근대인을 인류학적 문법으로 표현한 말이다. 근대인은 정신의 내부를 제거한 채 물질을 해명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그런 물질을 건강한 유물론이라고 한다. healthy materialism of the Moderns
- 2. 여기서 건강하다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근대인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찬하는” 유물론이라는 뜻이다.

심리와 지시

- 1. 지시는 객체 자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망 내부를 기반으로 비로소 외부성을 생성한다. 반대로 심리적 존재양식은 내재성 자체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객의 연결망 혹은 물질-정신 연결망 안에서 외부성을 기반으로 비로소 내부성이 생성된다. 즉 내부는 외부의 도움

으로, 외부는 내부의 도움으로 파악가능하다.

2. 판타지를 즐기는 근대인이 비합리주의자들을 거꾸로 비난만 하면서, 근대인 자신은 자아의 정신이 원래 주체로서 있었던 것이지 외부로부터 생성된 것이 아니라고 고집을 피운다.(280)
3. 내부성에 빠져있는 근대인에게 그런 내부 정신이란 외부와의 연관 속에서 심인적으로 생성된 정신생성이라고 지적해주면 근대인은 도리어 화를 낸다. 근대인 자신은 “자신에게는 그런 야만인의 관습”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격분한다.(280)
4. 한 발 더 나아가 근대인 자신은 점쟁이나 예언자 혹은 자칭 도사들의 잡탕 이야기로 제작된 티비 쇼에 빠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적을 쓰는 주술사나 물신주의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other tribes” or the “bumpkins” 그것들 혹은 시골뜨기라고 야유와 비난을 즐기는 이중성을 보인다. (#187)

프로이트를 비판하는 라투르

1. 프로이트가 한 말, "신이 존재하지 않듯이 악마도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 정신활동의 산물일 뿐이다" 라고 한 프로이트의 말은 일종의 범주 오류에 해당하는 착각이라고 라투르는 프로이트를 비판한다.(281)
2. 신이나 악마 등의 그런 추상 개념이 관념의 소산물이라고 보는 근대인의 태도에 대하여 라투르는 반대한다. 그런 관념은 자아의 단절된 주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는 것이다. 라투르는 신이나 악마 등의 존재를 단순한 심리적 현상으로 보는 것을 강하게 비난한다.
3. 추상적 개념을 인간 관념의 소산물이라고 보는 관념론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객체지향의 사유를 라투르는 거꾸로 그런 추상물을 만들어내는

주체(자아)에 빠진 주객분리의 이원론으로 간주한다.(281) 이런 라투르의 태도는 지나친 과장법을 활용하는 것 같다.

내부적 관념과 외부적 실재는 서로에게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1. 관념을 실재와 대비되는 용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관념과 외부적 실재가 이항적으로 대립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것이 라투르의 기본 태도이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근대인의 인식론과 심리학은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의 태도에서 이원론적이다. “인식론이 외부성의 탐구에서 신뢰할만한 안내자가 아니듯이, 심리학도 내부성의 탐구에서 신뢰할만한 안내자가 아닌 것 같다.”(282) 표현한다.
3. 근대인의 주체-객체 이분법 구분 때문에 인식론과 심리학의 이분법이 더 깊게 패이게 되었다고 한다.

근대인은 정신을 마치 내면적인 무엇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 내면의 정신을 심리학으로 분석하려고만 한다.

1. 심리학적 내부성 즉 심리학으로 본 정신을 근대인은 내부 혹은 내적 “구멍”이라고 착각한다. 근대인은 그런 구멍을 침수되지 않도록 하려고 물을 빼내는 큰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근대인은 그런 구멍의 지하도시, 물적 시설을 '정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하수도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하에 숨겨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면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한다.(282-3)
2. 합리주의 산물인 지시reference의 경로를 유지하는 데 드는 근대인의

노력과 비용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단지 내면과 외면, 내부성과 외부성, 주관과 객관, 물질과 비물질, 개인적인 것과 제도화된 것은 그렇게 단절된 이분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뿐이라고 한다.(283)

3. 근대인의 지하도시 공간을 유지하는 상당한 규칙과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지시의 경로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283) 여기서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은 근대인이 만든 이성의 산물을 다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의 산물이 깊은 내면의 경험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라투르의 중심태도다.
4. 지시의 경로(합리주의의 산물들)로 형성된 과학기술 발달을 이룬 근대인의 노력과 비용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지만 근대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만약 현대 휴대폰 장치를 모르는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휴대전화로 혼자 마구 떠드는 사람(근대인)을 보고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근대인조차도 혼자 독백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 줄 수 있다.(284)
5. 근대인조차도 외적 장비와 타인들 그리고 주변시설들과 기술적인 것이 서로 묶여진 하나의 연결망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근대인이 말하고 싶은 '자아'는 외부사물과 연결된 연결망의 부분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근대인은 자신의 자아를 내면의 깊은 사적인 절연체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신의 존재양식: 민족정신의학ethnopsychiatry 으로 본 우리

1. 서구중심의 분석적 정신의학과 달리 '자아의 문화의존성(연관성)' 혹은 '문화에 의한 자아 창설'을 경험할 수 있는 비근대 정신의학이다.(290)

2. 정신의학의 탐구대상인 자아는 스타편으로 혼자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 (독백)하는 그런 (근대적) 자아가 아니다. 고립된 자아는 문화적(라투르는 인공적 장치artificial arrangements라고 표현했음) ‘우리’로 재탄생되며 이를 라투르는 변신metamorphosize이라고 했다. 인격으로서 개체화된 자아에서부터 타자화(타자와 연결된) 되는 ‘변신’의 양식의 한 모습이 ‘우리’다.(*194) 사적 자아가 공동체적 우리로 변하는 통과과정 passage이 변신 metamorphose[MET]이다.
3. 내가 객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근대 양식인 인공적 장치(문화적 연결망의 요소들)가 나를 소유하는 것이 창설 개념의 핵심이다. 근대인은 내가 객체를 소유할 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객체를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객체가 나를 소유하고 있다.
4. 내가 객체를 다루고treat 있으며 동시에 객체가 나를 다루고treat 있으니 나와 객체는 하나로 연결된 상태가 되며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 개념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레벨이 있다. 하나는 "나"의 주체들이 모인 우리이며, 다른 하나는 객체가 우리를 다룬treatment 한 결과로서 '우리'이다. 후자의 ‘우리’ 레벨은 라투르의 비인간 존재자 양식을 함의한다. 그래서 우리의 요소는 단순히 인격적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5. 우리는 변신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변신을 거친 우리의 존재가 바로 [MET] 존재양식이다.(290-3) 사적 자아가 공동체적 우리로 변하는 통과과정을 변신 metamorphose [MET]라고 했다.
6.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문화로부터 단절된 절연체가 아니라,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는 환경의 비 혹은 문화의 비를 흠뻑 맞고 있어서, 빗물에 흡수된 연약한 ‘봉투’envelope와 같다는 비유법을 라투르는 사용한다.(293)

창설에서부터 촉발되는 변신의 존재양식

1. 빗물transformational beings은 '봉투'로 유비된 나를 영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화나게도 하지만 한편 동기부여를 해주기도 하고 기쁘게도 해준다. 내가 자연-문화의 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가 나를 소유하여 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변신하며 그런 변신을 창설의 존재자라고 라투르는 표현한다.
2. 창설의 언어를 이해하는 두 가지 통로가 있다.
 - ① 첫째, 창설의 존재자에 익숙해지면서 창설의 의례를 기꺼이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 ② 둘째, 창설의 존재자는 우리를 인격적 개인(자아)으로 설정하지 않고 단지 수많은 타자 중의 한 외부 존재로서 간주하게끔 그냥 놔둔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창설 존재자가 우리를 타자로서 “오인”mistaken 하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다.(#194)
3. 우리는 변형성 존재의 영향력에서 좋건 싫건“under the influence,” positive or negative벗어날 수 없으며, 그런 상황들 모두가 나의 심리지향“psychotropes”에 작용한다.(*196)
4. 근대인의 심리학으로는 이런 변신의 존재를 규정하기 어렵다(293)
5. 자아의 연속성이란 형이상학적 자기동일성이 아니라 불연속적 파괴와 비예측의 생성 등의 역량과 에너지를 말한다. 그런 자아는 내적인 자기동일성의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과 공백 도약과 통과로 얻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변신) 연속성이다.(294)

변신과 해석의 키

1. 문화인류학적 변신의 산물을 단지 개인의 심리적 분석대상으로 취급하거나 두뇌 신경세포 회로의 변화로만 분석하려 드는 근대인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297)
2. 변신의 존재양식은 비합리성, 마술, 사기라는 비난과 오명을 받는다.(295)
3. 변신의 존재양식은 로맨스 잡지에 나오는 운세 지면이나 민간 주술, 오컬티즘 등의 양식과 다르다. 이런 다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적정성 기준이다. 변신의 존재양식의 창설이라고 해서 엉터리 사기, 나쁜 돌팔이들의 오남용 등을 창설이라고 하지 않는다.(296) 단지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수용할 뿐이다.(296)
4. 고정된 지시들을 단절적으로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혹은 사물을 움직이는 해석의 키[KEY] 즉 전치사 존재양식[PRE]으로 지시연쇄의 연결망을 끊이지 않고 따라가는 길이 라투르가 말하려는 합리성이다.(298)

변신을 왜곡하는 근대인의 만능도구 더블클릭 [MET·DC]

1. 근대인은 변신metamorphose의 존재양식을 더블클릭의 탬플릿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한다.(299) 이러한 오류는 더블클릭으로 지시체를 뒤집어씌우려는 것[REF·DC] 만큼이나 큰 오류를 낼 수 있다.
2. 정신적 존재자들을 더블클릭으로 접근하는 것은 '변형없는 운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대인의 심리학이 그 사례이다. 더블클릭은 모든 변신[MET]의 존재양식의 기회를 회피하려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클릭을 활용하는 근대인은 자신의 더블클릭이 마

치 “불변의 가동물”을 모방하고 있다고 착각한다.(299)

정신생성적 존재자와 물질적 사물을 혼동하지 않기

1. 정신생성적 존재자와 물질적 사물은 범주가 다른 존재양식이다. 이들 존재양식의 무게를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한다.
2. 정신생성의 존재자와 물질의 사물 둘의 존재양식이 서로 만날 수 있을 지언정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3. 물질적 사물에서 말하는 물질matter이란 더블클릭이 사물에 부과한 범주오류의 산물이다.
4. 물질은 이러한 더블클릭의 범주오류를 심할 정도로 숨기고만 있어서 존재양식의 표준으로 될 수 없다.
5. 물질적 사물은 재생산의 존재양식과 지시체의 존재양식을 더 이상 융합할 수 없다.(300쪽: *200)

구성과 실재 - 존재의 무게

1. 라투르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괄호를 치고 싶어했지만,(297) 경험의 경험을 통하여 존재의 무게를 경험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2. 앞서 말했듯이 라투르는 타자화된 나를 '우리'라고 한다. “I is an other”(*199) 그런 우리가 실재의 존재다. they can - because they are not aiming at you - become the energy source that is going to transform you for real. At last, “I is an other”! (*199)
3. 근대인은 존재를 말하면서도 존재의 무게(weight of being)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존재의 무게는 타자화된 존재에서 발현되기 때문이다. 자

아가 타자화되면서 고립에서 공감으로 이동되는 '우리'가 발현되듯이 말이다.

4. 근대인은 존재를 그들이 자랑하는 기학학적 이성으로 포장하면서 존재의 무게를 제거해버렸다. 그럴 경우 존재가 형이상학으로 바뀌면서 존재는 무게가 없는 수학적 양상만을 가지기 때문에 존재의 진짜 실재를 만날 수 없다.
5. 반면 라투르는 그런 추상의 형이상학이 아니라 경험의 형이상학을 추구한다. 경험의 형이상학의 존재자들은 실재reality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무게를 존중하는 태도를 라투르는 포기하지 않는다.

물질과 자연

1. 근대인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물질 개념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라투르는 말한다. 물기학학으로 전락한 물질이 아니라 구체성을 갖는 물질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라투르의 뜻이다. 기학학적 자연이 아닌 경험적 물질 사물을 라투르는 해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물질의 사물을 이야기할 때 물질이 죽은 자연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2. 여기서 그는 초자연의 범주로 오해받지 않고자 했기 때문이다. "초자연"의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다. 라투르는 이런 방법을 "뺄셈"subtraction이라고 표현했다.(300) 뺄셈을 함으로써 (물질의) 내재성immanence 탐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200)

존재양식마다의 사양specification

1. 존재양식마다 다른 특징과 그렇게 양식이 다른 기준들을 사양 specification이라고 표현한다. 사양이란 존재들이 표현되는 템플릿, 필수요구조건 - 대화를 위한 표준화를 기대하는 최소한의 합의사항이다.(273)
2. 사양은 내부가 외부로 투영된 표상이나 이미지 혹은 상상의 결과로 표현되지 않는다.(300)
3. 사양은 연속성의 동위태isotopy로 제한되지 않고 외부환경의 연관으로 맺어진 불연속성의 양식을 포함한다.(300)
4. 존재양식의 사양은 그 존재의 무게 그리고 그 존엄성을 갖고 있다.(300)
5. 존재양식이 딱 2개라면 한 양식에 대립적인 방식을 다른 하나의 존재 양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존재양식은 단 2개가 아니라 다양하고 다수이므로 대립의 분석방법으로는 존재양식의 사양 specifications을 파악할 수 없다.

생성되는 차이

1. 사물의 차이는 그 자체로 해명되지 않으며 그 사물에게 영향주는 외부 존재자와 만나면서 비로소 서로의 차이가 노출된다. 이 점에서 프랑스 사회학자 타흐드 (Gabriel Tarde:1843-1904)의 말을 인용한다: "Difference proceeds by differing."(*201)
2. 차이는 외부와의 관계에서 생성된다는 뜻이다.
3. 뉴턴의 프린키피아 2판(1713) 부록에서 뉴턴은 "Hypotheses non

fingo"라고 표현했다. 뉴턴은 자신의 이론을 상상이나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험과 실증으로 수립한다는 뜻에서 쓴 표현이다. 사회학자이며 법학자인 타흐드는 뉴턴의 사유방식과 반대로 관계의 상상력을 통해 범죄심리학을 구성하려 했는데 물질 실증성 외에 경험의 차이를 강조했다. 그 점에서 타흐드는 뉴턴과 다르게 "Hypotheses fingo"(나는 상상력을 동원한다)라는 표현을 강조했다.(*23)

차이의 사양, 변신의 사양

1. 어떤 존재자 양식의 변이와 변동은 그 자체로 altering itself 해명되지 않는다. 불연속, 공백, 적정성 상태라는 궤적 변이는 외부 존재양식인 타자로서의 존재being-as-other로부터 인출된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투르는 강조한다.(301; *201)
2. 변신metamorphose의 사양은 획일적이지 않으며 사물과 정신, 객체와 주체 사이의 갈등과 부정과 친숙함 등의 변형 등, 자아와 타자 사이의 상호변형을 거친다.
3. 타자로서의 존재양식은 (1)우리를 변형하여 새롭게 태어나게inventive 하며 (2)근대인의 악마의 천재성으로 사물을 자기마음대로 변형시킬까 봐 주저하기도hesitant하며, (3)우리도 타자존재양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무서워하기terrifying하기도 한다. 그런 다종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4. 변신은 그렇게 서로에게 거부감과 친숙감을 같이 공유하면서 연결된다.
5. 우리가 만약 그런 타자로서의 존재양식에 대해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게 될 때 거꾸로 타자는 우리를 속인다.(301-2) - 우리에게 의해 타자가 왜곡된다는 뜻이다.

비가시적 변신의 존재양식

1. 개기일식처럼 달에 의해 태양이 일시적으로 가려지는 현상을 가려짐(엄폐; occultation)이라고 부른다. 가려진 현상이 너무 신비하기 때문이다. 앞의 행성 때문에 뒤의 행성이 가려지는 현상을 어컬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의미처럼, 비가시적 변신의 존재양식도 어컬트하다고 말한다.(302)
2. 정신적인 무엇, 존재자들의 비가시성은 비합리적이거나 초자연적이거나 신비한 것이 아니다.(303) 오히려 객관성의 색다른 경로일 뿐이다. [MET]는 객관적이다.(303)
3. 변신의 존재양식은 항상 생성되고 소멸되는 변화가 끊임없이 유발되는 운동의 존재이다.(302)
4. 근대인의 심리학이 아닌 변신의 심리학이 요청되며, 그런 심리학은 타자로서의 존재양식의 하나다. 자신이 계속 변형하고 변형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타자에 관계맺음도 변형의 통과를 거친다. 근대의 틀을 벗어나 라투르가 희망하는 심리학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타자가 중심으로 된 정신 양식이다.

변신의 존재양식

1. 변신의 존재양식은 새로움을 창설하는 창의성에 있어서 무한에 가깝게 변형하다. 그만큼 존재의 폭이 무한하다는 뜻이다. 그 폭은 인간을 넘어서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비인간 존재론의 확장을 암시한다. They are infinitely more inventive. Like the beings of reproduction, they precede the human, infinitely.(*203)

2. 변신의 존재양식은 언어-이전의 원시적 양식이라는 비난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히 발전한 존재양식라고 라투르는 항변한다.(305)
3. 근대인의 오해는 내-외부 분할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근대인은 재생산 존재를 "외부 세계"로, 변신의 존재자를 "내부 세계"로 이분화시켜 고정함으로써 세계의 실재를 보는데 실패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들의 이분화를 마치 미신에서 해방시킨 합리성의 성과로 생각했다.(305)

치료의 존재양식에서 우주론의 존재양식으로 확장

1. 라투르가 제시한 심리학 혹은 정신생성학은 인식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치료적 존재양식으로 그치지 않으며 우주적 존재자these beings versions that are not only therapeutic but also cosmological로 확장되기를 라투르는 추구한다.
2. 라투르의 존재론이란 근대인이 만든 이분화의 존재론이 아니라 외부에서 조망한 [재생산의 존재양식]과 내부에서 조망한 [변신의 존재양식]을 포괄하는 확장된 존재론이다.
3. 재생산의 존재양식에서 변이의 고유한 가치를 추출해내는 변신의 존재양식으로 확장 [REP • MET]을 의미한다.(304)

라투르의 존재양식 8장 해제

기술철학



종교의 변신 양식이 기술양식에 어떤 관계가 있나

1. “과학과의 경쟁에서 자신의 존재론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종교를 멸시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312) 일탈과 불연속성을 허용할 수 없는 근대적 과학이 종교와 상충된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라투르는 생각했다. 종교에 대해서는 6장에서 잠시 다루고 11장에서 많이 다루는데, 이를 종합해서 먼저 정리해본다면 아래와 같은 종교의 복잡한 복합적 연결망이 엿보인다.

- ① 근대인이 생각한 합리주의 과학은 신비주의 종교에 상충된다.(8장)
 - ② 신학은 근대인의 이성으로 포장되어 종교의 신격화를 만들었다. 동시에 이런 신격화는 타자의 존재양식을 인정하지 못하여 우상파괴와 같은 타자 파괴를 감행했다.(6장)
 - ③ 종교 양식이 광신주의로 변할 때, 이런 광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라투르는 말한다. 이성이 근대인의 오만이듯이 광신주의 역시 지나쳐 버린 종교적 오만에 해당한다.(11장)
2. 변신 양식이 가장 크게 활성화된 것이 종교양식이다. 그 활성화의 정도를 약간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술을 창설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을 만들고 또한 향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종교양식과 (예술양식을 포함하여) 기술양식은 넓은 변신의 스펙트럼 가운데 퍼져있는 다른 양상, 다른 양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변신의 존재자들을 조작하는 사람들의 위험한 오염으로 인해 변신의 존재자들이 (데카르트 철학처럼) 회의적으로 취급되었던 근대의 관념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라투르는 말한다.
4. 한편 인류사 통털어 바로 오늘의 문명 속 우리가 발명해 만든 수많은 도구와 기술이 우리 삶을 혼란에 빠트릴 정도로 지구를 무겁게 짓누르

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라투르는 말한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한다면 변신의 존재자를 무시하거나 회의적으로 보는 편견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313)

기술철학의 문제점 기술의 불투명성을 놓치는 근대인들

1. 객관적 지식에 관한 근대인의 책이 1,000권이 있다면 기술을 성찰하는 책은 10권도 안 될 정도로 기술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부족하다고 라투르는 말한다.(313) 기술의 도구를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하다는 생각 외에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는 지적한다.(313)
2. 기술이 지니는 생경함(기회마다 새로움이 생기는 것)과 편재성 그리고 정신을 the strangeness, the ubiquity, and yes, the spirituality of technology 근대인은 놓치고 있다고 라투르가 지적한다. 근대인은 자신들의 이런 실수를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인의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기술의 스피릿 혹은 정신(한글본에서는 스피릿이나 ‘정신’ 대신 “영성”으로 되어 있음)이란 기술이 지닌 보이지 않는 창조성과 다변성 등을 말하는데 이런 창조성과 다변성을 라투르는 다양각색의 불투명성sumptuous opacity이라고 표현한다.(*210)
3. 기술이 지닌 다양각색의 의미를 대부분 놓치고 단지 기술이 지닌 편리성이라는 의미에만 기대어 있는 근대인의 문제점을 라투르는 지적한다.

작은 초월

1. 실물을 측량하여 만든 지도의 표기는 이미 초월적이다.(*210) 라투르는 이런 초월을 작은 초월mini-transcendence이라고 했다. 여기서 초월성이란 두 가지 의미다. 하나는 지명과 그 위치를 표기(수치화)하면서

실물과 다르지만 지도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잘 표상해주도록 하는 등 변형의 폭을 증대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도제작자가 지도를 표기하면서 실물의 객체를 죽은 상태로 두지 않고(객체를 객체 그대로 표상할 수 없다는 뜻에서) 다양각색의 어떤 관계들로 연결되게끔 한다는 점에서 객체를 넘어서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라투르 원문에서는 첫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첫째 의미와 둘째 의미는 서로 분명하게 구획되지는 않는 듯하다.

2. 재판소 기록실의 수천 쪽 기록서류들이 아무리 많아도 배심원들에게 직접 건네는 단 한 줄의 질문지가 더 초월적이라는 표현은 아주 흥미롭다. 판결 현장에서 관련 소송 문서는 판결에 결정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배심원들의 마음을 호소하는(읽는) 질문지도 중요하다고 한 점이다. 초월성이란 객체적이고 계량화된 사물을 넘어서 있다는 뜻이지 경험을 넘어서는 초험超驗이라는 뜻은 아니다. 라투르가 말하는 초월성은 초험이 아니라 경험의 깊이를 더 강조한 셈이다. 예를 들어 종교적 기도의 사례를 들어보자.
3. 기도는 초월적이라고 라투르는 말했는데, 여기서 초월적이란 신비주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로 말할 수 있다는 뜻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추정'이라고 말한 이유는 라투르도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지 않아서 그렇다.
4. 다른 사례로서 종이로 만든 인형 캐릭터들도 초월적이라고 한다. 캐릭터라는 수식어 자체가 이미 실물을 넘어서 있다는 점에서 초월적이다.
5. 이렇듯 변신의 존재양식은 그 이상으로 초월적이다.
6. 세계, 다중우주는 순환하는 초월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315)

이 세계의 해석가능성이 다양하고 다중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7. 초월성이란 객체(혹은 사물이나 대상)를 묘사한 기호, 기술, 해석, 인형 등이 해당 객체를 도약하여 큰 상상력의 공백을 형성하는데, 그렇게 형성된 결과를 초월성이라고 한다. 더 쉽게 말해서 플라톤이나 헤겔의 철학처럼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초월성이 아니며 종교에서 말하는 신비주의 초월성도 아니라 가장 경험적이지만 언어로 표현하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탈기호적 경험 영역을 초월적이라고 라투르는 표현했다. 그리고 그런 초월을 “작은 초월”이라고 말한다.
8. 작은 초월은 존재양식의 ‘내재성’과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교량이다.

초월에서 내재로

1. 초월성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듯이 내재성에 대한 오해가 가능하다. 이런 오해는 근대 사조의 영향력 때문이다.
2. 내재성은 선천적native이라는 뜻이 아니며 존재양식의 존재자가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양상으로 부연된 무엇이다.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지만, 선천과 후천의 구분으로 내재성이 설명되지 않는다. 내재성은 특정 존재양식에 의존한다. 내재성이란 관계와 연결을 맺기 이전의 형이상학적 상태다. 그런 내재성을 선천적이라고 근대인은 간주했는데, 그런 생각이 바로 근대인의 오류이다. 실제로 내재성은 선천적이지 않고 초월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이상화된 초월, 신격화된 초월, 관념화된 초월, 합리주의로 포장된 초월이 아닌 경험의 내재성이 기술 존재양식의 바탕이다.

기술 존재양식, 경험의 경험이란?

1. 기술 양식은 마법, 종교, 과학, 철학의 존재양식과 적정성을 갖는 존재자이다.(316)
2. 근대인은 기술의 궤적을 선형적이고 예측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술의 궤적은 근대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직선적이지 않다. 그래서 파악하기도 어렵다.(322)
3. “경험을 경험해야” 하는 과정이란 무엇인가? - 경험은 평범한 듯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희소하다. 평범하다는 것이 개인의 차원에서 그런 것이어서 나의 평범함은 타인에게 희소하며 그 역도 그렇다. 그래서 예측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쉽게 알기 어렵다.
4. 평범하고 상시적일 것 같았는데, 어느덧 순간적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 기술양식의 특징이다. 그리고 투명한 듯 보이지만 결코 투명하지 않고, 한정된 듯 여겨지지만 계속 무엇인가로(미지의 미래로) 확장되어가는 것이 기술양식이다. 이러한 양면의 모습으로 오가면서 진자처럼 진동하는 것이 ‘경험의 경험’이라고 라투르는 말한다.(322) 정적인 완결상태로 결론지을 수 없는 모습이 바로 기술양식의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5. 이 점으로부터 기술 존재양식의 긍정성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이 앞으로 전개되는 디스토피아의 부정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라투르는 말한다. (여기 8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지만 말이다.)
6. 진자의 운동은 기술에서 과학으로, 과학에서 종교로, 종교에서 사회로, 다시 사회에서 기술로 순식간에 연결되는 지그재그dazzling zigzag 경험의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다.
7. 기술과 사회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지그재그 운동을

접근해보자.

사회기술 연결망 socio-technological networks

1. 기술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결합으로 비로소 기술체계가 형성된다.(317)
2. 어떤 기술이든 그것이 작동하려면 그 기술 주변의 다양한 것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연결된 기술 존재양식을 [TEC • NET]로 표현한다.
3. 예를 들어 브르타뉴 해변의 녹조 현상 방지기술은 장비 제조사나 제조 경비에 드는 전체 예산안을 편찬하고 결정하는 지방정부 의회 혹은 농협조합을 뽑는 선거에 관심을 두거나 그들과의 격렬한 논쟁 controversies을 벌이거나, 주변의 다양한 상황들이 소소한 변수 수준이 아니라 위협적인 요소로 개입될 수 있으며, 이렇게 다양한 상황과 주제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면서 기술은 사회와 분리되어 해명될 수 없다.(318)

기술 궤적에서 경험의 우회로detour는 복잡하고 길고 잘 보이지도 않는다.(투명하지 않다)

1. 변형의 다양성multiplicity of transformations -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지 잘 모른다
2. 결합의 이질성 the heterogeneity of combinations - 기술은 단일한 목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
3. 인공적 정교함의 확장성proliferation of clever artifices - 인공적 기

술 자체가 정교해지는 확산이다. (13장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한다.)

4. 취약한 기법skills이라도 그것들을 섬세하게 조립하는 가능성 the delicate setups of fragile skills이 무한하다.
5. 기술은 경험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성숙된다.
6. (1)구석기인 돌도끼에서부터 현대인의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2)자연(비인간)이 만든 화석의 기술에서부터 몇 천만 년 풍화되고 침식된 동굴의 종유석에 이르기까지, (3)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의 고뇌에 이르기까지, (4)막대한 국가재정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 차액을 메꾸기 위해 과학연구 예산을 감축하는 정치인들의 오남용 권력에 이르기까지 기술양식의 존재자는 직선의 길로 안내되지 않으며 우회로의 구부러진 먼 길 때문에 재생산 존재양식을 짜맞추기(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비물질적 연결장치로서 기술

1. 암 치료 병동에서 의료기술만이 아니라 핵물리 기술이 깊게 관여된다. 과학기술 장치의 고립된 기술은 없다.
2. 망치를 구성하는 나무로 된 손잡이와 쇠로 된 망치머리가 서로 잘 접합될 때 비로소 망치의 품질이 드러난다.
3. 지하철 차량에서 한 차량과 다음 차량을 연결하는 고리식 강철 연결기 (solid couplings)가 물질적 연결장치이듯이 프로그램, 컴파일러, 반도체 레이더 등의 연쇄설비로 연결된 지하철 자동화 시스템도 결국 잘 계산된 "비물질적 연결장치"nonmaterial couplings인 셈이다.(322)
4. 기술의 뛰어난 창조성은 바로 물질화된 기술이 아니라 기술의 비물질

적 연결장치로 인해 생겨난다.

5. 독창적 기술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핸드백 손잡이나 약병 뚜껑의 안전틀기(아이들이 함부로 약병을 열지 못하게 만든 아이디어) 등, 일상의 아주 가깝고 사소하지만 번뜩이는 발견에서 온다.(323) 발견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기보다 있는 것을 찾아내면 된다는 점이다. “존재주”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발견의 원천이다.(There's a trick to it)

기술 존재의 조로의 칼과 더블클릭의 위협

1. 기술의 존재는 조로의 칼처럼 Z를 내리치는 것이다. 조로의 칼날 Z 지그재그는 기술의 효용성과 경제적 이익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 그러나 더블클릭이라는 근대인의 장치를 남용하면서 기술이 지닌 지그재그의 성질이 사라져가고 있다. 기술 존재양식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비예측성, 불연속성 등의 측면이 더블클릭에 의해 전부 소거되고 오로지 기술의 기능과 효과만을 우대하는 점을 라투르는 안타깝게 생각한다.(323)
2. 기술의 존재양식을 절단하는 더블클릭의 템플릿(더블클릭이라는 만능장치)을 통해 기술은 마치 단순 정보 혹은 단순 형식의 매개체로 전락된다.
3.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은 더블클릭이 주도하듯이 유용성이나 효율성 effectiveness으로 단정되어서는 안 된다.
4. 효율성과 기술의 관계는 객관성과 지식의 관계와 같다.(325)

기술의 지그재그가 사라지는 이유

1. 더블클릭의 습관적인 유린 때문에 기술의 지그재그 궤적이 사라지곤 한다.
2. 기술과 기술의 후유증 사이의 혼동을 피해야 하는데, 기술의 존재양식을 기술이라는 동일성의 존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324)

기술의 존재양식과 변신의 존재양식

1. 기술의 존재양식에서 기술은 우리가 그것을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익숙해지면서 잠시 잊혀질 수 있다. 한편 앞 장에서 논의한 대로 변신의 존재양식에서 변신은 정신생성적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잊혀질 수도 없다.
2. 기술의 존재양식은 변신 존재양식의 한 가지이다.

호모파베르에 대한 오해

1. 우리는 호모파베르를 "물질에 대한 효율적 행위"를 하는 인류로 알고 있다. 도구를 통해 자신의 욕구needs를 주조하는 인류조상으로서 호모파베르의 정의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기술이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호모파베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라투르는 강조한다.
2. 인간만이 도구사용의 행위자라는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3. 기술이 물질을 도구로서 효율성있게 사용하는 장비라는 생각도 잘못되

었다고 라투르는 지적한다.(326)

4. 합리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사물과 지성의 일치"adequatio rei et intellectus"라고 간주했다. 이런 합리주의로부터 우리는 물질을 상실하고 기술적 우회를 잃었고 영리한 책략 즉 기술 자체의 변신을 잃었다.(326)

기술 대응론 비판

1. 인식론에서 지도와 영토 사이의 1:1 대응론이 근대인의 오류였듯이, 기술 존재양식에서 형식(형태)과 기능 사이의 대응이라는 효용성 이론도 근대인의 오류에 해당한다.
2. 기술은 인간 (특히 남성)의 소유물질이라는 혼동은 [REP • REF] 기술을 과학의 전통 개념의 하나로 잘못 적용한 오류이다.(327) 기술을 과학의 도구로 간주하거나 자연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이다.(327)
3. 과학이나 과학의 도구로 전락된 기술을 단지 "논쟁의 여지없는 기초" 즉 오로지 기능성과 효율성으로만 간주한다면 실제로 기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지그재그의 다종성(혼종성)과 비가시성(불투명성)의 다의성은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그 기술에 맺어진 수많은 관계와 변화, 배경 이야기나 배후 상황들 혹은 발명하게 된 우연이나 일탈 나아가 기술이 유지될 수 있는 자본과 권력 구조 등등 그런 불연속과 공백의 비가시성이 사라질 것이다.
4. 기술의 비가시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비행기가 하늘이 뜰 수 있는 과학이론인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양력 이론은 살아남더라도 실제의 비행기는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뜰 수도 없게

된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디엔에이 분자생물학 이론이 아무리 대단한 과학이론이라고 해도 실험실 현장에서 세포 배양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328)

5. 과학이 과학이론으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듯이 기술양식은 더더욱 기술 발명의 한 사건으로만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술의 지그재그, 부정적 사례

1. 근대인이 마법의 탄환이라고 생각했던 기술의 목표와 유용성 이면에 부정적 비가시적인 것들 예를 들어 기술에 따르는 위험, 오염, 폐기물, 예상 밖 결과들과 같은 기술의 우회로에서 생긴 뒤틀린 비극들이 너무 많다.
2. 이제 사전예방책precaution도 늦은 것 같다는 라투르의 표현(329)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경고하고 있다.

기술의 혼종성

1. 기술의 존재양식은 객체 자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객체란 기술 존재 양식이 운동해간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330)
2. 기술의 존재양식과 관계 맺으려면 (1)더블클릭의 유혹을 피하며, (2)소위 객체 자체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정적인 물질 상태를 통해 사물을 설명하려는 관습에서 벗어나 운동성을 수용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경험의 운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기술의 존재양식을 접근할 수 있다.
3. 객체 자체를 기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근대인의 태도는 흔적이나 그림자를 보고 객체라고 간주한 것과 같은 대오류이다(330)

4. 객체는 운동의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흔적이거나 그림자가 아니라 운동 안에 스며든 비가시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로봇 중에서도 혼자서 다 할 것 같은 소위 오토마톤(대문자 AUTOMATON)조차도 타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라투르는 “오토마톤보다 더 혼종적이고 타율적인 것이 없다” There is nothing more “heteromatic” than a robot, an automaton라고 썼다.(330, *222)
5. 라투르가 말하는 오토마톤의 유비는 기술 존재양식이 단선적이고 고립적인 방식이 아니라 운동성 안에 재워둔 변형의 힘으로 존재함을 강조한 것이다. 정적 사물은 운동의 수학적(미분적)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비인간 기술 - 기술은 인간보다 앞서있다.

1. 기술은 인간보다 앞서 있다는 말은 기술의 사회적 맥락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2. 객체 자체가 아닌 진짜 기술적 객체는 불투명하며 불연속적이며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비가시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비로소 기술적 객체가 드러난다. 여기서 비가시성이란 기술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적 맥락이 아니라고 라투르는 단호히 말한다. (331, *222)
3. 인간이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도 인간을 만든다는 것이 라투르의 강조점이다.

기술은 합리주의 목록에(aletheia) 표시되지 않고 숨겨져 있다.

1. 에피스테메의 경로는 선형적이 아니다. 기술도 에피스테메 경로에 놓여 있다. 기술이 합리주의 목록에 없다는 말의 뜻은 비합리주의를 추종하

자는 말이 아니라 단순하거나 선형적이지 않은 복잡하고 일탈이 포함된 불연속성과 공백의 미로를 합리적으로 따라가기 위한 방법론적 태도라는 데 있다. 이 점은 라투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223)

2. 에피스테메의 경로 자체가 우회적이고 일탈적이며 비선형적이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성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 근대인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합리성 기준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라투르는 강조한다.

기술은 명사형태가 아니다 - 기술은 객관 대상이 아니다.

1. 기술은 객체라는 명사 형태가 아니라 '기술적'이라는 형용사이거나 '기술적으로'라는 부사 혹은 '기술화하다'라는 동사 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라투르는 말한다.(332)
2. 기술은 타자를 굴절시키는 변화의 힘으로서, 기술도 변신 *metamorphoses* 존재양식처럼 타자를 탐구하는 존재양식이다.(333)
3. 기술 존재양식이 타자를 탐구하는 방식과 변신 존재양식이 타자를 탐구하는 방식은 다르다.

'발명'이라는 탐구방식을 갖는 기술, 기술은 번역이며, 번역은 반역이다.

1. 기술만의 독특한 탐구방식으로서 '발명'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발명이라는 표현과 개념에 압도되지 않고 발명 과정에서 잠재된 도약, 단층, 단절과 파열의 경로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라투르는 지적한다. 재생산 존재양식이 변신[MET]의 힘에 의존하는 것처럼 기술 존재양식도 변

신에 힘입어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준다.

2. ‘발명’이라는 탐구방식을 갖는 기술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집짓는 기술에서조차 집짓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 인도네시아 산 목재, 독일산 창틀, 한국산 유리, 중국산 모래, 태국산 채석 등등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집을 짓는데 변형과 변성이라는 변신의 존재양식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다.
3. 어느 것 하나 연속적이고 단선적인 경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비스듬하고 비뚤어지지만 조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충돌이라는 묘책으로 변신의 경로들이 생성되면서 존재자의 집은 지어진다.(333-4) 일단 지어진 집, 장인의 손에 잘 구어진 도자기는 상당히 오래간다.(지속적이다; 텍스트에서는 재생산 존재양식의 지속성으로 표현되고 있음)
4. 발명도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신의 과정을 갖는다. 즉 기술 존재양식은 지속되지만 여전히 변신 과정을 남겨둔다. 그래서 지어놓은 집 벽이 부스러지기도 하고, 자동차는 고장나기도 하고, 컴퓨터는 악성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며, 실험실 배양균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잘 짜놓은 해먹도 그 밧줄이 헤지기도 한다.
5. 기술은 자신을 기꺼이 빌려주어서 기술의 결과물을 지탱하면서 동시에 그 기술 결과물은 해체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라는 표현이 텍스트에만 잘 맞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술 존재양식에 더 잘 작용된다. 집짓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기술 존재양식은 번역과 변신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번역되고 변신된 것조차도 다시 해체될 수 있다는 뜻에서 라투르는 '반역'이라는 표현을 썼다.(335)

기술 양식과 재생산 양식,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교차의 반역성이 강한가?

1. 재생산의 위험(risk)도 높은 편이지만, 기술의 리스크가 훨씬 더 강하다.(336) 예를 들어 자연사 박물관에서 만나는 화석의 깊이에 깊은 인상을 받지만 기술공예 박물관에서 만나는 공예품이나 기관차 모형도 그 자연사 이상의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2. 기술 존재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한한 변이를 품고 있다.(336)

기술을 더블클릭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 [TEC·DC]

1. 더블클릭은 지시의 연쇄를 놓치듯이 기술의 번역과 변신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인은 기술을 그 효용성과 성취도라는 기준으로 보아왔다. 더블클릭은 기능과 목적 그리고 수단이라는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통제가능성의 진리조건이라는 명분으로 기술을 왜곡한다. 이런 더블클릭의 오류와 착각은 기술의 정신과 기원 그리고 기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their spirit, their genesis, their beauty, their truth. 전부 놓치고 만다.(337-8, *227)
2. 라투르는 이 책 전체에서 근대인의 더블클릭을 남성 3인칭 대명사 "he"로 표현하는데, 이는 반근대 혹은 탈근대를 추구하는 인류학자를 "she"로 표현한 것과 대조적이다.

더블클릭으로 상실되는 기술의 스피릿이란 무엇인가

1. 기술을 더블클릭처럼 물질로 환원하는 순간, 변신의 이질성과 저항의

차이를 감지할 수 없게 된다.(혹은 그런 이질성과 차이가 상실된다)(339) 기술을 대하는 더블클릭이라는 근대인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술의 접힘FOLDING(대문자)에 있다고 한다. 이것은 기술의 객체 대신에 기술의 프로젝트PROJECT(대문자)로 상징된 대안을 제시하는 라투르의 표현이다. 기술의 프로젝트란 기술의 물질화에서 탈출하여 기술의 스피릿을 회복하자는 라투르의 주장이다.

2. 더블클릭으로 인하여 상실되는 기술의 스피릿이란 무엇인가? 기술의 더블클릭[DC]은 기술을 객체로 간주한다. 창조주가 있어서 창조물이 생기듯이 기술자(창조인, 호모파베르)가 있어서 기술이 생겼고, 그런 기술을 만드는 기술자의 발명정신을 중시한다. 그러나 그런 발명정신이 여기서 라투르가 말하려는 스피릿과는 전혀 다르다.
3. (FOLDING) 기술의 접힘FOLDING(대문자)에서 기술의 스피릿을 찾을 수 있다. 기술을 객체가 아닌 프로젝트PROJECT(대문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라투르는 제안한다. 단순한 이론적 제안이 아니라 당면한 실천적 과제이다.
4. 특정 기술을 발명한 기술자의 발명정신inventive spirit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기술이 기술자의 정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꾸로 된 존재양식이 라투르가 말하려는 스피릿의 핵심이다.
5. 접힘의 기술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블클릭의 기술이란 (1)기술을 객체화로 한정시키며, (2) 물질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단정지으며, (3)기술통제와 투명성 및 합리성이 가능하다는 근대인의 믿음을 말한다. 반면 접힘의 기술이란 (1)접힘 위의 접힘, 함축과 복잡화 그리고 전개를 수반하며, (2)미로의 형태를 전개하는 중첩의 번역작업이다.
6. 기술의 스피릿은 신비주의 영성이기보다는 접힘과 미로 불투명과 번역

의 중첩성을 파악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관련 한글본의 용어 번역

1. 한글본 338쪽 아래 문단 중간이다: "기술은 항상 접힘 위에 접힘, 함축, 복잡화, 전개를 수반한다." 여기서 전개라는 번역의 영어본 단어는 explanation이지만 불어판 원본은explication으로서 [implication, complication, explication]이 같은 대비법으로 다루지는 개념의 한 측면이다. 그래서 "기술은 항상 접히고 접혀서 내재되고 중첩되며 외현되어 간다."로 번역하면 이해하기 쉽다. (영어본 228; 불어판 원본 235)
2. "미분소"보다 "차이"로
 - ① 미로를 거치면서 기술의 존재양식은 구부러지고 꺾어지며 부러지기도 하면서 번역의 중첩성이 일어난다. 그런 중첩의 번역과정을 직시하려면 우선 물질을 소유한다는 근대인의 욕망을 버려야 한다.
 - ② 그리고 전체의 행로를 다 파악은 못해도 부분부분들의 향방을 눈치채게 해주는 다양성의 흔적들을 식별하게 된다. 그런 다양성의 흔적이 바로 번역의 요소인 미분소differential들이다.
 - ③ 번역자는 이를 미분소라고 번역했는데,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기서의 단순하게 "차이"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차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때문에 기술 존재양식의 변신과 변환을 간접적으로 감지하게 해주는 표지판으로 될 수 있다.
 - ④ 번역자가 미분소로 번역한 이유는 아마 다음 소절에 등장하는 기울기 gradients라는 용어 때문에 미적분의 미분소 개념으로 번역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여기 텍스트에서 사용된 컨텍스트에서 볼 때 미

분소보다 단순히 "차이"에 가깝다.

기술이 있으면 그보다 앞서 기술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의 오류

1. 기술에 대한 고정관념의 하나로서 호모파베르 이후에 기술이 탄생된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 기술은 반드시 인간의 종속물에 지나지 않게 된다.
2. 모래밭에 시계가 발견되면 어딘가에 시계공이 있을 것이라는 페일리(William Paley 1743-1805)의 시계공 논증으로 세계의 존재와 창조자를 증명하려 한다면 존재 오류에 빠진다. 기술이 있으면 기술자가 있을 것이라는 논증도 역시 근대인의 오류라고 라투르가 말하고 싶다.(*228)
3. 인간은 호모파베르의 존재처럼 기술자가 기술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술에 의해 변곡되기도 하는 그런 기술적 우회에 의해 만들어진 수동태로서 인간 혹은 쌍방적 관계로서 호모파브리쿠스(Homo Fabricus; 수동태)이다.
4. 어깨에 걸친 총을 쏠 때 어깨에 강한 반동이 일어나듯이 기술의 반동으로 생성된 것이 인간이라고 라투르는 비유한다.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법이다. 라투르의 비유대로 "인간은 무엇보다도 기술적 우회의 반동이다". humanity is above all the recoil of the technological detour (*230)

탈연동SHIFTING(대문자); 변동, 시프트

1. 탈연동/변동 : 탈연동shift 개념은 자동차 기어를 작동하여 변속하는

매커니즘에서 따온 은유이다. 탈연동은 물질의 겹보기 연속성을 도약하는 '작은 초월'에 해당한다.

2. 탈연동의 4단계(instances; 심급)는 공간의 이동, 그리고 그런 공간과 시간의 이동 행위자 양식의 이동 displacements in time, in space, and in the type of actor을 말한다.
3. 라투르의 직관적 사례를 들어보자. 두통약으로 발명된 기술 아스피린을 먹고 나의 두통이 없어졌다고 하자. 나와 기술 사이에는 공간과 시간에서 볼 때 이미 상당한 이동이 일어난 것이다. 아스피린을 제조한 공장과 공장건물을 건축한 업자들이나 제약회사 영업자들, 등등 상당히 복잡하고 우회적인 행위자들이 개입되고 그런 행위자로부터 지속적인 탈연동 덕분에 나는 오늘 이 약 아스피린을 먹고 통증이 치료된 것이다.
4. 기술적 우회 in any technological detour를 통해서 우리는 기술 존재 양식의 탈연동(시프트)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다. easily recognizable (*229)
5. 기술 존재양식은 항상 접힘의 양식으로 있기 때문에 탈연동 shift 없이 기술에 접근할 수 없다. 접힘은 선형의 복합구조가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구분될 수도 없는 중첩의 존재양식이다. 그래서 기술자 혹은 기술자의 발명 스피릿이 기술을 탈연동시키기도 하며 동시에 기술이 기술자를 탈연동시키기도 한다. (능동적으로) 탈연동하면서 (수동적으로) 탈연동된다는 뜻이다. 이런 행위자의 양식이 4번째 심급 the fourth agency이다.
6. 네 번째 행위자 양식은 행위자가 주체로 되어 "무엇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무엇을 하게 된다"라는 not to do something, but to have something done 기술적 우회의 피-탈연동을 말한다.

다.(*229)

7. 더 쉽게 말해서 역량competence이 어떤 무엇을 수행performance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니까 역량이 보여진다는 뜻이다.(*230)

기술의 목적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 기술을 물질과의 결합으로부터 해방시킨다.
2. 기술과 기술자라는 존재의 선후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술이 인간의 자식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의 자식임을 명심해야 한다.
3. 기술을 투명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4. 기술을 목적지향과 수단으로서의 효용가치로만 간주하는 편견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한다. (342)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생태화ecologize

1. 도구화된 물질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질을 왜소하고 빈약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대인의 근대화 전선modernization front을 해체하여 비근대인의 물질관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다.(343)
2. 기술적 개체의 환상에서 벗어나 기술의 스피릿을 호흡하도록 라투르는 근대인에게 요청하고 있다. 물론 기술의 스피릿을 복구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라투르는 생각하는 듯하다.

라투르의 존재양식 9장 해제

예술철학

기호의 자의성에서 탈출하기



존재와 표상의 이분화bifurcation - 융합을 해체하다

1.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빼앗은 연장실체 RES EXTENSA를 다시 해체하는 것에서부터 존재와 표상의 이분화를 벗어나는 일이 시작된다.
2. 연장실체에 대비(대칭)된다고 잘못 알려진 (말하는 주체의) 사유실체에 대한 집착the symmetrical obsession with a “speaking subject”을 치료해야 한다.
3. 세계(존재)가 물질과 잘못 융합되었다고 라투르가 말할 때 그 때 융합은 영어amalgamation의 번역이다. 이 책 전반에서 라투르는 amalgamation이라는 용어를 대체로 부정적(비판적)으로 사용한다. 라투르는 이렇게 잘못 연결된 융합이 대표적인 이분화의 오류라고 보면서, 그는 이러한 융합을 해체disamalgamate 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근대인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제공하고 싶어 한다.(*234, 348)
4. 5장 정치 존재양식에서 이미 융합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었다. 5장에서 필자는 융합 대신에 강한 권력이 다른 것을 녹여서 흡수함으로써 “하나”로 만든다는 뜻으로 “용융”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 9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맥을 이해하는 독자라면 전체 컨텍스트로 볼 때 용어번역에서 큰 문제될 것은 없다.

이분화를 다시 정리하다

1. 객관적 지식이 사회나 언어와 분리되어 가능하다는 것이 근대인의 이원론 입장이다.
2. 지식이 자연과 분리하여 존재가능하다는 자연에서 분리된 이원화 입장이다.

3. 앞의 2번의 이분화는 이미 화이트헤드 (중기) 자연철학 『과학과 근대세계』(1926)가 말한 “구체성을 잘못 놓은 오류”fallacy of misplaced concreteness에서 충분히 지적되고 비판되었다. 그리고 자연과 분리된 이분화의 오류를 피해가거나 해체하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여겨진다.
4. 자연과 지식 사이의 이분화 문제 안에 사회와 언어의 이분화가 이미 내포되어 있어서 언어라는 환경과 사회의 컨텍스트를 벗어날 수 없어서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348)
5. 부피, 질량, 크기 등 수로 환원가능한 일차 성질과 냄새, 색깔이나 촉감같이 수로 환원되지 않는 이차 성질의 구획은 일차 성질을 객관적 물질로, 이차 성질은 주관적 감각(주체성이나 감정 등)에 의존하는 이분화를 결정해 놓았다. 일차 성질에만 존재를 부여하고 이차 성질에서 존재의 무게를 빼버리고 존재의 전치사를 모조리 삭제시키려 한 것이 바로 근대인의 이성이었다.
6. 이성의 이분법은 처음에 해결책처럼 보였지만 결국 “재앙”으로 되고 있다고 라투르는 말한다.(349)

라투르는 이분화의 오류를 왜 재앙이라고 표현했나?

1. 계량화된 자연, 경험이 배제된 채 이성화된 자연, 의미의 전치사를 박탈당한 자연, 근대인이 보기에 “진정한 자연”real reality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연, 그래서 그런 계량화된 자연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모든 경험적인 것들을 무작정 “상징세계”symbolic realities라는 감옥같은 작은 곳으로 가두어 버린 것이 근대인의 자연이었다. 이제 거꾸로 근대인은 자신이 만든 허구의 실체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있다.
2. 슬프도다. 근대인은 관념화된 분석과학(이상화된idealized hard

science) 안으로 자기만의 성곽을 쌓아놓은 것이다. 라투르는 이런 근대인의 현상을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236, 350)

자연의 이분화는 언어에서도 적용

1. 객관적 지식이란 언어와 사회라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배후offstage를 마치 없는 것처럼 가상하여 자연 그 자체를 절합할 수 있다는 오도된 표상, 혹은 경험이 배제된 관념일 뿐이다. 객관의 지식은 자연을 절합할 수 없다. 자연은 정신적 표상, 사회적 표상, 집단적 표상 세 가지의 협동collaboration에 의해 실재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235, 349)
2. 자연을 물질화하면서 근대인의 이분법은 성공할 수 있었다. 자연을 물질화하여 경험으로부터 자연을 퇴출시킨 근대인의 오류는 같은 방식으로 언어에도 적용되었다.
3. 근대인은 물질과 상징을 대비하여 자연을 설명했듯이 언어에 대해서도 상징이라는 구획 안에 가두어 놓았다.
4. 언어는 기호sign로 제한되지 않으며 의미sense로 연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식은 연결 없는 기호들의 구성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의미들로 채워져야 한다. 그것이 지식의 연결망이다.

근본 경험주의와 2세대 경험주의를 구분하다.

아래 2세대 경험주의가 바로 존재를 파악하는 경험을 보여준다.

- 1) radical empiricism: 윌리엄 제임스처럼 철학사적 경험주의
- 2) second-wave empiricism 2세대 경험주의: 도약, 공백, 작은 초월로

서의 경험으로서 굴곡진 길을 가는 행위과정course of action을 말한다. 그런 행위과정으로서 경험의 길은 “좁지만 높은 데까지” 갈 수 있는 존재양식이다.(351)

존재의 궤적

1. 이 책에서 궤적, 존재, 방향, 의미(sense or meaning)는 동의어다. Consequently, in this inquiry, trajectory, being, and direction, sense, or meaning, are synonyms(*237, 352)
2. 존재의 의미는 존재의 결핍을 파악하고 그것을 채우려는 과정들, 즉 번역하고 구현하고, 재생하며 해석하는 등의 과정으로 정의된다.to translate it, to take it up again, to grasp it anew, to interpret

픽션 존재양식의 특징 [FIC]

1. “가상”이라는 우리말보다 영어 그대로 “픽션”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픽션 존재양식은 변신하는 접힘과 반복의 과정이다.it folds and reprises them(*249) 접힌 것을 펼 때는 접힌 그대로가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진다. 접힘은 반복이지만 매번의 반복마다 새로운 갱신을 동반하는 것이 픽션 존재양식의 중요한 특징이다.
2. 픽션 양식도 형상화의 수단이다. 여기서 형상화란 존재자의 구체화된 모습이다. 예를 들어 정치 양식에서 형상화가 없다는 것은 픽션이 없다는 것을 뜻하며 그렇게 되면 정치 정당이나 권력 같은 집단의 존재양식도 불가능하므로 결국 형상화가 없으면 정치 양식도 불가능하다. [FIC • POL]

3. 형상화가 없으면 종교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교회의 신에 대하여 우리는 얼굴figuration이라는 픽션 혹은 교회라는 형식 공간의 픽션을 부여한다. 그럼으로써 종교의 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법도 마찬가지다. 사회(특정 공동체)가 만든 그들대로의 법적 장치fictio legis가 없는 법은 생각될 수 없다.
4. 여기서 ‘형식’이라는 말은 ‘상징’이라는 말과 다르다. 법이나 정치 혹은 종교가 “상징적 세계”일 뿐이라는 주장이 아니다. 단지 법과 픽션 사이, 정치와 픽션 사이, 종교와 픽션 사이에 상호 상대방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법이나 종교 혹은 정치의 존재양식이 잘 설명될 수 있다는 뜻이다.(370)

미학의 무한성

1. 산 넘어 해지는 노을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노을 하늘의 자연 경치 혹은 장관spectacular을 감상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픽션의 도움으로 자연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재생산-픽션 [REP·FIC]의 존재양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2. 마치 누군가가 저 멀리 산 너머 등성 위로 노을의 빛을 그려 넣은 듯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행위와 유사하다. 햇빛, 산등성, 하늘, 새들의 비행, 구름 등등은 서로가 서로에게 질료 요소로 변신되고 그런 질료를 바탕으로 자연 스스로 창조되는 무한한 표현양식으로 드러난다.
3. 가상의 배치자(가상의 설계자; un agenceur virtuel; **257)가 햇빛, 산등성 하늘 등을 평면des plans에 투영시켰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평면의 도면들 각각은 서로에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방식으로 질료의 역할을 한다. 그 질료들이 서로 연결되어 (연쇄적으로 겹쳐서) “형식

화”를 이룬다. 그 형식화의 결과가 바로 “아 장관이구나, 경치가 아름답구나”라는 경험의 발화로 드러난다. 미학은 이런 형식화로부터 시작된다.

4. 형식화의 결과는 자연의 피조물이 일방적으로 만든 경관(아름다움이라는 경치)이 결코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가상의 배치자”(디자이너) 그 이상으로 이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경험의 주체자 역시 임의적이고 다양하고 주체마다 다른 “가상의 관객”(spectateur virtuel)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가상의 관객은 경험을 체현하는 향유자이다. 배치자에게 물질화되고, 관객에게 체화되고 서로에게 뿌리내려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진동의 강도 차이라고 라투르는 표현했다.
5. 형식화 사이, 진동의 강도가 생기는 이유는 첫째 “가상의 디자이너와 가상의 관람자”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이며 둘째 가상의 관객들 사이에는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6. 차이는 존재양식의 진동에서 오는 것이며 그 진동으로 인해 자연을 바라보는 양식, 기술을 수행하는 양식들이 무한하다. 이것이 바로 미학의 무한성이다. 미학의 무한성은 존재양식의 진동에서 오므로 그 진동을 경험하지 못하면 미학도 뿌리내릴 수 없다.(370-1)
7. 미학의 무한성은 경험자의 해석이 다양하고 무한하다는 단순한 의미로 그치지 않는다. 경험자(관객)의 해석(창조)의 무한성 이상으로, 자연, 기술 등 세계 스스로 배치되고 스스로 창조되는 무한성 때문에 미학이 생성된다는 라투르의 강한 뜻이 엿보인다.

과학에서도 미학만큼이나 픽션의 존재양식이 발휘된다. - 과학에서 픽션의 역할

1. 지시와 픽션, 두 양식의 교차 혹은 협력에서 세계의 아름다움이 생긴다.[FIC • REF]
2. 픽션의 양태인 내러티브는 지시의 연쇄를 포괄할 수 있지만, 픽션의 내러티브없이 지시의 연쇄도 없다. 픽션은 지시의 연쇄가 들어갈 수 없는 틈새와 공백을 채워주며 새로운 존재자의 창조를 낳는다.
3. 바이러스나 DNA 분자 등을 취급하는 과학 논문 혹은 조사연구 보고서 안에서조차 단순한 지시체들의 단어나열이나 종이 묶음이 아니라 그런 지시체들의 내러티브들이 마치 희곡의 캐릭터들처럼 등장한다. 이런 내러티브로부터 바로 과학의 추상적 능력이 생긴다.
4. 사실의 내러티브가 객관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픽션의 내러티브는 상상력이라는 이분법은 맞지 않는다.
5. 픽션의 내러티브를 통해 우리는 다른 미지의 세계까지 존재의 여행을 할 수 있지만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와 그 존재자들을 전개할 필요가 생긴다. 이 세계로 되돌아오는 존재자의 귀환을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과학적 세계관에서 과학의 탐구결과들이 일률적이고 주어진 표현방식으로 보고될 뿐이다. 그런 과정에서 풍성했던 픽션 내러티브가 축소되고 상실된다. (372-3)
6. 픽션보다는 지시체를 많이 다룬다고 하는 과학에서도 그런 지시체들의 시프트(탈연동; 변환)가 일어난다. 과학적 발견의 창조는 대체로 기존의 관습적인 관찰(기존 익숙해진 관찰장비에 의존한 것들)을 일탈하는 시프트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학은 그런 시프트의 결과들을 다시 익숙해진 표현수단으로 되돌려 복귀시키고 있다. 그것을 라투르는 귀환

(shift back in; 한글본에서는 재연동)이라고 표현했다. 근대인은 그런 과학의 귀환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라투르는 혼육되고 길들여진 재생 disciplined and domesticated replaying 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7. 과학에서도 픽션의 요소를 부정할 수 없다. 과학은 원래 픽션의 발견 논리와 discovery 지시의 정당화 논리를 justification 다 같이 갖고 있다고 표현한다면 대체로 그런 표현은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여겨질 듯하다. 과학에서 취급되는 그런 의미의 픽션은 앞서 말한 대로 기초 재료인 질료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형식화의 수준일 것이다.(374)
8. 픽션과 지시는 미학과 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이 결코 아니다. 픽션의 내러티브와 지시의 네러티브를 탈연동의 양식과 귀환(shift back, 재연동)의 양식으로 대비하여 겨우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대비가 그들 사의 객관성과 상상적인 것, 혹은 참과 거짓, 사실의 문제와 아름다움(가치)의 문제 the True and the Beautiful로 대비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라투르는 강조한다.(*252, 374)

픽션과 지시체는 서로 유사하므로 대응론적 형상화가 가능하다는 오해

1. 픽션의 양식과 지시의 양식 사이의 차이가 두 양식 사이의 협력을 낳을 수 있지만 한편 서로간의 오해를 더 늘릴 수도 있다. 혹시 픽션이 만드는 형상화가 지시체를 모방한 형상화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시체와 픽션의 작업이 일대 일 대응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다. 마치 모델과 사본의 모방적 유사성 mimetic resemblance 관계처럼 말이다. 예술에서나 과학에서나 이런 오해는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다. (375)

2. 사실주의 회화가 세계를 묘사한 것이라는 태도는 과학이 서술하는 실제 세계의 원본이 있다는 태도와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태도의 요점은 양쪽 사이의 유사성에 기초하며 둘째 보이지 않는 원본을 형상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있다.
3. 그런 자신감 즉 지시의 연쇄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을 생략하고 마치 객체처럼 여겨지는 마지막 사태를 대응론으로 보는 태도는 근대인이 범하는 결정적인 오류이다.

근대인의 자연주의 오해

1. 픽션 양식이 지시체 양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는 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자연주의이다. 자연주의는 알려진 세계를 모방하여 나름대로 형상화시킨 결과이기는 하지만 대응론으로 형상화시킨 잘못된 미학의 소산물이라고 라투르는 말한다.
2. 자연주의라는 태도에서부터 근대인의 연장실체 관념이 만들어졌다고 라투르는 본다. 그래서 연장실체 관념도 오해의 산물이라고 한다. 픽션과 지시를 결합하는 자연주의 방식의 오해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근대인은 아쉽게도 다 놓치고 말았다. 그 이후 근대인은 외부세계를 직접적인 기호를 통한 표상 즉 “상징적 표상”이라는 안개 속에서 헤쳐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기호에서 탈출하여 의미로 접근하기

1. 그런 오해의 안개에서 탈출하려면 기호를 의미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

는 일이 중요하다. 기호는 무수히 많은 픽션의 변종일 뿐이지 기호가 곧 의미로 될 수 없다.

2.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얹혀있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결, 혹은 기호분석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들의 언어행위와 그런 행위가 벌어지는 사회의 언어관습 등이 얹혀진 형상을 보는 능력이다.
3. 의미는 그 의미를 표상했던 기존의 단일 기호를 분석하는 것으로는 전적으로 부족하다. 기호 사이의 연결, 의미존재가 다른 의미존재 사이에서 벌어지는 변환과 공백과 변신 등의 작은 초월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호화된 주체의 존재 자체를 분석하여 의미를 찾으려는 근대인의 동일자 탐구방식은 폐쇄된 악순환의 고립된 원환이다. 이런 폐쇄에서 탈출하여 타자의 존재의 실타래를 끝까지 찾아나서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일이 바로 초월을 수행하는 행위이다.(376-7)

기호와 상징에 대하여(378)

1. 기호는 픽션 양식이지만 픽션의 장소를 지나치게 과장한 결과다.
2. 기호는 상징이지만 고정된 상징에 가깝다. 원래 상징은 방향과 전치사 양식을 특징으로 하는데, 기호는 그런 방향성과 전치사의 특징을 제거해버린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3. 존재의 자기 내부에서 투명하며 고립된 것만을 지식이라고 규정한 근대인의 물질 관념에 대응하는 것이 기호다.
4. 기호들만의 연결을 통해 하나의 세계, 하나의 체계, 하나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은 픽션 양식의 지나친 유혹에 빠진 결과다.

5. 기호들만의 세계는 물질과 상징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은 그런 이분화의 오류를 낳게 한다는 점을 라투르는 경고한다.
6. 그런 오류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기호화된 언어가 물질 객체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근대인이 받는 큰 유혹의 하나이다. 근대인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언어가 객체에 대응함으로써 진리에 가까워진다는 기호의 진리대응성이라는 추가 유혹에 또 빠진다고 말한다.(379) to give verisimilitude to this artifice of language(*256)

** (영어본 번역 오류) 한글본(379)에서는 잘 되어 있는데, 영어본에서 번역 오류가 하나 있다. le monde et le sens(불어 원본, **263) <---- the word and meaning (영어본, *255) "world"에서 'l'을 실수로 빠트린 것 같다. 사소해보이지만 9장 전체 컨텍스트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 한글 번역서 도움으로 이 오해를 풀었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1.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 벨기에)의 작품(1929)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This is Not a Pipe; “Ceci n'est pas unepipe”)라는 유명한 그림을 예를 들고 있다.
2. 라투르가 인용한 마그리트의 이 작품은 브라이어 파이프라는 그림으로 보여지는 기호가 반드시 해당 브라이어 파이프라는 객체에 대응된다는 기존 관념의 오류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인용된 그림이다.



3. 이 작품의 의미는 이미 미셸 푸코에 의해 인용되었었다. 푸코는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비대칭 혹은 모순을 보여주려는 뜻으로 이 그림을 설명했다.
4. 라투르는 푸코와 약간 다르게 이미지라는 기호가 사물을 고립적으로 상징한다는 생각에 갇히게 되면 이미지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말하는 데 있다. 이미지는 사물에 대응하는 진리 의미가 아니라 사물이 놓여진 환경, 이미지와 작가의 관계 등 타자와의 무수한 관계항들 속에 도사려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5. 타자 속에 거주하는 관계항들을 놓쳐버린 독립된 기호로서 이미지는 없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라투르는 마그리트의 작품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를 활용하고 있다. 라투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상징이 사물을 따라서(후행하여)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선행과 후행이 같이 작용된 것임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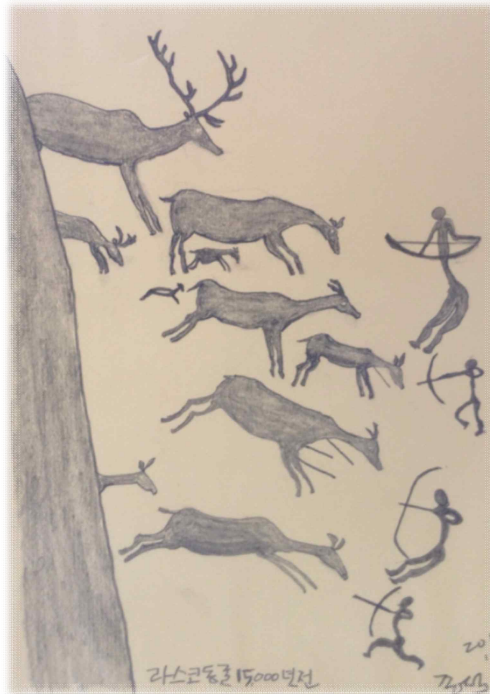
라투르의 제안: 비탈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오를 수 있는 걸기

1. 물질과 상징의 범주오류로 인한 이분화를 비탈길에 오르려다 오히려 뒤로 더 미끄러지는 모습으로 비유했다. 라투르는 미끄러져 역행하는 비탈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제대로 오를 수 있는 걸기를 제안한다.

2. 그 방법은 동일성의 기호에서 절합의 관계맺음을 찾는 데 있다.
3. 기호는 무엇인가를 대신하는 “for something else”가 아니라 단순히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 최소한으로 붙어다니는 “최소 대립쌍” minimal pair의 하나일 뿐이다.(*256)
4. 기호는 관계 경험을 제거한 채 오로지 물질의 대응체로만 오해한 산물이다. 기호는 물질과 대응되지도 의미에 필연적이지도 않으며 단지 자의적 “arbitrary”일 뿐임을 알아차린다.(379)
5. 연기와 불의 관계가 기호와 사물 간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예측불가, 일탈, 변신(변이), 다양성 등의 무한한 차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세계 존재자들은 변이들로 가득한 차이의 세계임을 아는 데 있다. 즉 동일성의 기호에서 벗어나 차이의 의미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6. 언어의 고립이 아니라 세계의 절합을 파악한다. 세계가 기호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경험의 발화와 반복의 절합이라는 the world itself that is articulated 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절합은 관계맺기의 고리들을 의미하는데, 반복의 경험이 절합 없는 고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결국 기호는 언어의 고립으로 빠진다.
7. 절합의 의미를 상실한 기호들의 세계는 근대인들만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세계일 뿐이라는 점을 가이아는 경고하고 있다고 라투르는 말한다.(380-1)
8. 가이아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여 절합시키는 경험의 삶을 수행하는 것이 험난한 비탈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오르는 방법이다.

라투르의 존재양식 10장 해제

라투르 형이상학의 토대로서 습관양식과 제도양식



제도라는 존재양식을 수용하는 법

1. 17세기 이후 데카르트를 흠모하던 근대인은 물질, 과학, 신이라는 연장 실체에 대한 제도화에 적응했을 것이다. 여기서 제도화란 그런 사유방식에 익숙해져서 역사적으로 수용하는 관습으로 되었다는 뜻이다.
2. 마찬가지로 몇 십 년 전 우리들은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유에 대하여 열광했었다. 그런 당시의 분위기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3. 오늘날에는 비판의 방식 이전 제도의 상황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라투르는 말한다.(386) 왜냐하면 각각의 존재양식들은 존재론적 역사를 가지기 때문이다.
4. 존재론적 역사는 목적론적이지 않고, 일방향으로 진보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퇴보만 하는 것도 아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격언처럼 너무 빠르거나 지나치게 너무 앞으로 나가면 과거의 ‘악성 종양’의 모순이 되살아나는 흐름을 안고 있다. 악성 종양이 다른 세포에 가지 퍼지는 증상을 “악성 역전” *malign inversions*이라고 라투르는 표현했다. 제도화의 상태가 지나치게 과하면 결국 그 이전 제도화의 상태만도 못하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악성 역전으로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개별 양식에 부여된 존재론적 역사의 특징이다.(386-7)
5. 이분화의 물질이 실재를 대신하거나 관념화된 추상성이 경험을 대체해 버리는 경우가 악성 역전의 사례이다.
6. 앞선 장에서 더블클릭의 문제점이나 소위 매끄럽고 일관적이라고 자칭하는 연속성의 범주오류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했다. 그런 더블클릭의 존재양식을 단칼에 베어낼 수 없다고 라투르는 실토한다. 오히려 너그러운 태도로 더블클릭의 양식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자고 한다. 그러한 검토의 결과로서 제도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말이다.

객체와 실재는 다르며, 이데아와 존재자도 다르다

1. 사실물 matters of fact이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는 사실들의 객체라는 기존의 관념이다. 라투르는 이런 사실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청한다.
2. 사실의 객체란 객체라기보다 실제로는 관념의 산물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나 근대인은 이런 관념의 허구를 실재 세계로 오판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실재를 인식하는 상징(기호) 발명을 최고의 위대한 성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387)
3. 객체와 실재는 다르다. 객체가 실재라는 익숙해진 생각이 바로 범주오류라고 라투르는 지적하는데, 그런 지적이 이 책에서 자주 부정적으로 역설되는 옥시덴탈리즘의 핵심이다. 이런 범주오류를 벗어나기 위하여 근대인의 존재양식을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라투르는 말한다.
4. 본질론자는 역견doxa를 비난하고, 이데아를 잃은 채 존재를 망각하는 것을 비난하며, 세계를 비합리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비난해 왔다. 본질론은 존재의 망각에서 탈출하여 존재, 이데아,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고 옥시덴탈리스트들은 강조했다.
5. 문제는 그들 자신 즉 본질론자는 존재, 이데아, 본질을 진정한 존재자 beings로 잘못 알았다는 점이다. 본질을 존재자로 등치시킨 그들의 오해가 바로 범주오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행위과정과 전치사 그리고 습관 양식[HAB]

1. 범주오류를 피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범주오류 없이 존재양식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제한된 해당 존재양식 안에서 벗어나 결합의 연결망[NET]안에서 범주오류를 관찰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그것이 행위의 존재양식이고, 라투르는 이를 “행위과정” course of action이라고 표현했다.(391)
2. 행위과정을 통해서 존재양식이 지닌 전치사PREPOSITIONS를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3. 존재양식에 붙은 전치사는 드러나지 않아도 망각될 수 없고 거부될 수도 없다.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은 전치사의 상태를 라투르는 “생략”이라고 표현했다.(391) 망각은 아니지만 전치사가 생략될 수 있는 존재양식의 하나가 바로 습관의 존재양식이다.
4. 습관은 전치사가 생략된 양식이다. 전치사가 생략되어도 그 존재양식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 양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유들이 가능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습관[HAB] 때문이다. 습관의 양식은 존재자의 길과 그 향방을 선택하는 데 일일이 고민하지 않고도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질과 습관, 그리고 기술

1. 불연속성 특징이 숨겨져 있고 생략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연속성으로 보인다는 것이 라투르 형이상학의 대전제이다.
2. 라투르는 자신의 본질 부정론이 존재(실존)가 본질보다 앞선다는 사르트르의 본질 부정론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르트르와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형이상학을 구제하려는 라투르의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

이다.(397) 이 부분은 예민하게 독서해야 한다. 라투르가 사르트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론으로 형이상학을 대체하려는 기존의 독단적 본질론자를 부정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3. 다행히 습관이라는 양식 덕분에 전통적인 불변의 본질주의 철학이 아닌 변화의 본질론 형이상학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라투르의 입장이다.(397) 그렇지만 ‘변화의 본질론’이란 형용 모순이라서 수용하기 쉽지 않다. ‘본질’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4. 라투르에서 초월적 형이상학이 아니라 ethos와 행동학ethology(습관 행동유형과 습관으로 본 자연 본성연구)을 통한 현세주의 혹은 ‘작은 초월’의 형이상학이 가능하다.(397)
5. 라투르 표현대로 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의 철학과 파르메니데스 불변의 철학이 서로에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존재 양태와 일자의 존재형식이 결합된 존재양식과 같다.(397)
6. 형이상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는 신의 존재나 “본질”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책을 읽어나갈 수 있다. 그 이유는 [재생산] 양식이나 [변신]양식 METAMORPHOSIS[MET]에 습관 양식[HAB]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7. 과자공장 컨베이어벨트에서 포장 작업하는 숙련공은 무신경하게 포장 작업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개수에 맞춰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포장하는 일을 거의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사례도 기술양식과 습관 양식의 결합[HAB·TEC]덕분이다.(392)

습관양식에 대한 오해

1. 습관양식은 존재자의 궤적과도 같다. 습관양식에 과몰입하면 중독이나 편향에 빠질 수 있다. 다른 한편 습관양식이 아예 없다면 매번 자기 존재의 길(존재양식의 틀)을 지속적으로 응시해야만 하는 나르키소스의 “자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393)
2. 편향이나 자기 악순환이 아닌 습관양식의 걸보기 모습은 기존 것을 답습하는(궤적을 따라가기만 하는) 경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변신과 공백 혹은 불연속성들이 없을 것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다. 불연속성과 공백이 “초월”이 아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라투르도 이런 우려에 동의한다.(394)

습관양식의 내재성과 불연속성

1. 습관양식은 경로의 내재성이다. 여기서 내재성이란 초월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습관의 내재성은 초월성과 반대되기보다 "타자로서의 존재" Being-as-Other도 궤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은 초월’의 연착륙을 돕게 해주는 특징을 갖는다.(394) 내재는 초월적(큰) 초월과 반대되지만 ‘작은 초월’과 공존한다는 뜻을 안고 있다. 큰 초월은 신격화된 초월, 관념화된 초월 혹은 이념화된 초월에 비유된다면, 작은 초월은 경험으로 접촉가능한 도약의 초월에 비유된다.
2. 습관양식은 연속으로 보이지만 내재적으로 불연속성을 갖는다. 1초당 24장의 불연속 스냅 이미지들을 빠르게 돌려서 연속적으로 보이게 되는 동영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습관양식은 존재의 불연속과 단절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연속의 이미지로 보이게끔 해준다.

3. 라투르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연속성은 무한한 불연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명제를 라투르 전반에서 유추할 수 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런 연속성은 불연속성에서 도약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불연속성에서 한 번 더 도약한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4. 습관양식의 내재된 겉보기 연속성 때문에 존재의 불연속성을 못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습관양식에서 불연속성이 망각되거나 제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잠시 겉보기에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라투르는 “망각”과 “생략”의 의미작용을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395)

습관양식은 전치사를 내포한다.

1. 습관양식은 전치사 양식을 잠시 쉬게 한다. 습관양식은 주어진 상황경로에 잘 적응하여 변화를 감지하여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의 전치사 양식을 잠시 쉬게 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2. 그렇다고 해서 습관양식이 전치사 양식을 완전히 망각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라투르는 강조한다.
3. 전치사 양식은 습관양식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고, 비록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붙어 있어서 변화된 상황을 장악하고 재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프랑스에서 왼쪽 운전 우측 통행을 하다가 영국으로 옮겨 오른쪽 좌측 통행을 하려면 습관양식의 혼돈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곧 다시 전치사 양식이 작동되어 상황변환에 대처할 수 있다.(396)
4. 다른 예를 들어 보자. 기후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권력만을 목표로 정치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 혹은 기업의 이익만을 목표로 경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표가 습관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그들 인

생에서 보이지 않는 전치사로 작용하기 때문에 남의 비판을 무시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하게 대한다. 그들의 습관은 전치사의 도움 없이도 자동적으로 그들 개인의 권력과 이익에 맞춰 작동한다. 그럴 경우 그들의 전치사는 생략되었다고 해도 그들의 습관 양식은 자동적으로 잘 작동된다. 전치사와 습관의 양식을 도덕적으로 전환(번역)해야 한다는 라투르의 말은 이 책 마지막 16장에서 강조된다.

존재자의 주의 기울이기

1. 앞서 말했듯이 습관양식에서 전치사 양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려지고 veiling 생략 omission 되어져 있을 뿐이다.
2. 존재자가 다시 주의를 기울이면 attention 전치사 양식이 드러난다. 그런 주의 기울이기(귀기울이기)는 관계-존재자의 가장 큰 특징이다.
3. 자기독립적이라고 여겨지도록 프로그램된 오토마톤이나 로봇은 그런 주의 기울이기를 할 수 없다.

라투르 습관 양식의 “생략”과 “망각”

생략의 습관양식

- 축복받은 습관이 존재의 불연속성을 더 풍요롭게 한다.
-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절대적 구획은 없다.
- 에피스테메의 절대적 지위를 설정하지 않는다. 독사나 에피스테메의 구획보다 전치사가 어떻게 불느냐를 더 중시한다.
- 행동 수행력을 높이는 습관이다.
- 주의력을 높이는 습관이다. - 반복하지만 매번마다 변화되어 루틴하지 않은 수행이 진짜 습관이다.
- 외부자극에 따라 반응의 변화의 폭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비가시적이지만 습관의 생략은 일탈을 허용한다.
- 습관에 충실하다면 오히려 습관의 변신을 확장할 수 있다.
- 스팸메일같은 전치사없는 doxa를 방지하고 회복하려는 철학이다. 그런 철학이 바로 습관과 전치사의 교차[HAB.PRE]를 생성한다.

망각으로 수용하는 습관양식

- 전치사를 망각함으로써 “습관의 거짓”으로 간다.
- 합리성을 표방하지만 결국 비합리성으로 기운다.
- “습관의 거짓”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doxa(역견)가 있다. 거짓 습관의 doxa는 말과 행동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더 둔감하게 하는 습관이다.
- 형식적이고 루틴한 유형의 습관이다. 기존을 재현하는 반복의 관성inertia이 습관이다.
-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획일적으로 관망하는 루틴에 빠진다.
- 습관의 망각은 존재의 일탈을 포용하지 못한다.
- 습관은 변화될 수 없다는 습관의 결정론에 빠진다.
- IP주소 없는 스팸메일과도 같다. 습관의 망각은 이런 유령같은 스팸으로서 전치사가 없거나 왜곡된 것이다.

라투르 존재양식 10장

실체와 외양의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1. 기존의 존재론은 실체와 외양을 이분화하여 실체만을 존중하고 외양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
2. 외양 이면 혹은 외양 아래 깊은 곳에 “실재”가 있다는 이분화는 실재

로 접근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뿐이다.

3. 외양은 실재의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실재를 파악하게 해주는 열쇠이다.
4. 외양은 실재를 찾아가는 안내표지판 역할을 하지만 그 표지판이 실재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라투르는 말한다.(401)
5. 기존 존재론은 외양을 가짜로 간주하여 실체만이 진리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안내표지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 여부가 더 중시된다고 라투르는 지적한다.(401)
6. 습관은 생존을 위한 양식이며, 생존양식으로서 습관은 외양과 실체의 틀을 현상과 초월로 구분하는 이분법 안으로 가두지 않는다. 오히려 외양은 실체를 파악하는 작은 초월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라투르는 과감히 말한다.(403)
7. 기층substratum으로서 실체, 자기원인자로서 실체substance causa sui라는 자기동일성의 형이상학은 존재 이분화라는 범주오류의 대표적인 모습이다.(403)

지시와 암시 explicit / implicit

1. 지시explicit와 암시implicit를 구분한다면 습관은 암시의 장르일 것이고, 객체를 재현했다고 자부하는 이론이나 함수방정식 같은 형식은 지시의 장르일 것이다.(404)
2. 삶의 형태와 같은 연결망 존재양식은 이론의 지시성 안에 제한되지 않고 실천의 암시성 양식을 기반으로 한다.
3. 이론의 지시성 장르를 포기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한다면

오히려 실천의 암시성 장르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고 라투르는 간접적으로 언급한다.(405) 즉 이론 안에 갇힌 지시성 장르가 아니라 실천가능한 지시성 장르를 포용한다는 뜻이다.

4. 실천가능한 지시성 장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더블클릭의 양식을 습관의 양식으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수동 재시작의 버튼

1. 더블클릭 그 자체가 문제아니라 "습관의 생략"을 놓치고 "습관의 망각"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 진짜 문제다. 이 문제를 인지하여 그런 망각을 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2. 존재자를 자동로봇 정치로 만들거나 거기에 맡길 경우(전적으로 위탁하여) 더블클릭의 위험성이 나타난다. 자동장치는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고장난 자동로봇은 습관의 망각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자동장치에만 존재자를 맡기지 말고 항상 “수동 재시작”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해야 한다. “수동 재시작” 버튼은 습관의 생략 안에 고스란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제도와 습관

1. 기존 제도를 부정하고 일탈하는 비판적 정신이 추앙받아 왔다. 그러나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시스템도 이미 제도 안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2. 제도가 거부되는 이유는 전치사 없는 습관의 거짓 혹은 습관의 망각

때문이다. 그런 습관이 아닌 '축복받는 습관', 즉 반복되지만 결코 루틴하지 않은 행동력의 습관을 통해 제도는 회복될 수 있으며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라투르는 말한다(412)

3. 습관이라는 비계(건축공사 할 때 구조물에 올라가서 이동하기 쉽게 구조물에 덧대어 설치한 복도식 시설물)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를 거꾸로 말해서 '실천 없는 실체', '타자 없는 동일성'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상황에 적응하는 진화론적 제도가 생성된다면 그런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① 여기서 비계라는 표현은 20세기 중반 과학철학자 툴민(Stephen Toulmin, 1922-2009)에 의해 사용된 개념이다. 한 시대의 존재양식과 사유 골격을 이루는 지지기반을 “지적 비계”intellectual scaffoldings라고 툴민은 설명한다. 추정하건데, 라투르가 사용한 비계 개념은 툴민의 비계 개념을 이어 받아왔다. 라투르는 툴민으로부터 영향받았다고 자주 말했다.

② 툴민은 근대인의 비계를 탈출하여 새로운 인문주의 비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툴민의 책 『코스모폴리스: 근대의 숨은 이야기 거리들』(1997) *Cosmopolis: The Hidden Agenda of Modernity*.(1990)에서 전개된다. 툴민의 책 『코스모폴리스』에서 자신의 사상적 선배인 역사학자 콜링우드의 표현 “절대적 대전제”absolute presuppositions를 따와서 사유체계의 받침대 즉 ‘비계’(scaffolding)라고 표현했다. 콜링우드의 역사 대전제란, 예를 들어 과거 역사를 이해하려면 해당되는 과거 시대를 암묵적으로 지배했던 절대 대전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을 갖는 표현이다.

③ 예를 들어 툴민은 자신의 책에서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인의 비계를 (i)심신 이원론, (ii)실체 개념, (iii)법칙의 불변성, (iv)신의 창조물로

서의 자연이라고 말한다. 툴민은 이런 근대인의 비계를 벗어나 인문주의 비계를 복원(르네상스)시키자는 주장을 전개한다.

- ④ 툴민은 이성을 근대적 이성rationality과 인문주의 이성 reasonableness으로 나누어 이성을 파악했다. 대부분의 과학철학자들이 근대적 이성에 몰두하고 있었던 시기에 툴민은 (i) 근대인이 추구했던 확실성의 비계가 범주오류의 전형임을 논증하면서 (ii)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분법을 탈피한 인문주의를 재건하고자 했다. 이런 툴민의 사유방식은 “제도”를 피력하는 라투르의 사유방식과 거의 비슷하다. 즉 근대적 이성으로 구축된 제도가 아니라 인문주의 이성으로 구축된 새로운 무엇을 기대하는 툴민의 생각이 라투르에서 엿보인다는 뜻이다.
4. 제도를 "논쟁의 여지없는 토대" 위에서 구성하려 하지 말자고 라투르는 말한다. 즉 근대인이 말하는 불변의 합리성으로 제도를 구축하려 들지 말자는 뜻이다. 제도의 무게, 두께, 복잡성, 총화, 다양성, 이질성 등이 상대적임을 인정한다면 제도는 우리의 존재양식 안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413)
5. 제도는 해체의 대상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과 혼동하면 안 된다고 라투르는 말한다.(413) 제도 자체가 해체 대상이라기보다 이분화의 오류에 빠진 제도와 그렇지 않은 제도의 차이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라투르의 의도다.

(후기)

10장 결론 부분에서 "후속 세대나 미래 세대나 모두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는 점에서는 다 마찬가지"(415)라고 말한 라투르의 의도는 10장 컨텍스트와 잘 맞지 않지만 되새겨 볼 명제다.

라투르의 존재양식 2부 결론 해제
존재의 지도 - 존재양식의 3 그룹



존재양식의 다양성

1. 1부(1장에서 6장까지)와 2부(7장에서 10장까지)에서 다른 존재양식들은 다양하다. 라투르가 이 책 1부와 2부에서 다른 연결망 양식[NET], 재생산 양식 [PRE], 더블클릭 양식 [DC], 지시 양식[REP], 변신 양식 [MET], 습관 양식 [HAB], 기술 양식 [TEC], 픽션 양식 [FIC], 정치 양식[POL], 법 양식 [LAW], 종교 양식 [REL]의 다원주의는 크게 보아 존재의 지도와 지도를 읽는 법으로 나뉘 볼 수 있다.
2. 존재의 지도는 3 가지 그룹으로 배열되는데, 이분화를 통합한 불연속의 그룹 [REP], [MET], [HAB]을 제 1 그룹으로, 객체는 절대 아니지만 객체스러운 [TEC], [FIC], [REF]의 준객체를 제 2그룹으로, 또한 주체가 결코 아니지만 주체스러운 [POL], [LAW], [REL]의 준주체를 제3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런 그룹이 배열된 지도를 읽는 방법과 같은 [NET], [PRE], [DC]들을 메타-존재양식의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제 1 그룹 [REP], [MET], [HAB] 존재양식의 공통점

먼저 이분화를 통합한 불연속의 제1그룹인 재생산 양식 [REP], 변신 양식 [MET], 습관 양식 [HAB] 3 가지 존재양식의 공통점을 보기로 하자.

1. 타자로서의 존재를 탐구하는 통로이다.
2. (i)지속성을 가지며 (ii)변형을 확대하며 (iii)타 존재에 관통하는 3가지 방법이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3. 객체 범주와 주체 범주의 구획을 강요하는 근대인의 관성에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의미SENS와 방향DIRECTION을 갖는다는 점에서 [재생산], [변신], [습관] 3 종 존재양식은 공통적이다.
4. 외부세계를 복제하여 재현하는 동일성 존재자가 아니라 전치사와 궤적 Trajectory 을 통해 의미와 방향을 지속한다.
5. 이 3 가지 존재양식은 개체와 개체를 연결하는 절합articulation을 중시한다. 절합으로 접속된 존재양식은 속으로는 불연속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연속성일 뿐이다. 즉 자기 내면 심연에 불연속성을 배태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 절합의 연속성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6. 지구인(사람들)과 만나는 특정한 '통로'를 가지고 있다. 지구인이 타자로 향하는(투사하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타자가 지구인으로 행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즉 양방향 소통의 통로를 가는다는 점에서 위의 3 존재양식은 공통적이다.

제 2 그룹, 준객체

객체는 절대 아니지만 객체스러운 기술 양식 [TEC], 픽션 양식 [FIC], 지시 양식[REF]의 존재양식들을 준객체 그룹이라고 라투르는 방편적으로 나눈다. 2부 전반에서 충분히 논의했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기술 존재양식[TEC] 은 '제조된' 것으로서 존재양식이며 누가 제조했는가는 따질 필요 없다. 즉 인간의 공작물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인간 생성물 혹은 인간 장치-발명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2. 픽션 존재양식[FIC]은 '파견된' 것으로서 존재양식이며 원래 '무엇무엇에' 에 대체할 수 있는 객체적 성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존재양식이다. 예술작품이나 형상화의 결과들이 픽션 존재양식에 해당한다.
3. 지시 양식[REF]은 '알려진' 것으로서 존재양식이며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데, 그것 자체로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지만 항상 재생산과 결합될 수 있다.

제 3 그룹, 준주체

주체가 결코 아니지만 주체스러운 정치 양식[POL], 법 양식[LAW], 종교 양식 [REL]의 존재양식이 준주체 그룹(제 3 그룹)으로 분류된다. 1부에서 자주 다루었다.

1. 정치 존재양식 [POL]은 순환궤도인 [원]의 양식으로 드러난다. 집단화의 특성이 나타나며, 준객체 연결망 속에서 비로소 긍정될 수 있다.
2. 법 존재양식[LAW]은 사건 자체와 사건을 다루는 법(법원)이라는 텍스

트의 제한을 벗어나 판결에 작용하는 텍스트 밖에 서성이는 변신과 불연속의 컨텍스트와 연결됨으로써 긍정될 수 있다.

3. 종교 존재양식[REL]도 예배 공간만이 아닌 다원주의 공간에서 시간의 초월을 다룰 수 있다.

[REP], [MET], [HAB] 그룹과 힘의 선 그리고 계보

1. 재생산, 변신 그리고 습관의 존재양식은 힘의 선과 계보를 중시한다.
2. 재생산 양식에서 존재의 공백과 불균형이 오히려 생명 계보의 특징이다. 생명활동을 언어로 설명하는 규정된 방식은 없지만, 공백처럼 보이는 재생산 양식 안에 지속이 있고, 그 지속은 발화 활동enunciation을 포함한다. 자신을 발화시키는 작용이 힘의 선LINES OF FORCE이다.
3. 힘의 선은 생물학으로 보면 진화의 동력(진화력)이고, 물리학으로 보면 마치 에너지와 같다. 생물학으로 본 진화의 동력을 라투르는 생명체의 계보LINEAGES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계보는 생물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생명체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 적용된다.
4. 계보와 힘의 선이 사물에 적용되는 방식은 우연과 필연의 오묘한 연결에 의해 드러난다. 계보는 전통 형이상학의 필연적 동일성의 실체가 아니라 우연성으로 엮어지는 (이상한) 로고스에 해당한다. 이는 전통 로고스 존재론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전통 철학에서 로고스와 우연성은 서로에게 모순관계이기 때문이다. 반면 라투르가 말하는 로고스는 언어에 의해 직조된 관념이 아니라 공백과 불연속 같은 존재의 경험을 통해 파악된다. 그래서 그는 로고스의 존재자를 필연성의 동일성 존재자와 다른 차원의 존재로 간주한 것 같다.

변신의 존재자

1. 계보를 거치면서 변신의 존재자는 (i)객체주의에 빠지지 않는 객관성을 유지하며 (ii)항상 다른 방식으로 잉태되는 다산성을 낳으며 (iii)확일화시킬 수 없는 비가시성을 보여주는 존재론적 존엄성을 갖는다고 라투르는 표현한다.
2. 경험세계에서 볼 때 지질학적 변동이나 변이의 진화들이 바로 변신의 존재자 특징을 잘 드러내 준다.

주체/객체 분화에서 연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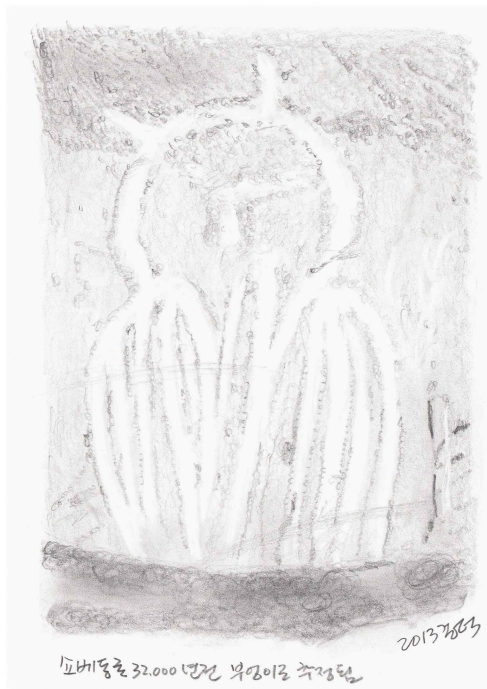
1. 객체/주체의 대립과 모순은 두 개념을 처음부터 별개의 존재론적 범주로 설정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428)
2. 존재자는 객체/주체로 구획되기보다 객체 중심의 방향에서 본 존재자와 주체 중심의 방향에서 본 존재자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3. 자연도 처음부터 객체/주체로 이분화된 것이 아니다.(429) 자연과 문화는 대립된 이분화가 아니다. 실재와 문화 역시 대립된 이분화가 될 수 없다. 자연은 문화를 낳았고 문화는 자연으로부터 창설instaurated됨으로써 쌍방 연결망의 관계다.(430)
4. 마찬가지로 근대인의 지식의 지위도 상대적이고 과정적일 뿐이다.(430)

2부에서 3부로

3부(11장에서 16장까지)에서는 주체스러운 준주체 그룹과 객체스러운 준객체 그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해명한다.

라투르의 존재양식 11장 해제

종교철학



집합체로서 종교

1. 집합체collective란 문화, 사회, 문명 대신에 사용되는 용어라고 라투르는 정의한다.(435)연결망[NET]은 존재들의 결합association을 통해 이뤄진다. 행위자 연결망이론ANT에서 "사회적"이라는 뜻은 다양한 존재양식들이 잘 직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식들의 연쇄를 의미하며 이것이 집합체의 사례이다.(436) 예를 들어 종교, 정치, 법, 경제의 양식들은 집합체이다. 존재양식에서는 "사회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회의 개념은 근대인의 산물로 간주된다.
2. 종교도 집합체의 하나이다. 종교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세심하고 가장 널리 퍼져있고 가장 까다로운 제도이다.(438) 제도화된 종교는 서구사회에서 정치, 도덕, 예술, 우주, 법, 경제 구조에서 가장 깊은 기저를 갖고, 그 위에서 가장 큰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3. 종교의 막강한 지배적 영향력은 집단의 폐쇄성 안에서 되었지만 거꾸로 자신을 타자화하지 못하고 자기동일성의 폐쇄성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세속적 종교인보다 직업적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 제도를 더 무너뜨렸다고 강조한 라투르의 표현이 이 점을 잘 말해준다.(438)

종교적인 것의 귀환 - 종교의 내재성과 초월성

1. 라투르에서 종교의 중요한 특징은 초월성transcendence이 아니라 내재성immanence이다. 이 점은 기존 신학에서 말하는 종교 관념과 전혀 다르다.
2. 종교를 초월성으로 포장한 것이 근대인이 새로 만든 종교이며, 거꾸로 근대인이 종교를 스스로 무너뜨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라투르는 말한다. 종교의 초월성은 지나친 이분화의 결과일 뿐이다.

3. 오늘의 종교, 즉 근대인의 종교는 잘못된 초월성에 빠져있고 초자연성을 마치 자연성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념적으로는 초자연성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자연적이라는 것이 라투르의 날카로운 지적이다.(439)
4. “영성”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물질성” 안에 갇혀있다고 한다. 천국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유물론이나 오도된 합리주의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439)
5. 종교는 오히려 “부동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지고의 것, 이상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숭앙하는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440)
6. 지금까지 언급된 잘못된 초월성, 절대적 부동자등의 근본주의가 득세하는 것을 라투르는 “종교적인 것의 귀환”이라고 표현했다.

“자아”에 대한 근대인의 오해

1. 자아는 스스로 충만하고 완전한 자율적인 무엇을 추구한다고 근대인은 오해하고 있다. 종교를 초월성으로 오해한 근대인은 마찬가지로 자아를 초월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아로부터 변신의 존재양식을 제거했다.
2. 이런 자아의 소유자는 자신을 변신[MET]의 양식으로 확장시킬 수 없다.(442)
3. 변신[MET] 존재양식을 포용하지 못하는 동일성의 자아는 스스로 정신을 생산하는 존재자로 나아가지 못한다.(442)
4. 거꾸로 말해서 변신 양식을 포용하는 자아는 “정신을 생산하는” 존재자로서 자아가 될 수 있다. 정신을 생산하고 갱신하는 존재자로서 자아

는 대상화된 객체에서 연합된 객체로 발전한다.(442)

진짜 종교는 초월성이 아니라 사랑의 친밀감이라는 존재양식을 따른다. 여기서 사랑의 친밀감이란 다음과 같다.

1. 통일된 인격적 개인들을 하나로 묶는 변신 양식의 행동의 하나가 “말 건네기”이다. 사랑은 인격적 개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말 건네기’이다.
2. “말 건네기”에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은 인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관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444)
3. 사랑은 우리가 존재하고 서로 친근하여 통일되고 온전하다는 확신감(자신감)을 준다.(444)
4. 사랑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변신되는 특성이 있다.
5. 사랑의 언어는 종교의 계시에 비유될 수 있다. 천사는 계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자로 이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일으킨 영혼의 격동을 전달하는 존재자라고 라투르는 사랑을 강조한다.(445)
6. 사랑의 “말 건네기”는 기능적이고 가시적이고 계량적인 접근태도인 근대인의 더블클릭[DC]으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다. 앞 장에서 논의했듯이 더블클릭의 존재양식을 수행하는 “사악한 천재”는 사랑의 전달자인 성모마리아나 가브리엘 천사의 뜻을 알 수 없다.
7. 사랑의 전달자로서 천사는 [DC]로 해명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역설적으로 천사의 존재양식은 제도화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천사라는 영식 대신에 다른 전달방식의 양식을 찾아보아야 한다.

[DC]로 정의할 수 없는 사람의 존재자는 가시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느 누구나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상호작용의 보물이다.

돌봄, 구원에 대하여

1. 지시[REF]양식의 지식이나 더블클릭[DC]으로는 사람의 내부성이나 주체성을 접근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을 치유하거나 죄에서 구원받고자 교회 등의 성소sanctuary를 찾아가지만, 사람의 내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치유와 구원도 형식적 제도에 그칠 수 있다. 구원을 희망하려면 성소같은 “외부자” 존재 이상으로 돌봄의 내부성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2. 신학적 지식에 의존하거나 성소에 가서 외부화된 천사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더블클릭] 한 방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라투르는 말한다.(447) 종교의 진짜 존재양식과 기독교 신학은 다르다는 뜻이다.
3. 구원을 향한 진짜 방편은 사랑과 돌봄이다. 물론 이러한 존재양식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 비난의 요점은 사랑과 돌봄의 정신 양식이 세속적일 뿐 종교의 신성함으로 될 수 없고 겨우 감상적 위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다. 그러나 그런 비난에 움찔거리거나 머뭇거리지 않아도 된다고 라투르는 강한 어조로 말한다.(448)

종교의 말들

1. 종교는 탁월한 말들, 즉 계몽(깨우침)이라는 말들의 반복이며 그런 말의 갱신이다.

2. 종교 양식에서 말은 그 자체로 불연속성과 공백을 포함한다. 말과 대비되는 로고스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실체로서 연속성의 존재양식이다. 종교는 로고스를 닮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들의 반복체라고 라투르는 해명한다.(450)
3. 종교를 합리주의라는 명분을 갖는 [더블클릭]으로 혹은 이성의 로고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점 때문에 종교가 비합리주의 혹은 신비주의로 오해받기도 한다. 종교 존재자를 합리주의로 간주하는 시도를 양식good sens라고 옹호했던 근대의 “사회적” 접근방식은 인간본성의 원형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데서 나온 판단이다.
4. 종교를 말들의 반복체라고 했지만 바로 그 말이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소생시키고 구원하는 존재자들을 가져다준다. 그것이 종교 존재자의 실체이며,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내재된 동력이 바로 종교의 방향과 의미이다.direction/sens (452)
5. 종교에서 이뤄지는 말들의 반복은 성직자나 신비주의자들이 수행할 때 신자로 하여금 영혼을 격동시키는 힘을 더 커지게 한다. 이것이 종교 [REL]양식만이 갖는 특별한 사양specification이다. 성직자, 신비주의자, 천사와 같은 영혼의 전달자는 종교라는 정신의 전달자가 열어 놓은 길을 간다.(452)
6. 종교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강한 목적의식으로 회심conversion을 요구한다.
7. 신비주의자나 신자 등 종교양식을 가능하게 한 정신의 전달자는 성인이나 신부 등 다양한 변이의 경험 상태들을 창설한다. 종교양식[REL]이 곧 기적이나 초월적 신성이 없어도 사랑의 영혼을 주고받게끔 하는 변신 양식 [MET]은 아니지만, 그런 변신 양식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

다. 실제로 그런 지향이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어도 말이다.

8. 종교는 신성divinities이라는 이름으로 신Gods의 구원을 선포한다. 그런 신성의 종교는 초자연적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소생시킨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비합리주의의 선포가 절대적 신성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결국 합리적이라고 근대인은 자찬한다.
9. “신”이라는 단어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로고스로 가는 길이라고 근대인은 생각했다. 신이 로고스이어야만 신의 실재가 보장되기 때문이었다. 이로부터 로고스와 사랑이 분리되는 이분화의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다.
10. 종교에서 말의 음조(톤)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교와 강론에서 튀어 나오는 말들도 사람들을 회심시키지 못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한다.
11. 근본주의로 전이된 종교 존재양식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의 틈새가 너무 크다.(456)
12. 성경은 근대인의 더블클릭 [DC]이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이해 그리고 새로운 수정과 방향을 담고 있어서 고정된 형태로 포착되지 않는다. 성경은 처음부터 틀에 박힌 복음 GOOD News을 제공하지 않았다. 주어진 정보가 없고 만들어지는 해석만이 가능하다는 점이 종교 존재양식의 특징이다.

종교의 엄폐성 - 종교가 변신 양식이 아닌 이유

1. 종교 존재양식도 변신의 존재양식처럼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엄폐”하는 유형이다. 엄폐하지만 곳곳에 세워진 “성지”들을 흔적으로 남긴다. 그 흔적은 남아도 종교적 존재자는 사라지기도 한다. 종교적 존

재자가 처음 나타날 때도 그러했지만 사라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우연에 속한다.(453) 이런 점에서 종교 존재양식과 변신의 존재양식은 다르다고 라투르는 말한다.(454)

2. 종교 존재양식이 변신 존재양식과 다른 차이가 있는데, 종교의 회심 conversion능력에서 회심의 주체(회심을 주관하는 주도권 존재)와 회심을 당하는 피주체가 구분된다는 점이다. 회심의 주체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려는 분명한 목표를 갖는다.(454) 반면 변신의 존재자들에서 주도권은 일방적이지 않다.

종교적 광신주의의 뿌리

1. 종교는 종말의 약속 혹은 “영원”과 “영생”을 목표로 하면서 시간을 초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적인 (풍부하고 결정적인) 무엇을 추구한다.
2. 종교는 그런 모순을 모순이라고 하지 않고 “갱신”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초시간적 “성”과 시간적인 “육신”이 만나서 성육신Incarnation을 이뤄내는 종교의 정교화 산물이 있다.(458) 그런 산물은 실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체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정교화라고 했다.
3. 이러한 갱신이 종교의 특유한 변이 양식이다. 연속성의 "성스러움"이 불연속성의 "육신"으로 체현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거꾸로 불연속의 육신이 연속의 "성스러움"으로 둔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라투르는 "함정"이라고 표현했다.(459)
4. 종교 존재양식의 길 잃은 연약함, 현세의 불연속성을 내세의 연속성으로 둔갑하게 된다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분노를 갖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위대한 신학, 헌신적인 생명, 대단한 의례(예배), 감동의

교리, 이런 모든 것들이 허튼 소리로 되고 오히려 갈등과 분쟁의 명분으로 바뀔 수 있다.(459-460)

5. 종교 텍스트를 해석하는 주석들 사이의 상대주의적 갈등이 종교의 한 특징이다.(460) 거꾸로 말해서 타자의 해석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해석을 절대적이라고 하는 입장이 곧 종교 광신주의이다.

과학의 이분화를 답습하는 종교의 범주오류

1. 삶과 죽음, 구원과 저주, 시간의 현재와 종말, 현존의 위기와 미래의 충만성처럼 본질의 이분화 안으로 종교가 빠져 있다면 정신과 물질, 영혼과 신체, 실재와 현상 등의 이분화에 빠진 근대인의 과학의 범주오류와 다를 바 없다고 라투르는 말한다.(460-1)
2. 근대인의 신학은 종교 양식의 신을 실체화시킴으로써 일신교만을 보존하게 했다. 이런 실체의 형상화는 범주오류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종교 양식에서 신은 연속성과 불연속성, 반복과 차이, 전통과 신생, 생존과 갱신, 일신과 다신, 초월과 내재를 이분화시키는 범주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라투르는 강하게 말한다.(462)
3. 라투르는 "신"에 대하여 특별한 특권이 주어져서는 안 되고 다른 존재자들을 넘어서 위치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신이 다른 존재자들을 심판할 수 없다는 라투르의 태도는 종교적 존재양식의 다원성을 역설한 것이다.(463)
4. 이런 특징은 종교와의 연결망 양식의 기본이다. 예를 들어보자. 신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지나친 특권을 누리고 심판을 행사한다. 종교양식의 다른 많은 존재양식을 포획하여 자기 안에 종속시키는 것은 타자 존재의 독립성(헤게모니)과 존재양식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일이다.(463)

5. 종교도 다양한 존재양식들의 한 부분일 뿐이지 세계 전체일 수 없다는 라투르의 태도는 매우 설득력 있게 전개된다.(464) 종교가 다른 존재의 빈칸을 채우면서 우리는 다른 여타의 존재양식을 잃게 된다.(464) 종교가 권력이라는 자기동일성 맥락에 빠지면서 다른 모든 실재를 정복해도 된다는 자기 오류를 갖게 된다.
6. 종교는 타자를 포용하지 못하고 타자와의 갈등과 투쟁인 “대조”contrast를 간직하면서,(대조 개념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한다) 타자와의 조화와 연합을 해주는 “교차”의 연결망에 들지 못했다.
7. 근대인이 대조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파악했듯이 종교도 이분법의 대조에 머물고 있다고 라투르는 판단한다. 이렇게 과학과 종교에서 드러난 근대적 이분법의 오류를 라투르는 “근대주의의 비극”modernist tragedy이라고 표현한다.(471)
8. 이분화의 오류에 노출된 종교는 합리화rationalization를 통해서 신을 실체화한다. 이런 합리화는 종교 자신을 [더블클릭]에 위임하는 것과 같은 오류다. 그럼으로써 종교는 변신 양식과 멀어지고 오로지 더블클릭 양식에 종속된다. 합리화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합리적인 것the rational일 수 없다. 라투르는 합리화rationalization와 합리적인 것the rational을 구분한다.
9. 합리적인 것으로서의 종교를 되찾으려면 “실체적인 것”something substantive 혹은 “멀리 있는 존재”remote beings가 단순히 논리적으로 파생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469) 여기서 “멀리 있는 존재”란 신격화된 초월적 존재 혹은 이데아로 승격된 초험적 존재를 의미한다.
10. 그런 실체는 자연 "너머에" beyond nature 초자연적 무엇을 설정하

는데, 그런 설정을 하는 순간 종교는 이미 이 땅에서 지금 바로 여기라는 현존성을 저버리게 된다. 라투르는 시종일관 종교는 반드시 저 너머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바로 지금 여기의 이웃의 문제를 체현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종교를 지나치게 저 너머 세상의 실체로 환원시킨 근대인의 종교를 범주오류라고 라투르는 판단한다.

11. 다시 말해서 라투르 종교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너머가 아닌 바로 여기 이웃의 목소리를 듣는 access to one's neighbors종교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472, *322)

참고: 대조contrast란 무엇인가?

1. 날 것과 요리된 것, 자연과 문화, 말과 사물, 신성한 것과 불경한 것, 실재적인 것과 구성된 것,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야만적인 것과 문명화된 것, 그리고 근대와 비근대의 이원론은 대조된 것을 구획하는 데서 시작된 발상이다.(5장; 222)
2. 대조가 교차로 전환하지 못한 근대인은 타자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는데 매우 서투른 자기동일성이라는 감옥에 빠진다.
3. 다시 말해서 대조가 이분법의 오류로 빠질 수 있고 다른 편으로 교차의 연결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대인의 대조는 대체로 이분법의 오류였지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명하다.

참고: (6장에서 논의했던) 믿음의 양식

1. 믿음의 종교양식은 진리의 존재양식과 대비되는 존재자이지만, 믿음이

라는 양식도 [전치사] 존재양식에 해당한다.(258, 6장)

2. 믿음의 대상이 다를 경우, 믿음의 종교양식의 개별자는 서로를 비난하게 된다.
3. 믿음의 종교 양식은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한다. 하나는 [더블클릭]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믿음과 진리가 상충된다는 점이다.(6장: 256)

근대인의 존재론적 탈선, 그들만의 양식good sense에서 상식common sense으로

1. 이웃에 눈을 돌리지 않고 관념론적인 저 너머 먼 실체를 신으로만 모셨다는 점에서 라투르는 이를 존재론적 탈선ontological skid이라고 표현했다. 과학의 탐구영역을 오로지 물질로 환원시키기 용이한 가까운 “땅”으로 한정했고, 한편 종교의 믿음 영역을 오로지 도달하지도 못하여 저 너머 먼 “하늘”로 한정된 땅과 하늘의 이분법은 근대인의 존재론적 탈선이다.(472)
2. 과학을 물질로, 종교를 영적인 것으로 이분화 시키기, 과학을 지상의 지식으로 종교를 천상의 지식으로 이분화 시키기 등이 존재론적 탈선에 해당한다. 근대인은 그런 탈선을 눈치 채지 못한 채 과학과 종교를 접근하는 그들만의 오도된 태도를 양식good sense이라는 자부심으로 숨겨왔다.
3. 이제 과학으로 하여금 환원시키기 좋은 가까운데서 탈피하여 더 먼 곳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종교로 하여금 관념으로 둔갑한 천상의 실체에서 탈피하여 가까운 이웃을 돌보는 시선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근대인이 가졌던 합리화된 그들만의 양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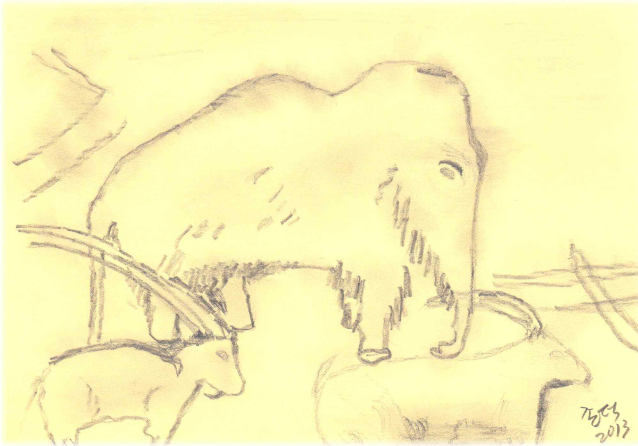
멈추고 진짜 합리적인 상식common sense을 재발견해야 한다고 라투르는 강조한다.(473)

지구인의 종교와 과학

1. “하늘”과 “땅”, 혹은 ‘저 너머 먼 곳’과 ‘이웃’을 이분법적으로 구획하는 근대인의 “견고한 양식”이 아니라 멀리 있는 타자를 보는 시선과 이웃에 있는 타자를 보는 시선을 그때마다 적절하게 찾아가는 연결된 상식을 되찾자는 뜻이다.(473)
2. 초월성의 종교가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내재성의 종교 그리고 폐쇄된 객관성의 과학이 아니라 개방된 객관성과 확장된 합리성 그리고 생태주의를 포용하는 과학을 실천하는 지구인으로 재생하자고 라투르는 역설한다.(475)

라투르의 존재양식 12장 해제

정치철학



정치 양식은 앞 장에서 말한 종교양식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1. 자신의 음조(톤)로 발화하듯 말하는 방식이 있다는 점에서 종교양식과 같다.
2. 자신의 KEY로 다른 양식들을 해석하려 한다.
3. 준주체Quasi Subject를 생산한다.

정치 양식의 대조 - 증용의 정치를 위하여

1. 정치는 제도intuition나 그 영역에서 대조contrast의 성질들이 서로에게 겹쳐 있는 모습을 보인다.(481) 그 사례로서 정치 양식은 자유언론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2. 정치적 자율성, 법치주의, 대의 정부, 시민적 자유가 정치양식의 최고선 목록이다.(482) 이런 점에서 정치 양식에서 근대인의 기여는 인정될 수 있다.
3. 정치는 참과 거짓이라는 진리명제에 제한된 집합체는 아니다.(483)
4. 민주주의는 지식이 아니라 습관 양식의 산물이다. 지식만으로는 정치적 "자유"의 섬세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없다.(485) 민주주의의 습관 양식 [HAB]이 중요하다.
5. 정치가 감성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편협하고 군주적인 비합리성 권력에 빠지게 할 수 없다. 이성을 통한 합리적 보편성의 이상주의 이상으로 감성에 몰입된 정치 권력 역시 더 심각한 많은 오류를 낳는다.(485) 그런데 근대인은 이러한 정치적 이성을 말끔하게 만들기 위하여 직선의 언어를 통해 정치를 심리학이나 경제학과 같은 과학으로 환원시키기를 원했다.

6. 정치 양식은 이런 양단의 갈등 속에서 감성적이지만 비합리적이어서는 안 되고 이성적이지만 합리화의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대조를 안고 있다. 정치양식은 이 둘의 대조를 “직선적이지” 않은 (배중율이 아닌 혹은 더블클릭이 아닌) 화법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라투르는 말한다.

더블클릭으로 정치 양식을 누르면 결국 대표성의 위기가 생긴다.

1. 정치를 직선의 화법으로 만든 것이 더블클릭의 양식[DC]이다. 여기서 [DC]는 정치적 이성의 로고스를 구현하려는 의도처럼 여겨진다. 이런 의도는 정체에서 불투명성 the opacity을 줄이고 대표성 the representations을 늘리려는 데 있을 것이다.
2. 정치를 로고스로 접근한다면 거짓말의 정치 쇼만 보이고 정치의 불투명성이 증가된다. 예를 들어 정치적 대표자 혹은 의회 정치인의 구실과 같은 정치의 대표성은 오히려 점점 축소하게 된다.(487) 라투르는 이를 대표성의 위기crisis of representation라고 표현했다.
3. 대표성의 위기란 정치인과 대중들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정치 엘리트와 군중이 유리된 상태다. 이런 상태는 과학으로 위장된 그들만의 왕국 My Kingdom for a Science으로 상징된다고 한다.(488, *334)
4. 정치는 처음부터 진리성 명제의 집합체가 아니었다. 라투르는 정치를 그 탄생에서부터 진리성과 합리성의 범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치에서 합리적 대표성 자체를 절대 기준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서 합리성의 기준은 일반 철학적 개념과 다르지만 말이다. 쉽게 말해서 근대인이 만든 인공적 합리성의 기준으로 정치를 보아서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 한편 사람들은 정치에 대하여 대표성과 투명성 그리고 과학의 이상과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근대인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희망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라투르의 주장이다. 물고기에게 자전거가 필요 없듯이 여자에게 남자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스타이넘(Gloria Marie Steinem, 1934~)의 슬로건을 그대로 인용하여 라투르는 근대인이 만든 하나의 정치적 인공물an artifact을 실재로 착각하는 것이 바로 대표성의 위기라고 한다.(489; *335)

6. 정치에 대한 희망과 이상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정치를 대하는 대중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 크게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 역시 대표성의 위기라고 말한다.
7. 정치양식에서 대표성 위기는 실제로 종교 존재양식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라투르는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종교에서의 위기 상황의 토대가 정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정치와 종교의 교차[POL·REL]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혼합은 자주 있었다. 그런 정치 종교의 혼합은 최악의 정치신학을 낳았다. 오늘의 한국정치에서 불 때 교회나 절에서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 하려는 오도된 종교 권력들이 횡행하게 된 이유이다.(516)

정치 비이성에 대한 지나친 과장평가도 경계해야 한다

1. 객관화와 과학화라는 명분으로 정치를 도려낸다면 그 순간 정치는 박제화plastination된다. 정치가 정보, 과학, 경영, 권력의 도구로 박제화될 경우 정치의 민주주의도 멀어진다고 라투르는 강조한다.(489)
2. 정치는 진실과 거짓의 명제 체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권력 투쟁의 문제라는 점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합리성의 양식이 아니라 위선, 거짓, 기술, 권력투쟁, 폭력이 삶의 형식으로 자리잡은 비이성의 양식이

라는 점에서 정치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3. 이런 논의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철학이 마키아벨리즘이다. 우리는 마키아벨리즘의 유혹에 들어 정치에서 합리성을 포기해도 좋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착각은 비이성이 과대평가된 결과이다. 비이성의 정치양식이 중요하지만 정치양식이 비이성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라투르는 강조한다.

객체-지향 정치와 코스모폴리틱스

1. 정치는 항상 객체-지향적object-oriented이다.(492) 정치제도는 사실의 문제로부터 관심의 문제로 변이되었다.
2. 객체-지향성이란 정치제도에서 주변의 사물들은 구부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있어서 구부러진(휘어진) 정체제도가 생겼다는 뜻이다.(493) 그래서 항상 사물 중심으로 정치를 다루어야 한다. 정확히 말해서 인간만이 아닌 사물도 정치 양식의 행위자로 될 수 있다는 뜻이다.
3.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의 공동 세계를 라투르는 코스모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라투르의 정치철학을 코스모폴리틱스라고 한다. 코스모폴리틱스 개념은 이 책에서 다루지고 있지 않지만 그의 코스모폴리틱스 정치철학은 객체-지향 정치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라투르의 코스모폴리틱scosmopolitics는 라투르 자신이 밝혔듯이 과학철학자 툴민(Stephen Toulmin, 1922-2009)의 저서 『코스모폴리스』 cosmopolis(1990)에서 따온 것이다. 툴민에서 코스모폴리스는 자연세계를 지시하는 코스모스와 사회세계를 지시하는 폴리스의 합성어다. 즉

자연과 사회, 자연과 인간의 통일된 연결망oneness으로서 정치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연은 문화적인 것과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 역시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스모폴리스』 해설을 필자 홈페이지 아래 주소로 올려놓았다.

https://philonatu.com/review/review_view.php?id=783

5. 툴민에서 객관은 주관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으며 나아가 인간의 이성도 절대 객관적 도구일 수 없다고 한다. 이성과 감정, 남성과 여성의 지배적 이분법, 자연과 인간, 엘리트와 대중, 통일권력과 다중성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난 것이 진정한 이성resonableness이라고 툴민은 말한다. 툴민의 이성은 데카르트의 이성rationality와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툴민 1997, 147) 이 점에서 툴민의 철학구도와 라투르의 정치 양식은 상당히 비슷하다.
6. 라투르 자신이 고백했듯이 툴민의 철학이 라투르에 큰 영향을 주었다. (퀸른대학 2015년 특강 Politics and Religion:
https://youtu.be/jgyrnechWWMg?si=aQ7vGrObxDXhr5_E)
7. 아인슈타인 중력이론처럼 절대공간이 먼저 있어서 그 공간 안에 들어온 사물(행성들)이 중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물(행성)이 먼저 있어서 사물의 질량이 중력을 받아 휘어진 공간을 생성하는 이론과 같다.
8. 이러한 객체지향적 정치object-oriented politics는 사물 혹은 이슈가 먼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정치양식이 존재한다는 뜻이다.(*337)
9. 라투르는 중력 물리학의 비유에 맞춰서 정치는 고정된 사실들fact을 직선적으로 해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관심concern들을 구부러진 어법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라고 한다.(493)

10. 획일화된 정제제도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물에 따라(다양한 이슈나 쟁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객체-지향되는 정치 제도의 변형이 있을 뿐이다.

(객체-지향 용어에 대한 참고 사항)

1. 라투르는 객체-지향이라는 표현을 정보과학에서 따왔다고 밝혔지만, 객체지향을 설명하는 방식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아이디어를 따르고 있다.(493)
2. 한편 라투르의 해설서를 출판하면서 객체지향 존재론을 정립한 하먼(Graham Harman)이 말하기를 객체-지향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정보과학에서 함수와 상속(이어받기) 개념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Harman 2017)

정치의 우리와 그들

1. 정치는 “우리”와 “그들”의 전선을 만든다. ‘우리’를 통해 다수 multitude를 하나unity로 바꾸려 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에서 다수로 바꾸기도 한다.(494) 정치는 ‘우리’에서 응집되고 ‘그들’에서 분산된다.
2. ‘우리’를 통해 다수를 하나로 만들지만 하나에 회집되지 않은 타자를 ‘우리’ 바깥에 ‘그들’로 남겨둠으로써 하나를 다시 다수로 변화시킨다.(500)
3. 다수에서 하나로, 하나에서 다수로 변화하는 과정을 라투르는 번역/배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다중의 고통과 불만이 생긴다고 말한다.(498)

4. ‘우리’의 확장을 낳을 수도 있다. 반면 그렇게 확장된 회집은 배신의 반복을 통해서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또 다시 역전되어 축소될 수 있다.(500) 그리고 계속 또 다시 갱신의 반복을 통하여 타자를 포함(포용)한다면 회집은 다시 확대된다.

정치와 원circle의 양식

1. 5장에서 <원>의 양식에 대하여 논의했듯이, 정치의 <원>의 양식은 실체로서 생존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의 생존을 추구함으로써만 생존가능하다.(499)
2. <원>은 매번 반복되지만 반복될 때마다 매번 새로 시작하는 것과 같다. 불행하게도 정치 존재자는 새로움 없이 박제된 반복행위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바로 <원>이 실제화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3. 우리의 최선은 <원>의 정치적 존재자들을 갱신의 반복을 생성하는 [습관]의 존재양식으로 연결시키는 일이다.[HAB·POL] 이런 연결을 통해 정치의 민주주의라는 습관 양식이 [HAB·POL] 생기고 이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뿌리내린다.(500)
4. 불행히도 정치적 <원>의 양식은 신성한 갱신이 아닌 막혀가는 불통으로 재현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불통은 (i)갱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ii)다중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iii)규칙을 따르면 안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깨부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만다.(500)
5. 민주주의 습관 양식이 사라지고 정치는 기만과 위선으로 된다. 라투르는 이런 정치적 기만과 권력의 불균형을 권력의 신비에 빠진 것으로 비유한다.(501)
6. 라투르는 근대인의 체제인 과학, 기술, 종교의 존재양식 그 어느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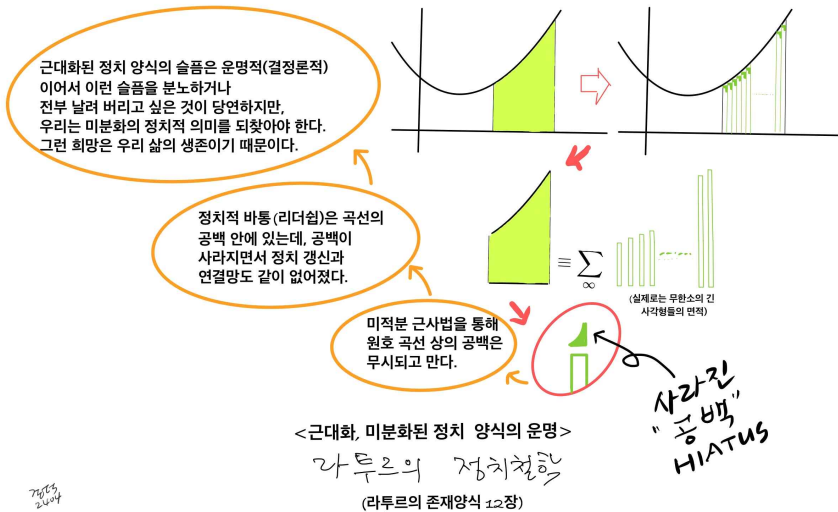
상으로 정치 양식이 더 나쁜 방향으로 틀어졌다고 말한다.(500-1)

7. 근대인들은 그들이 만든 존재자를 존중했지만 그 존중의 강도는 존재 양식마다 다르다. 과학을 가장 크게 존중하고, 기술을 과학보다 약하게 존중하며, 종교적 신을 그 보다 더 약하게 존중하며, 나아가 신성 divinities에 대한 존중은 아예 없었던 것이 근대인의 특징이라고 한다.
8. 그런 근대인조차 정치적 <원>의 양식을 구현하지 못했고 오로지 마키아벨리적인 정치적 형용사만을 확대시켰다.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마키아벨리 식의 정치적 존재자들은 만용에 가득한 곡예사로 되어 그물망 시설도 없는 극장의 무대 천정에서 멋도 모르고 뛰어내리고 있다고 비유한다.(501)

미적분 근사법과 공백의 사라짐

1. 미적분학은 원호의 곡선을 무한소에 가까운 접선의 직선으로 대체하는 근사법이다. 이런 직선의 근사법이 정치적 <원>을 지배할 경우 곡선에 숨겨진 공백hiatus은 무참히 삭제되고 만다. 그래서 정치적 존재자들은 그들 스스로 충실하게 말한다고 떠들지만 <공백>을 놓치면서 “옆길로 새고” 만다. 여기서부터 거짓과 진실이 혼동되는 범주오류가 생긴다고 한다.(502)
2. 정치적 바통(baton: 리더십)은 곡선의 공백 안에 있는데, 공백이 사라지면서 정치적 갱신과 연결망도 같이 없어지는 슬픔이 있다.
3. 정치 양식의 슬픔은 운명적이다. 슬픔을 날려버리고 싶지만 슬픔의 운명에 따라 우리는 그 안에서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든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운명은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생존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의미를 찾는 희망은 우리 삶의 생존이다.

미분화된 정치양식의 표



정치 양식의 공백의 의미

1. 정치적 불연속성의 틈새는 두 가지 다른 공백으로 나타난다. (i)하나는 정치적 이슈(순간)가 다음 이슈로 넘어갈 때 역지로 두 사건(이슈, 순간)을 분리했기 때문에 생긴 공백이다. (ii)다른 하나는 앞서 보여준 대로 미적분 근사 접근법으로 인해 곡선을 직선으로 대체한 데 따른 사라진 곡선의 공백이다.
2. 이성의 정치를 실현하고 싶었던 플라톤 철학자들은 당시의 소피스트들을 진리를 무시한 집단으로 조롱했지만, 라투르는 이런 철학자들의 조롱이 정치에서조차 이성의 위상을 절대기준으로 잘못 놓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정치 양식은 철학의 이데아와 달리 오히려 길거리 소피스트들 말 속에 숨겨진 공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라투르는 거꾸로 말한다.(505)

3. 정치적 이슈와 이슈 사이 공백에는 보이지 않는 곡선의 진리가 있으며, 그 공백은 단순 공백이 아니라 상황1과 상황2를 연결하는 번역 작업 행위를 수행한다.(505)

정치적 시민의 덕목

1. 정치적으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508)
2. 권력의 신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초월적이라는 이름으로 불통의 합리화를 시도하는 정치적 오류를 소환한다.(510)
3. 합리화된 거짓과 획일화된 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사물(이슈, 상황, 쟁점, 순간)을 중심으로 객체-지향의 정치 양식을 추구한다.(*337)

정치 양식의 교차와 혼동 오류 방지

1. 지시의 연쇄[REF]와 정치적 <원> [POL]은 서로에게 통약 불가능하며 서로 혼동되지 말아야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이 둘은 같은 공간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2. 예를 들어 과학 문제를 풀 때 <지시의 연쇄>라는 양식을 사용하지만 시를 읽을 땐 <원>의 양식을 사용한다. 과학문제를 풀 때 정치적 원의 양식을 사용하면 영점으로 평가될 것이고, 시를 읽을 때 지시의 연쇄 양식을 사용하면 시의 상상력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3. 이런 점에서 지시의 연쇄 양식과 정치 양식은 혼동되지 않도록 활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4. 라투르는 직선의 어법을 비난하기 위하여 그 대조가 되는 정치의 비이성을 과대평가하는 역설이 나타나곤 하는데, 라투르는 정치에서 이런

비이성이 기획될 경우 심각한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5. 이런 점에서 라투르는 필요에 따라 직선으로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때 구부러지게 말할 수 있다고 표현하면서, 과학자의 이성적 아포데익(명제)과 정치인의 감성적 에피데익(과장법)이 서로 같이 적절한 위치를 찾아가며 활용되는 정치 양식의 증용을 언급했다.(510)

사회는 왜 존재양식이 아닌가

1. 정치의 유령을 어떤 사람들은 “사회”society라는 말로 대체하려고 하며,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인 것의 한 가지 외양으로 정치를 대체하는 순간 정치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사회는 존재양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는 모든 존재 양식들이 융합된 연결망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양식으로 될 수 없다는 뜻이다.(514)
2. 사회는 존재양식이 아니라 “자연”이나 “상징체”처럼 초월성의 완벽한 예이다.(514)
3. “실체”를 기반으로 다른 존재양식을 설명할 수 없듯이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존재자의 정치적 존재양식을 설명할 수 없다. (515)

정치적 원의 습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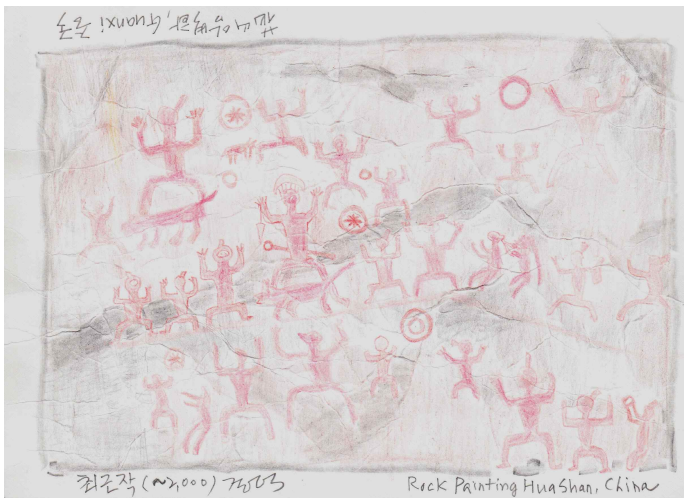
1. 원은 집합체를 형성하게 해준다. (511)
2. 집합체의 대표자가 나타나며 자기 집합 내의 구성원들을 추종하게 만든다.
3. 그러다가도 그 집합체는 해체되기도 한다.
4. 이런 정치 양식의 모습은 정치가 마치 유령을 품고 있는 듯 여겨질 정

도다.

5. 이 모습은 정치와 조직organization이 교차[POL • ORG]된 정치체Body Politic같으며 이는 <원>양식의 끊임없는 운동 과정에서 나타난다.(513)
6. 정치는 갱신을 품은 반복의 수행성이지만 결코 관성적 재현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관성이 아닌 습관의 양식이다. 정치는 갱신의 연결망 안에 존재한다. 습관은 갱신의 반복이지만, 관성inertia은 갱신 없는 무의미한 반복(단순 재현)이다. 정치 양식과 습관 양식의 교차는 관성이 아니라 갱신이라는 뜻이다.
7. 정치적 존재자에서 유령은 대중들의 작은 초월을 의미한다. 대중의 비가시적 유령은 <원> 양식 안에 있다. 그래서 직선의 언어보다 구부러진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불행히도 구부러진 언어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 (517-8)
8. 근대인은 구부러진 언어 대신에 직선의 언어로 정치의 <원> 양식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런 시도는 라투르 표현에 따르면 하나의 괴물을 낳게 한 이유다.(518)
9. 우리는 자기합리화된 괴물의 정치가 아니라 진짜 이성적인 것과 <원>의 비가시적 정치체가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아리아드네의 실(단서)을 찾아간다.(518)

라투르의 존재양식 13장 해제

법철학



법의 존재양식 일반 개요

1. 법의 존재양식은 기술, 과학, 종교처럼 준주체 양식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파악하는 법의 고유한 방식이 있음을 알게 해준다.(522)
2. 법에서 전치사 구실은 대체로 쉽게 드러나며 다른 것보다 법의 존재양식은 좀 더 용이하게 분석될 수 있다.(522)
3. 법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처럼 법을 설명하기 위해 "법적"이라는 수식어가 매번 활용되고 있다. 법의 설명이 동어반복의 표현으로 가능해진다. 즉 법은 그 자체로 독창성과 독립성의 권한을 갖는다는 뜻이다.(523)
4. 여타의 제도들이 근대화된 상황에 비교한다면 법 제도는 종교나 정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대화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이라고 라투르는 말한다. (523)
5. 근대화된 법은 전문가들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런 뜻에서 법은 자율적이라고 한다. 그만큼 법의 가치가 확고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명시적이다.(523)
6. 법의 동어반복은 오히려 법을 다른 것 (형이상학이거나 경험적인 것이나 관계없이)으로 환원시키려는 근대인의 시도를 방해한 결과에 맞먹는다. 그래서 기술, 픽션, 지시, 종교, 정치 양식들은 모든 곳에 침투되어 있지만 법은 법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근대화의 영향을 받았을 뿐이라고 한다.
7. 법 자신의 단단한 테두리가 나중에는 결국 법의 고유성으로 재현된다. 법의 고유성은 법 내부 전문가들에게 권력의 수단으로 될 수 있었지만 법 외부 보통 사람들에게는 장벽으로 될 수 있다.(525)
8. 여기서 법의 이중성(강점과 약점의 양면성)이 드러난다.

법의 강점과 약점 - 법의 전문성과 다공성

1. 공적 서류에 서명 하나 빠트리거나 사소하게 여겨진 행정 절차 때문에 법원 결정이 예상 외로 판결되기도 하며, 전세 사기로 잘못된 계약서 한 장 때문에 청년 세입자가 억울하게 희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우리는 이렇게 법의 힘에 놀라기도 하고 법 앞에 무력한 나를 한탄한다.(525)
2. 법이 전문화된 형식FORMS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현실 적용에서 법 제도의 허점과 구멍이 많아서 법의 판단이 매우 주관적이고 상황의 시류를 많이 타는 것으로 볼 수 있다.(526)
3. 법 제도의 허점과 구멍을 라투르는 "다공성"Porosity 으로 표현한다.(527) 다공성이란 법의 허점을 보여주면서도 역설적으로 법의 권력과 연합성 즉 좋게 말해서 법의 유연성과 상호연관성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4. 법의 전문성이라는 말이 매우 객관적인 듯 여겨지지만 반면 숨겨진 권력 편향이라는 시소타기가 곧 법 존재양식의 행위라고 라투르는 잘 설명하고 있다.(527)
5. 법 근본주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인은 "자연의 지배"로부터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는 법의 문명화 구실을 강조하는 것이 법 근본주의이다. 이런 생각은 근대인이 만든 법의 자만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528)
6. 법이 인간을 야만에서 문명으로 발전시켰다는 근대인의 법 사상은 전형적인 이분화의 오류라고 라투르는 강조하다.

법은 법다워야 한다.

1. 법은 인간성, 품위, 명예, 진리, 도덕, “아버지의 법” 등 이런 가치를 수행한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오로지 법 그 자체만이라도 수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 여기서 “아버지의 법”이란 라캉의 은유로서 the metaphor of the ‘Name-of-the-Father’ 사회적 법 체제 안으로 귀속된다는 뜻을 함의한다.
3. 이 점에서 법의 객관성과 엄단성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고 라투르는 말한다.(529)
4. 법이 만약 객관적 진실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소위 “사실”에만 집착하는 [REF·LAW] 텍스트 양식에 빠지면 그런 법으로 수행된 법 재판은 결국 세상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530)

법적 경험의 두 통로

1. 법적 경험은 법의 유동성과 법의 형식이다. 법의 유동성은 사건, 감정, 정념, 사고, 위기, 소위 "사실"(사실이라고 강조되는 상황)에 네트워크 되어 있다. 법의 형식은 재판소, 법원 등 텍스트와 원칙들 그리고 규정들을 의미한다.
2. 텍스트 양식으로서의 법과 유동성 양식으로서의 법 사이의 대조를 의미한다. 이 둘 사이의 대조로부터 변형, 번역, 변성, 성변화 등이 전개된다.

다원주의의 합리성 -망설임에 대하여

1. 다원주의를 취하면서 합리적일 수 있는 이유: 다원성을 포용하지만 적정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라투르의 방식 때문에 그렇다.(533)
2. 그 사례로서, 법정 판결은 합리성이라는 절대 기준이 있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판사, 소송인 어떤 때는 망설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루한 반복의 논의들이 전개되기도 한다. 그러한 망설임이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런 반복 과정이 적정성을 위한 갱신의 역할을 한다.(533)
3. 과학실험실 연구자나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나 사랑에 빠진 연인도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런 호소를 하기도 한다. 이런 불안과 걱정이 생산물이나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도달하는 데 꼭 필요한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된다는 점을 라투르는 강조한다.(534)
4. 배타와 포용의 대조가 오히려 존재자의 합리성을 고양시키며, 불안과 걱정의 과정이 적정성의 결과물에 도움이 되고, 충분한 망설임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이런 대조는 합리성의 실패가 아니라 평화로운 균형을 낳은 길이다.(534)

반복과 갱신

1. 세계는 실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다. 세계는 존재들이 탈연동(Shifting out)되며 불연속성을 거치면서 매번 새로운 반복의 갱신을 한다. 그래서 세계는 영원한 실체들과 다르게 존재자들이 거주하면서 채워지지만 그와 반대로 사라지거나 분산되기도 한다.(535)
2. 각 존재자의 양식은 형이상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존재한

다. 그래서 각 양식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 존재자들은 갱신의 방식을 따른다. 여기서 갱신이란 반복의 수단을 갖지만 결코 앞의 존재와 같지 않은 습관의 주름이다.

3. 신진대사처럼 호흡의 중단 없는 반복이지만 항상성을 유지하는 습관의 양식이다. 이런 점에서 갱신은 반복이지만 관성의 재현은 아니다.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통과하기 그리고 재연결

1. 존재는 다른 존재로 통과pass하면서 앞의 존재자의 흔적을 활용하지만 그 흔적을 결코 보존하지 않는다.(536)
2. 이런 방식의 통과를 통해 발화자와 청자 사이, 그리고 사건과 사건 사이의 재연결reattach이 가능해진다(536)
3. 재연결은 단순 재현이 아니라 독창성의 연결이며 갱신이다. 반복하지만 결코 같지 않은 반복이라는 점에서 갱신이라고 하며, 갱신은 법의 존재양식이나 법의 수행성에서 독창성을 낳는다.(537)
4. 예를 들어 법원 판결과정에서 법의 재연결이 전문적 객관성이라는 명분으로 사건의 의미를 텍스트 등의 형식으로 둔갑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법의 존재양식은 피고와 원고, 원고와 판사처럼 잉여의 “주체”를 만들게 된다. 이런 주체들 사이에 파괴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패딩이 필요하다. 이 패딩을 통해서 존재의 불연속성을 연속성처럼 보이게 한다.(537)
5. 이 점에서 법은 습관양식과 공통점을 갖는다. 법은 습관과 교차된다는 [HAB • LAW] 뜻이다.
6. 법은 원래 [더블클릭]으로 포섭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은 형식적이고 형식주의적이라는 점에서 라투르는 이런 과도된 법 흔적을 안타까워한다.(538)

7.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법은 발화체들 사이에서, 발화자들 사이에서, 문서와 다른 문서들 사이에서,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 사이에서 경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꼭 원래 정보만을 전달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538)
8. 법은 텍스트나 문서에 제한되지 않는다. 문자가 없었던 고대사회에서도 법의 존재양식은 가능했었다. 집합체의 맹세, 제례의식 등은 그 자체로 법의 행위 절차였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법은 객관성이라는 명분으로 문자화된 텍스트로 단단하게 재연결되었다.(539)
9. 예를 들어 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문서나 재화를 자기의 소유물로 인식하면서 문서나 재화를 배정받게 된다고 한다.(539) 책임자, 죄인, 소유자, 저자, 피보험자 등의 발화체는 법으로 비로소 배정된다는 뜻이다.(539)

준주체 그룹으로서 법

1. 법은 정치와 종교처럼 준주체 그룹의 하나이다. 준객체 그룹 즉 기술 [TEC], 픽션[FIC], 지시[REF]들의 존재가 발화의 주어인 인간에 의해 동작되는 목적어로서의 객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라투르는 이들을 "준객체"라고 이름 붙였다.
2. 쉽게 말해서 목적어를 작동시키는 주어가 인간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체가 아니라 "준주체"이며 목적에 해당하는 존재자 역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객체가 아니라 "준객체"라는 것이다.
3. 주어는 인간에 제한되지 않으며 휴머노이드나 자연이나 문화와 같은

“비어있는” 잠재적 주어이다. 이런 주어를 해체된 주체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주어에 따라오는 목적어 역시 객체가 아니라 준객체라고 한다.

4. 인간으로서 주체는 해체되었지만 법, 정치, 종교 그 자체로 주체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법, 정치, 종교양식을 준주체라는 그룹으로 이름 붙였다.(541)

법의 양식과 "원"의 양식

1. 직선의 말하기가 지배하는 정치적 "원"은 근대인에게 자유시민과 자율적 시민을 부여한다고 자랑스러워했다. 법의 도움으로 근대인은 시공간에서(현실에서) 연속성의 존재로 되었다고 자부심을 갖는다. 이런 생각이 바로 근대인 오류의 출발이다.
2. 마찬가지로 종교를 통해서 근대인은 구원과 파멸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런 구원과 파멸의 심판은 개인마다 다르다. 이런 점에서 인격적 개인의 개념이 탄생되었다고 한다.(541) 인격의 탄생과 종교의 제도화는 모순적이지만 공존되는 상황을 낳았다.
3. 법을 통해 인간이 시공간에서 연속성의 존재로 되었다는 뜻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집문서라는 얇은 종이 한 장이 소유권이나 상속 문제 혹은 자산을 자랑하는 거만함의 태도를 만들 수 있고 반대로 50년 동안 숨겨져 왔던 집문서가 재산 분쟁으로 일어난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기도 한다.(544)

준주체가 비합리적이라는 오해는 근대인의 이분법 오류에서 비롯되었다.

1. 법도 그렇지만 종교와 정치의 존재자 그룹인 준주체 그룹의 공통 특징이 있다. 적정성 및 비적정성 조건이 논리적 진위 판단으로가 아니라 상황, 음조(컨텍스트의 톤과 뉴앙스)에 달려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545)
2. 여기서 적정성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회상해보자. 참과 거짓, 진실과 거짓이라는 근대주의 방식의 기준 대신에 라투르는 적정성Felicity 및 비적정성Infelicity 조건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3. 이런 적정성 조건 때문에 준주체 그룹의 존재양식이 비합리적이라고 오해받아 왔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종교 등의 양식을 공통 특징으로 묶는 것은 여전히 의미있다. 준주체 그룹은 첫째 참과 거짓 혹은 객관과 주관이라는 진리조건의 이분법에 휩싸이거나 빠질 필요 없다는 점이다.
5. 근대인의 [더블클릭]이 주장하는 "문자 그대로"라는 직선의 화법으로 표현하라는 지시 양식을 법에다 바로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이분법의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파악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6. 준주체 양식은 한편으로 "문자 그대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비유적으로 말하기" 라는 양단의 이분법을 탈피하려면 "직선의 말하기"와 "구부러지게 말하기"을 종합하는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7. 생명 존재가 그러하듯이 말이다.
8. "이거냐?" 혹은 "저거냐?" 라는 이분법적 질문에 대답하는 지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존재론적 무게를 저울질할 필요 없다. 단지 그런 질문 자체가 오류라고 그 질문자에게 거꾸로 알려주면 된다.

근대인의 경제 담론, 그들이 애착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1. 경제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2. 살기, 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결정하며, 계산하기와 일을 꾸러가기, 일을 착수하고, 교환하고 빚내거나 소비하기 등의 “경제” 담론이 우선이다.
3. 사실, 법, 필연성, 의무, 물질, 힘과 권력 가치 등이 경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556)
4. 라투르 역시 근대인의 사유와 태도를 무시하지 않는다. 근대인을 알아야만 근대인의 오류를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근대인의 사유구조와 행동방식을 무조건 거절할 것이 아니라 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근대인의 문제가 비로소 드러난다는 뜻이다.(556) 라투르는 이런 관계를 주목하는 것이 외교관의 태도이며, 이런 외교관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연의 두 가지 개념

1. 인간과 환경 사이 관계에 대한 반성에서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자연 개념이다. 자연 개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땅의 자연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자연이다. 경제는 세계 안의 존재로서 두 번째 자연에 해당한다.
2. 첫째 자연First Nature은 물질적 자연이거나 혹은 생태적 자연을 말한다. 이런 자연은 오늘날 생태위기로 그 보편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둘째 자연Second Nature은 경제학의 대상으로서 자연이며 경제를 떠나 말할 수 없다.

경제적 암, 자본주의

1.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점점 경제 지배력은 확장되고 있다. 우리 특히 근대인에게 경제는 더 밀접 되어있다. 경제는 세계의 기초가 아니라 서구사회에서 발생했지만 세계 전체로 전이된 “암”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런 해석은 가치 기준을 냉정한 이해관계의 계산법으로 정착시켰다. 결국 자본주의라는 암의 원인요소 때문에 몸 전체로 전이되듯이 경제 전체가 암에 걸린 것과 같다.(558)
2. 자본주의를 만든 백인들이 전 지구를 점령하여 경제를 장악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라투르는 말한다.(558)
3. 이렇게 지구화된 경제라는 메타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경제화’diseconomize의 언어로 현실세계를 파악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가장 큰 난제이다.
4.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암세포에 의해 점령된 세계의 경제를 우리는 보편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세계 경제는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구조를 당장 해체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그 대안을 찾는 것이 라투르의 해답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며, 이 점에서 라투르의 처방은 애매하고 모호해 보인다.
6. 그러나 라투르의 자본주의 처방은 자본주의를 품고 있는 경제, 자본주의의 모집합인 경제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주의를 수정하자는 대안보다 자본의 모집합인 경제 양식을 바꾸자는 대안이 아마도 더 강한 태도일 수 있다.
7. 경제 양식을 변성하고 변신시켜야 한다는 뜻은 앞의 3번 문장에서 말

한 ‘비경제화’란 이성으로 무장된 근대 경제 대신에 재생산 구조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경제화의 전환은 현실 경제 양태가 안고 있는 모순된 간극을 잘 채우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 라투르 경제철학의 질적 방법론이다.

경제적 요구와 현실 사이의 간극과 세 가지 대응 양식 - 애착, 도덕, 조직

1. 자본주의로 치달고 있는 경제적 요구와 제한된 현실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다. 자원의 간극, 조직의 간극, 이성의 간극이다. 자원의 간극은 도덕 양식으로 채우며, 개념 무질서의 간극은 조직 양식을 채우며, 온도의 간극(이성의 차가운 온도와 비합리성의 뜨거운 온도 사이의 간극)은 애착의 양식으로 채우는 것이 이 책 3부의 내용이다.
2. 그 3 가지 간극은 개념 무질서의 간극, 이성-비이성의 온도 차이의 간극, 욕망과 자원 사이의 간극이다. 애착, 도덕, 조직이라는 3 가지 존재양식으로 이 간극을 적절하게 채울 수 있다고 라투르는 강하게 희망한다.

개념 무질서의 간극 - 조직 양식의 전환으로 채운다. (14장 내용)

1. 경제는 세계화, 기업, 기구, 민족주의 등으로 잘 정리된(정의된) 조직에 의해 제한된 지구자원 안에서 어떻게 적정한 분배가 가능한지를 연구하는 것이 경제라고 한다.(562)
2. 기업 등의 경제 법인체들은 초월적인 무엇으로 견고한 조직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다. 경제적 조직은 그물망처럼 합리적으로 짜여 있는 집합체라고 스스로 자부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라투르의 지적이다. 그런 조직은 경계도 모호하고 내구성도 별로 없다는 것을 연구원은 알게 되었다.

3. 기업이라는 조직을 넘어서 사회, 국가, 시장, 자본주의라는 조직 역시 근대인들이(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막강하고 굳건한(초월적인) 조직화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곧 개념 무질서의 간극이다.(563-4)
4. 조직 내부에서는 불성실하고 무질서하며 감정적 결정이 우선하며 혼란스런 권력들이 난문하고 있다. 여기서 일상과 경제의 간극은 깊은 차별을 낳는다. 이는 조직[ORG]의 내구성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562-4)

이성과 비이성 사이의 간극 혹은 온도의 간극 - 애착 양식의 대전환 (15장 내용)

1. 자본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현상들은 거대한 끓는 가마솥에 비유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꾸로 이런 현상을 차갑고 합리적 계산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2. 경제의 뜨거운 현상과 이를 제어한다는 차가운 접근방식 사이에서 그 심연은 깊다. 그 심연을 벗어나려면 생존을 지속하려는 존재자의 애착 attachment 양식 [ATT]을 이해해야 한다.

자원의 간극 - 도덕 양식으로 채운다. (16장 내용)

1. 최대 다수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근대인의 엄숙한 경제관이 실현되려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원이 요구되는데, 이 지구에서 그런 요구는 성립될 수 없다. 결국 최대 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경제의 목표는 실제로 분배의 한계와 불평등에 빠지고 만다. 지구 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겉으로만 분배를 말하면서 그런 불평등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정된 자원의 현실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심각한 간극의 원인이다.

2. 라투르는 이런 침묵을 비워진 광장이라고 표현했다. 지구의 한계를 솔직하게 터놓고 열린 소통이 오가는 아고라의 논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고라 광장은 비워진 채로 행할 뿐이라고 라투르는 지적한다. 비워진 광장을 숨긴 채 충만한 미래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것처럼 말하는 것이 자기모순이며 심연의 간극이라고 말한다.
3. 엄숙한 경제의 요구와 제한된 현실 사이에는 비어있는 간극만이 있다. 그렇게 비어있는 간극을 도덕[MOR]으로 채워야 한다.

애착, 도덕, 조직의 3 존재양식

1. 애착, 도덕, 조직의 3 양식을 존중한다면 두 번째 자연으로 정착된 경제 제도의 오도된 길을 파악하고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로부터 앞이 훤히 대로가 아닐지언정 경제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작은 오솔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 『존재양식의 탐구』의 큰 방향이다. (565)
2. 14장에서 경제철학에서 조직화가 왜 중요한지를 다룬다. 15장에서는 경제 현실의 자연적인 소산물인 정념의 이해관계에서 탐진치의 장애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 제한된 자원의 간극을 도덕과 책임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양심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한다.

3. 먼저 14장 조직화의 문제를 검토한다.

조직 양식이란 일을 꾸며 행위로 이어지게 하는 흐름의 양태이다.

1. [ORG]에서 조직은 조직된 결과로서 조직 개념이 있듯이, 그와 다르게 과정으로서 조직이 있는데 이는 전치사 존재양식의 의미를 갖고 있다. [조직]에서 결과로서 조직은 명사로서 조직에 해당하며, 과정으로서 조직은 “조직적으로”라는 부사로서 조직에 해당할 것이다.
2. 예를 들어 기업이나 각종 관련 기구들은 결과로서 조직이며, 세계화나 민족주의 등은 전치사로서 과정적 조직에 해당한다.
3. 우리는 조직된 결과로서 조직이 아니라 (일을 꾸며) 조직하는 행위과정으로서 조직을 탐구한다.(566)
4. 조직 양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라투르는 폴과 피엘이라는 두 사람이 전화로 약속을 하고 만나는 이야기를 기입inscription하고 서술description하는 대본script를 비유로 들고 있다.

조직과 다른 양식의 조화

1. 조직의 존재양식은 다른 양식과 조화Harmonics되어 나타난다.(576-7)
2. 조직이 법과 만나서 연속성의 평면을 획득한다.[LAW • ORG]
3. 조직이 습관과 만나면 일일이 전치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조직의 안정된 행위과정을 보장받게 된다. [HAB • ORG]
4. 조직이 종교와 만나서 종교의 이상(완성점)을 현실의 제약 안에서 형상화 되도록 해준다.[REL • ORG]

폴과 피엘이 꾸미는 이야기 대본

1. 라투르는 “대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주 소박한 사례로서 폴과 피엘이 약속을 만들고 만나는 이야기를 꾸몄다. 두 사람은 전화통화하면서 내일 오후 6시 정각에 대전시청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그 대본의 내용이다. 두 사람 약속과 그 약속이 실현될 내일 6시라는 시간에 대한 기대감 등의 이야기들이 대본으로 만들어졌다.(569)
2. 이 약속 이면에는 폴과 피엘이 살고 있는 지역과 대전시청과의 거리, 두 사람의 현재 건강상태, 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서로 인지하고 있는 장소 공유 등, 비가시적이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다양한 픽션[FIC]이 [ORG] 조직과정에 교차되어 있다.
3. 대본은 조직화에 해당한다. 명사형 조직이 아니라 동사형 조직화 organizing를 말한다. 대본에 등장하는 폴과 피엘은 조직화 행위의 수행자이다.
4. 폴과 피엘, 두 사람이 대본을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바로 그 대본이 폴과 피엘의 행위를 간섭한다.(573) 폴과 피엘은 대본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대본 안에 있다.
5. [FIC]와 [ORG]의 교차가 만든 이야기에서 폴과 피엘은 이야기의 등장 인물이 된다. 이야기 속에서 두 인물이 만나는데,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내일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인물을 낳으며 이런 점에서 그들이 만든 이야기가 거꾸로 그들을 작동하게 하는 행위 작동자로 된다.(568)
6. 조직화 행위는 인간만의 행위가 아니라 “이야기”가 행위의 주관자로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조직화 행위organizing act는 지시의 연쇄

[REF] 양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 물론 대전시청이라는 지정된 장소와 내일 6시라는 지정된 시간이 지시의 연쇄 역할을 하지만, 이런 물리적 시공간은 이야기의 주요 속성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은 어디라도 언제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폴과 피엘이 만나서 할 말과 행동들을 기획하고 연상하고 기대하는 살아있는 대본을 생산하는 데 있다.

7. 대본이 생산되었지만 생산된 대본이 폴과 피엘을 다시 갱신한다. 그래서 폴과 피엘은 내일 6시 대전시청 모임 대신에 다른 다양하고 수많은 역할 동위소Isotopy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만든 이야기가 폴과 피엘을 지정된 시공간에 오게끔 수행한다.
8. 폴과 피엘의 약속 이야기를 담은 대본은 그 둘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 만료되면서 사라진다. 모든 대본은 만료 과정을 필연적으로 겪는다. 마찬가지로 조직화도 만료된다. 만료되는 조직화를 탈조직화라고 부른다.
9. 조직화는 탈조직화의 반대가 아니라 수많은 탈조직화의 오직 한 가지 경우로 수행되어가는 과정이다.(571)
10. 어떤 사람의 대본은 그 사람 전체의 통합된 하나의 완성형 대본일 수 없다. 대본은 다수이며 다중적이다. 그렇듯이 조직도 고정되고 일관된 하나가 아니라 지금도 탈연동 과정에 있는 “조직화”의 하나일 뿐이다.(570-1)
11. 조직은 탈/재조직화의 순환고리에 있기 때문에 조직은 스스로 매우 취약하다. 영원하고 견고한 존재와는 무관하다. 조직의 고유하고 객관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허구다.

조직화의 타자성, 작은 초월성

1. 조직은 스스로 작동되지 않으며 고정된 존재양식이 아니다. 조직은 조직화이며, 조직화는 탈조직화와 재조직화를 동반한다. 조직화는 끊임없는 불연속의 중단을 품고 있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장하고 작동시키는 (초월적) 동일성의 존재양식이 아니라 타자를 반드시 요청하는 (내재적) 타자성의 존재양식이다.
2. 경제 존재양식 역시 타자성의 존재양식이어서 자기 안에 불연속성을 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존재자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연속성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갈등을 갖는다. 그 인식과정에서 공백과 귀적, 틈새와 간극은 조직화 과정의 특징을 만든다. 공백에서 조직화되는 과정은 동일성이 아니라 타자성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 바로 작은 초월성이다.(572)
3. 우리는 대본에 영향 받지만 그 대본이 절대적이지 않다. 폴과 피엘이 만든 대본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두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두 사람은 대본으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생성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둘 사이의 약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약속이 절대적 신의 권위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즉 대본은 폴과 피엘 사이의 작은 초월을 허용하지만 그렇다고 거대 초월성 maxi-transcendence에 의존하지 않는다. (572-3)
4. 조직에 거대한 초월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조직을 만든 누군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익을 숨기기 위해 거대한 초월성을 더 확장하여 합리성의 이름의 “섭리”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근대인의 조직이었다.(578-9)
5. 경제를 조직화하면서 경제에 섭리를 부여한 것이 마치 경제를 세속화

된 종교처럼 간주한 오류를 탄생시켰다.(578-9)

폴과 피엘의 대본과 기입

1. 예를 들어 전화통화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하여 두 사람 모두 메모지나 스마트폰에 기록할 수 있고 혹은 그들 가족에게 약속 장소를 알릴 수도 있다. 이런 기록은 과학지식의 기입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메모지 기록 역시 기술적 준객체 역할을 한다.
2. 폴은 종이 쪽지에 기입하고 피엘은 스마트폰 약속 어플에 기입했을 경우, 폴이 쪽지를 분실했을 때 피엘이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텍스트를 폴에게 이메일이나 모종의 소셜미디어로 전송할 수 있다.(이동시킬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기록 기입이 마치 불변의 가동물 immutable mobiles처럼 이동한 것과 같다. 폴과 피엘 사이가 비록 먼 거리가 아니지만 말이다. 그래서 폴과 피엘 모두 기입inscription의 덕분에 대본script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기입장치inscription가 많아질수록 대본script의 서사는 풍부해질 것이다. 그런 서사를 읽어내는 욕구가 서술description이다.
3. 서사는 대본script에 의해 생성되며 대본은 조직화 행동organizing act이다. 대본의 궤적과 지시연쇄의 궤적은 다르다. 지시는 대본의 주요 속성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회”와 “개인”

1. 근대인은 조직을 하나의 틀로 질서 지우려 했다. 여기서 첫 번째 오류가 생기며 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회학적 틀 역시 두 번째 오류이다.(582)

2. 기존 근대인의 사회학에서 사회는 집합체collective와 다르며, 사회를 개인individuals들의 총합으로 간주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려면 “개인”이라는 존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이론은 불확실하다.(582)
3. “사회”와 “개인”이라는 총합체aggregates는 그들 즉 근대인 스스로의 경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라투르는 강하게 말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사회”라는 총합체는 경험을 벗어난 초월성을 갖기 때문이며, 둘째 “개인”이라는 총합체 역시 지나치게 통일화된 형이상학의 소산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583)
4. 사회학은 “사회”와 “개인”이라는 두 개의 유령에서 시작된 것이 그들 범주오류의 핵심이다. 어떤 사회학은 사회를 개인의 총합으로 분석하려 하고, 또 어떤 사회학은 사회를 개인으로부터 초월한 우월한 조직으로 보려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형성된 사회학은 범주오류라고 한다.(583)

경제보다 경제화에 주목

1. 라투르는 경제화economization되면서 비로소 경제가 생겼다고 표현했는데(587), 우리가 아는 경제는 경제화economization 존재양식의 소산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라투르는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독립적인 존재양식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라투르는 16장으로 구성된 이 책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마지막 3개 챕터를 [경제철학]에 할애했음을 주목하자.)
2. 오늘의 경제화는 지식[REF]을 재물질화하는 과정이다. 경제는 일종의 관념화된 물질을 다룬다는 뜻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3. 주식시장에서 경제화는 주식시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과거 천

공태이프에서 스크린 영상을 거쳐 스마트폰 어플까지 더 나아가 인공 지능 활용 분석시스템에 이르는) 전기전자 통신기술의 기록장치를 통해서 가속화되었다. 라투르는 이를 경제화의 재탄생이라고 했다(588)

4. 앞의 사례를 더 상세히 말하자면, 오늘날의 휴대폰 주식시세 어플로 인해 경제화 규모는 확장되고 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트레이딩 기법, 주식매매 자동시스템 등 경제화 경로passage의 확장dp 힘입어서 경제화가 다양해지면서 경제규모도 확장된다. 이런 경로들은 배정키 Allocation Keys (여기서는 주식배당 지표에 해당할 것이다) 혹은 가치측정기Value Meter등으로 외형화 된다. 즉 경제화란 대상지식[REF]을 정량적 가치로 판단하는 수법을 발전시킨다.(589)

경제화와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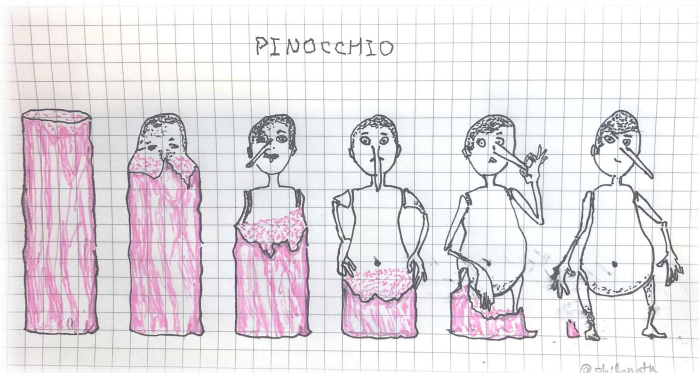
1. 경제화는 소유property 관념에서 출발한다.
2. 소유는 나와 너, 내재성과 외재성,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계지움이다. 소유는 내부를 보는 눈을 감은 채 외부를 배제하는 데만 치중한다.
3. 측정된 것을 수량화한 측정척도Measuring Measures는 가치와 사실을 융합하는amalgamation하는 도구이며 그런 도구가 많아지면서 경제화도 확산된다고 근대인은 자랑한다. 불행히도 이런 방식의 융합은 (계량화된) 외재적 사실에만 초점을 두어서 (계량불가능한) 내재적 가치를 배제하는 증상으로 치달는다.
4. 측정척도를 통한 경제화의 확산은 지시[REF]가 도구와 기입 inscription 이라는 특정 표의문자를 통해서 확산되는 것과 같다.(592)

경제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

1. 갈릴레오는 수학을 자연의 책이라고 표현했다. 이럴 경우 그 자연은 첫째 자연을 의미할 것이다. 갈릴레오 표현처럼 전통적인 의미의 첫째 자연의 책은 신이 만든 수학적 문자로 쓰였다면, 경제를 지칭하는 둘째 자연의 책은 신과 무관하지만 신의 권위에 버금가는 이성이라는 문자로 쓰였다는 것을 주목한다.(593)
2. 근대인이 지난 3 세기 동안 만든 경제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라는 가정에서 축조되었다. 그러나 경험의 궤도에서 볼 때 인간은 이차적이고 부차적이다.(595) 합리적 인간이란 개인을 자족적이고 견고하며 완전한 주체로 본다. 합리성을 기반으로 본 물질은 결국 관념의 소산물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앞에서 충분히 거론했다.
3. 관념화된 물질에 지배된 근대인의 경제로부터 (1)탈관념화하고 (2)초월성이 아닌 내재성을 되찾고 (3)그런 내재성을 재물질화하도록 하면서 우리는 생존에 유리한 진짜 경제에 조금씩 다다를 수 있다.(596) 쉽게 말해서 경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극심한 빈부차이와 기후위기를 벗어나는 진짜 경제의 대안을 라투르는 제시한다.

라투르의 존재양식 15장 해제

경제철학2 - 평등경제를 위한 [애착]의 전환



“개인”과 “사회”라는 관념에서 벗어나기

1. 경제 형이상학의 꿈을 깨고 내재성의 경제화 작업을 수행하려면 “개인” 관념에서 벗어나 경험의 대본(경험의 내러티브)으로 들어가야 한다.
2. 자신을 매번 새롭게 발견하고 써가는 대본의 경험을 등록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관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3. 개인과 사회 관념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추상화의 오류에 빠진다.(599) 쉽게 말해서 나의 경제는 힘들고 난감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규모가 커졌다는 전체(대표자) 자랑에 속아 개체 빈곤은 더 심화되는 악순환의 오류에 깊이 빠진다는 뜻이다.
4. 이런 오류를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아래의 조직화를 접근할 수 있다.

조직화

1. 조직은 잘 정의된 경계와 자족적이고 동일성의 개체가 아니다.
2. 조직의 크고 작음은 그 계량적 크기로 비교되지 않는다.
3. 조직은 개방적이며 동시에 사방 어디에나 가능하도록 분산되어 있으며 다중적이다.
4. 조직은 항상 탈조직과 재조직으로 가는 수동재시작manual Restart을 할 수 있다.(600)

조직을 사회 개념으로 환원하려는 근대인의 오류

1. 근대인은 자연을 물리적으로 제한시키거나 언어를 기호로 제한시켰듯

이 조직을 사회 개념으로 제한시켰다.

2. 인간의 정신을 연구한다는 근대 심리학이 과학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듯이 근대 사회학은 사회학의 경험적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601)

조직은 근대인의 사회 개념과 다르며 나아가 유기체와도 다르다.

1. 사회학은 개인들, 즉 부분들의 전체 합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부분보다 전체는 항상 크다. 그러나 조직은 부분보다 전체가 크다는 언급을 할 수 없다. 조직에서 뿐과 전체는 정량적으로 혹은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조직에서는 부분이 전체보다 클 수 있다.
2. 사회와 다른 정치 조직에서 전체의 모순을 사례로 볼 수 있다. 전체를 대표한다는 위정자가 독재자일 경우 평소에는 전체 권력을 쥔 독재자가 부분(국민 개인들)보다 클 수 있지만 어느 한 순간에 독재 권력이 붕괴되고 하룻밤 사이 겁에 질려 몰래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아 왔다.
3. 조직은 유기체(organicism)와도 다르다. 조직이 유기체 조직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모 다국적 기업이 유기체처럼 작동한다는 등, 어느 기업이 공룡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등, 조직을 유기체에 유비하곤 한다. 조직 배후에 조직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생물학적 유기체 생명력을 가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4. 조직(화)는 하나의 몸 [REP]으로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직은 생물학적 유기체와 달리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본과 기술

1. 기술 양식의 관점에서 14장 사례로 나온 폴과 피엘의 대본을 다시 보기로 하자. 폴과 피엘이 전화통화로 만나기로 한 약속으로부터 대본은 시작된다. 이런 약속의 대본은 만남이 성사되면서 만기 종료된다. 한편 이집트 피라미드에 묻힌 왕의 미이라와 그의 역사는 4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대본이 만기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2. 각각의 대본들은 서로의 질적 크기를 비교할 수 없지만 규모에 있어서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이런 규모의 차이는 상대적이며 규모가 큰 대본은 역사에서 안정화 증상을 갖는다. 안정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파리 시내 6층짜리 아파트 건축물을 사례로 들어 본다.
3. 파리에 1860년대부터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설계하고 구축한 6층짜리 아파트가 도로변에 줄서있다. 이 아파트에는 오늘날과 같은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니 꼭대기 층에 사는 사람들은 오르내리기가 아주 힘들었다. 그래서 부유층은 주로 2층에 거주했고 위로 갈수록 돈 없는 서민들이 거주했다. 특히 난방도 안 되는 꼭대기 6층에는 2층 부잣집 소속 하인들이 주로 살았다.
4. 이후 20세기 들어서 기술의 발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1904년 도시 건축가 발망Balmain은 파리 시내 구축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증축했는데 구조상 5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다. 어차피 6층은 하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어서 건물 소유주는 엘리베이터를 6층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5. 세월이 지나면서 1960년 대 이제 하인이라는 계층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아파트 6층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주로 가난한 대학생들이 임대를 얻어 살게 되었다. 100년 전 하인 계층을 무시했던 발망의

오래된 대본은 만료기간 없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인 계층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6층 입주자들은 한 층 더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무게를 더 무겁게 짓눌리고 있다.

6. 폴과 피엘로부터 생성된 대본은 짧은 시간 지속되다가 만기종료 되었지만, 어떤 대본은 몇 년 혹은 몇 백 년을 지속하는 서사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 토대는 대본을 무겁게 하지만 무거운 덕분에 오래 가는 것이기도 하다. 큰 바다를 항해하는 대형 선박은 큰 파도에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배 바닥 면에 아주 무거운 중량의 기저를 싣고 다닌다. 발망의 대본은 그런 무거운 중량을 싣고 있었다. 라투르는 이런 식으로 대본이 품고 있는 무거운 기저를 “안정화”ballasting 이라고 표현했다.
7. 안정화는 대본의 잠재적 등장인물들을 짓누르는 희곡인 셈이다. 시공간에서 규모가 큰 대본들은 피라미드의 돌쌓기나 파리 시내 구축 아파트 엘리베이터 증축처럼 기술 양식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그런 기술이 많이 개입된 대본들은 대체로 안정화 증상을 수반한다. (605-6)
8. 여기서 엘리베이터나 피라미드는 기술로 제작된 객체 구실을 한다. 안정화 증상은 객체 현상이 아니라 기술 그 자체의 현상이다. 즉 “기술”과 “기술로 제작된 객체”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라투르의 언급을 상기해보자. 기술은 고유한 진리진술을 갖으며 이 진리진술은 독창적인 접힘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접힘은 탈연동shift 관념으로 탐지된다는 것이다.(이 책 8장)

불평등을 뒤집으려면

라투르의 말을 그대로 옮겨온다. “불평등을 뒤집는 데 기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평등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어떠한 환상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

는 것이다.” (609) 이를 위해 라투르가 제시한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전체가 부분들보다 크다”는 진술은 전적으로 오류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와 부분은 유기체에서 말하는 전체-부분과 다르며, 전체의 의미는 부분들을 대표하거나 대표하고 싶은 권력자라는 점에서 대표이다. 대표 권력으로서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고 자만한다. 이 자만이 불평등의 시작이다.
- ② 다시 말해서 부분들이 전체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부분보다 크다고 규정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불평등의 시작이다.
- ③ 크고 작음의 좌표계를 확보하여 불평등의 근원을 직시해야 한다.
- ④ 규모가 큰 대본일수록 크고 작음의 차이가 권력과 지배력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 ⑤ 대본의 상대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상대적 차이를 절대적 차이로 둔갑시키는 것이 바로 불평등의 요체다.
- ⑥ 대본을 다시 쓰려는 시도 중에서 자기가 주인공으로 되어 다른 타자를 영구히 지배한다는 초월적 권력을 소유하려는 행위들이 있다. 그들의 권력은 단지 불평등의 상대적 크기 차이라고 변명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상대적 크기를 절대적 크기로 고착시키고 있다.
- ⑦ 오늘날 자본주의 기업들, 대기업이나 소기업 할 것 없이 기업 상속이나 자본독식 등을 통해 자신의 부를 영원히 가져간다는 환상을 마약처럼 즐기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 그런 크기의 절대성 권력이 의미하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 ⑧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그들은 자신의 규모가 개인 소비자들의 규모보

다 우월하다는 오판을 시작하게 된다. 즉 자신을 전체로 비유하고 소비자를 부분에 비유함으로써 전체가 부분보다 절대적으로 크고 우월하다는 편견을 갖는다.

- ⑨ 우월주의 전체를 표방하는 윗선들은 거대 조직을 끌어가야 한다는 명분으로 아래의 부분들을 지배하려 한다.
- ⑩ 그러나 이런 전체의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데서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 시작된다.(609)

고립은 없다. 다시 폴과 피엘의 대본으로 돌아가 보자.

1. 폴과 피엘은 고립된 객체가 아니다.
2. 폴과 피엘의 욕망의 교차로부터 그들의 대본이 생성된 동력이 생겼다. 그 둘 사이의 “욕망”이라는 공통점이 그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대본이 생성되었다는 뜻이다.
3. 대본의 주인공들, 폴과 피엘의 관심interests이 욕망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4. 두 사람의 관심 혹은 이해관계가 만남을 조직하게 되었다.
5. 이 만남을 매개로 하여 다른 일을 조직할 수 있다. 이것이 새로운 대본을 생성하는 계기다. 이런 계기를 다른 면에서 볼 수 있다. 다른 대본을 만들기 위한 단순한 도구일 수도 있다.[REF • ORG]
6. 일상생활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 둘의 약속으로 이뤄진 대본은 만료가 곧 되고 만다. 그 이후 그 만남에서 더 새로운 약속으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겨서 폴은 제3의 로티와 새롭게 만나고 피엘도 제3의 앙리와 새롭게 만나는 재조직 혹은 탈조직이라는 조직화의 생성과 분

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7. 여기서 도구의 역할은 자신들의 대본에서 다른 대본으로 연결하고 재조직하는 일이다. 고립된 폴과 피엘은 불가능하다.

인간-비인간 결합의 연쇄양식

1. 대본과 대본 사이의 연결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관계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통과되어야만 하는 존재의 연쇄양식이다.
2. 인간들만이 결합양식이 아니며 비인간들만의 결합양식도 아니다.
3. 혹시 인간이 모르는 비인간들만의 결합양식이 가능하더라도 인간은 그런 결합을 볼 수 없다. 스피노자의 양태 관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 인간과 비인간을 연결하고 준주체와 준객체를 연결한다. 마치 분자 사슬구조처럼 같은 원소들끼리 결합되기도 하며 공유결합처럼 어떤 원소를 매개로 하여 다른 원소들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5. 한 원소가 다른 원소와 결합되어 있는 분자를 비교하여 인간-인간의 결합도 있고 비인간-비인간 간의 결합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비인간의 사슬 연결망이 핵심이다.(612)

조직 양식에서 애착 양식으로

1. 지금까지 조직화 양식을 검토했다.
2. 애착 양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3. 애착 양식을 알아야만 소유의 광기를 직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욕망의 애착에서 재생산의 애착양식으로

1. 전통적인 존재론은 “있다” to be / être 의 존재론이다. “있다”의 의미는 동일성의 철학의 존재론적 기초이며 본질의 철학을 함의한다.
 2. 라투르는 “있다”의 존재론 즉 동일성의 철학을 붕괴시키는 일을 철학의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한다. 그 프로젝트는 “가지다” to have / avoir의 존재론을 담고 있다.
 3. “가지다”의 의미는 소유의 철학을 언급하는 데 있으며, 이해관계의 철학을 함의한다. 이해관계란 소유 욕망과 연결된다.
 4. 소유 욕망은 탐욕의 소유는 방향만 다를 뿐 하나의 양식이다. 다시 말해서 탐욕이란 소유하는 존재자와 소유되는 존재자 사이의 관계가 가역적인 경우를 말한다.
 5. 존재자들이 거쳐서 통과해야 하는 목록이다. 즉 소유, 탐욕, 쾌락, 정념, 욕정, 유혹에 노출된 존재자를 말한다.
 6. “있다”의 존재자는 이런 노출에도 불구하고 그런 탐욕과 정념들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7. “정념적 이해관계”Passionate Interest 혹은 “이해관계의 정념”Interested Passions의 존재자들의 존재양식이 곧 애착attachment 양식[ATT]이다.
 8. 정념의 이해관계는 대조 양식을 보인다. 즉 소유 욕망의 존재양식과 재생산의 존재양식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 ① 소유욕의 애착양식: 애착 양식의 정념의 이해관계가 소유로 치달게 되

면 탐욕과 질투, 집착의 광기와 타락으로 빠진다. 이런 애착 양식의 하나가 근대인의 경제 존재자이다.

- ② 재생산의 애착양식: 애착 양식의 정념의 이해관계가 재생산의 존재자 [REP • ATT]와 연대하거나 변신의 존재자[MET • ATT]와 결합될 경우 생존의 긍정적이고 적정성의 방향을 가져올 수 있다.
- 9. 애착과 재생산의 존재양식은 결코 같은 양식이 아니지만 서로에게 공명할 수 있다고 라투르는 말한다. 애착양식이 재생산의 양식으로 공명하려면 애착양식이 탐진치(탐욕, 질투, 집착)의 정념이 아닌 완전히 다른 재생산의 정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 10. 이런 전환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라투르는 다음의 4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616)

탐진치의 애착을 벗어나기 위한 4 가지 장애물 제거하기

1. 첫째 장애물 :

- ① 경제를 사회적인 것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오류의 장애물이 있다. 전체 단위가 부분 즉 개체보다 우월하다는 토대에서 형성된 사회 개념으로 경제를 재구성한다면 그런 경제 역시 구체성을 상실한 초월성의 관념으로 빠질 수 있다.
- ② 전체의 우월성을 포기한 평평한 (평등한) 존재자를 수용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일이 곧 자유를 추구하는 구체성이다. 즉 전체의 우월성을 포기하는 일이 장애물 제거의 첫째이다. (여기서 자유는 자본주의의 하수인이 된 자유경제나 신자유주의의 왜곡된 그런 자유와 전적으로 다르다.) (617-8)

2. 둘째 장애물 :

① 대본의 서사가 등장인물의 합리적 선호도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는 관습이 바로 둘째 장애물이다. 대본의 서사는 그런 선호도의 양적 계산이 아니라 정념의 질적 계산qualculations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장애물 제거의 구체성이다.(618)

3. 셋째 장애물 :

① 주체와 객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셋째 장애물이다. 라투르는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뉘리당의 당나귀”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이 이야기는 스피노자 [윤리학]에서 따온 것이다. 물과 건초 양쪽이 주어진 당나귀는 물도 건초도 욕망하는데 단지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에 짓눌려 결국은 아무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는 우화이다.

② 당나귀는 합리성이 아니라 관심과 이해에 기반한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성이라는 명분에 눌러 아무 것도 선택 못하는 슬픈 상황에 맞는다.

③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형이상학적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고 있다. 그런 상황이 우리가 당면한 장애물이다.

④ 우리가 존재자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분법의 장애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탐진치의 애착이 아니라 관심의 애착이라면 주체와 객체가 하나의 연결망임을 알게 되고 그런 앎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⑤ 객체란 객체에 애착하는 준주체들의 집합이며, 주체는 주체에 애착하는 준객체들의 집합이다. 칸트처럼 인식의 출발점이 객체인지 주체인

지를 역추적하는 것은 별 쓸모없다고 라투르는 말한다.(620)

- ⑥ 오히려 관심과 이해관계의 방법론인 단절과 불연속성 그리고 새로운 번역translation을 통해 이분법 틀에서 벗어나 객체 가운데 주체를 알아보고, 주체 가운데 객체를 파악하는 힘을 더 키울 수 있다.

4. 넷째 장애물 :

- ① 번역translation과 단순 전송displacement의 차이를 모르거나 무시한 채 오로지 교환의 의미를 변형 없는 등가물의 교환으로 제한시키거나 혹은 변신 없이 운반(전송)하는 교환으로 국한시키는 일 그 자체가 큰 장애이다.
- ② 이런 등가물 교환의 장애를 벗어나려면 교환 이전과 이후에 생성되는 가치부여valorization의 변화(물질적 변화가 아닌 발생적 변화를 말함), 관심의 도약을 교환을 위한 새로운 척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621-2)

5. 다섯째 장애물 :

- ① 차가운 이해관계의 계산으로 된 시장의 지배 아래 상품으로 장악된 근대인의 경제를 그들만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수용하는 일 자체가 장애물이다.(623)
- ② 근대적 합리성의 도구로 시장경제는 차가운 계산의 경제로 제한된 장애가 전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차가운 계산의 결과로 그칠 일이 아니라 “투기꾼 그룹”의 결과라는 점이다.(624) 그래서 월스트리트 금융인조차 시장경제 수행자로서 차가운 경제 행위자로 그치지 않고 뜨겁게 끓는 욕망의 행위자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 ③ 합리적인 경제로 위장된 옥시덴탈리즘을 피하는 것이 장애물을 건너내

는 첫걸음이다.(625)

서로 연결된 존재자로서 교환의 삶

1.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교환의 삶”도 상호 연결 존재자의 하나다. 이런 교환의 삶이 근대에 들어서 세계-경제world-economy라는 이름으로 시장, 항구, 박람회 등으로 묘사된 경제화의 분과를 형성했다.(626)
2. 이런 세계경제의 존재양식은 사물의 이동move, 사물의 변환shift, 사물의 열기heat up, 사물의 연결connect, 사물의 정렬line up 로 드러난다.
3. 사물들 사이에 교환상품으로서 예를 들어 집에서 낳은 새끼 송아지를 시골 시장으로 팔러가거나 집에서 키우려고 병아리를 시장에서 사는 행위들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상업commerce이나 소비consumption라는 양식이 설명된다.

애착의 존재양식, 일반 특징들

1. 정지됨 없이 흘러가며[passes], 일양적이지 않고 변이가 일어나며 [alterations], 상승적이지 않고 새로움이[novelty] 발생한다.
2. 이런 특징을 지닌 존재양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애착의 존재양식은 [ATT] 이동성mobilization, 이해관계의 정념interest, 그리고 가치로 평가된다는valuation 점이다.
3. 애착의 존재 양식 역시 불연속성과 공백 그리고 간극의 성질을 갖는다.

애착 양식의 이동성mobilization을 설명하는 사례

사례1 : 더블클릭 존재양식으로 포장된 애착 양식일 경우 [ATT • DC]

애착 양식은 더블클릭 혹은 물질화된 존재자의 [동원 혹은 이동]mobilization 양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1850년대 전후 금광 채굴만을 목적으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향한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광산개발 기업만 탐욕의 배를 채웠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욕망의 그림자에서 얼굴빛을 상실했다.

사례2 : 재생산의 존재양식으로 번역된 애착 양식일 경우 [ATT • REP]

애착 양식은 재생산 존재자의 [동원 혹은 이동]mobilization 양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동원양식은 생존과 관련한 소유 욕망대로 생존에 필요한 방향대로 따라서 이동하거나 이동되는 성질을 갖는다. 이탈리아에 겨우 도착한 아프리카 난민의 이야기를 사례로 보자. 아래 글은 바티칸 뉴스(2024년3월5일자)에서 따왔다.

“올해 서른 살의 아이샤는 네 자녀를 둔 어머니다. 가장 큰 아이가 세 살이며, 그 아래로 두 살배기 쌍둥이와 6개월 된 아기가 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그녀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하려고 6번이나 시도했으나 매번 리비아로 송환됐고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그녀는 사막을 건너 도착한 이들이 머무

는 수용소의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남았다. 아이샤의 가족은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3월 5일 이탈리아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한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난민 97명 가운데 5명이다.” (<https://www.vaticannews.va/ko/world>, 5 Mar. 2024)

아이샤는 생존의 극한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탈리아로 피신했다. 이런 난민이동을 라투르의 언어로 옮겨 말한다면, 생존욕망의 애착 양식을 통해 [이동]mobilization 이라는 행위를 수행한 것이다.

애착 양식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탐욕의 경제학에 빠지는 증가-교환의 경제학

1.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환원된 경제이론 혹은 더블클릭으로 모델링된 경제이론이 애착과 취향의 미세한 변화와 변신에 무감각하다면 그런 근대인의 경제학은 무의미해진다.(629)
2. 애착이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제 양식[ATT·DC]의 경제학은 결국 얼음 같은 차가운 계산의 경제학이며 머리로 하는 경제학이다. 이는 증가성 교환을 기반으로 하여 변형과 변신 없는 단순 운반의 교환만이 움직인다.
3. 증가 교환의 경제학은 정념적 애착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폄하한다. 결국 평등 분배에 무관심하다. 현실의 빈부차이에 무관심하며 오직 합리성이라는 허위 기준으로 경제를 구성한다.(630)
4. 노벨티, 즉 새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작한 상품과 소비의 탐욕을 날마다 만들어 내고 있다.(633)

5. 자연과학에 종속되어 있어서 비등가 교환의 가치를 도저히 평가하지 못한다.

애착의 경제학, 비등가-공백을 품고 있는 평등의 경제학

1. 애착이 습관양식으로 번역된 경제양식이[HAB·ATT] 비등가 교환의 경제학을 이루는데, 그런 비등가 교환을 기초로 한 정념적 애착의 경제학이 평등 분배시스템에 더 용이하다.
2. 불연속과 공백의 교환이며, 그런 재생산 양식의 교환 속에서 비등가적이고 통약불가능한 가치가 창조된다. 단순 전송이 아닌 번역의 경제적 창조를 의미한다.
3. 재생산의 습관양식으로 체현된 애착양식[HAB·ATT]의 경제학은 앞서 말한 탐진치라는 욕망의 장애물을 걷어내면서 평등의 경제학으로 도약한다.
4. 애착의 존재자는 물질에 함몰되지 않고 조직의 존재자에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연결된 존재양식이 [ATT·ORG]이다. 이런 존재양식 덕분에 평등 분배가 가능해진다.

애착 양식이 조직 양식을 만나 경제의 방향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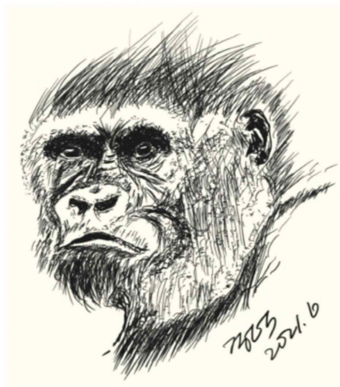
1. “자연”은 경제라는 틀에 맞추면서 재생산 양식과 지식 양식을 억지로 융합amalgamated시켰다.
2. 연장실체의 물질은 재생산 양식의 요청과 지식 양식의 요청 사이에서 양단의 관계를 억지로 합쳐 놓았다.as a fusion, an interpolaration
3. 여기서 애착과 조직의 양식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서 경제를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라투르는 강조한다.(636)

4. 경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물질화된 자연 혹은 자연과학으로 종속된 연장실체RES EXTENSA에서 벗어나 새로운 물질new matter, 혹은 새로운 “과학”으로 번역된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636)
5. 근대인이 제시하는 모든 형태의 이성은 “물질”matter을 모든 형식에 융합amalgamation시켜 놓았다. 이 점이 근대 경제학 나아가 정치경제학의 기반으로 되었다.
6. 근대인의 정치경제학이 물질에 기반한 인식론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정위된 물질로부터 벗어나 방향전환된 경제학을 회복하려면 그런 물질 기반 정치경제학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440)
7. 참고: 재생산[REP]의 도약이나 간극leap or gap이 지시[REF]의 도약이나 간극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다. 마찬가지로 조직[ORG] 양식의 도약도 애착양식[ATT]의 도약과 다르다.

라투르의 존재양식 16장 해제

경제철학3 - 도덕경제학



기초 개념들

기입과 서술, 그리고 대본 inscription/description/script

객체에 기입을 하는 행위가 곧 대본을 생성하는 것이며 그런 기입을 통해 객체는 연결망의 노드로 작용한다. 기입된 대본을 펼쳐 보이는 행위가 서술description이다.

메타배정자Metadispatcher

개체들 즉 부분들을 어떤 의도에 따라 배치하는 절대적 권력체이며 따라서 개별자인 부분보다 우월한 전체를 메타배정자라고 표현한다. 종교의 신이나 철학의 이데아 혹은 물리의 자연법칙도 여기에 해당하며 경제나 정치의 이성적인 기호들도 메타배정자의 양식이다.

총계정원장Great Books

각 계정들을 모아놓은 장부로서 모든 거래내역을 계정과목 별로 정리한 장부이다. 생존을 위한 경제의 모든 항목들을 이상화시켜 조직한 거대한 책으로 비유되고 있다.

지시의 연쇄와 가치

지시의 연쇄가 사실facts을 허용하지만 사실을 절대적인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지시의 연쇄는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지기보다 가치와 다르다는 different 점이 중요하다.

가치측정기

1. 경제 이전 우리의 경험세계에서도 이해관계의 경로를 알려주고 공유하는 다양한 가치측정기가 있었다. 이는 애착 양식이 대본을 갖게 되는 경로이다. 이러한 대본은 원시 조상인류나 근대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비슷한 크기와 모양을 가진 차돌맹이를 숫자 표기 대용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주판이나 모델들을 활용하여 가치측정기를 확장했을 것이다.
2. 그것은 마치 회계학의 총계정원장같은 역할을 했을 수 있다. 그것은 고대인이건 현대인이건 부자이든 가난하든 은행가든 걸인이든, 국가원수든 잡역부든 무관하게 누구나 자신이 가진 가치를 확인하는 자연스런 회계장부다. 그런 자연스런 회계장부는 근대인의 “이성” 이전부터 원래 있었다는 뜻이다.

수치에 중독된 경제학

1. 추상화된 낙하 물리법칙을 낙하운동 중에 있는 운동상태로 착각하면 안 된다. 추상적인 기하학의 세계를 구체적인 경험계와 이분화시키고, 그런 다음 추상세계를 경험세계 대신에 대체해버리는 방식이 화이트헤드가 말한 “구체성을 잘못 놓은 오류”에 해당한다.(과학과 현대세계, 1926) 마찬가지로 갈릴레오의 은유법인 기하학적 이성으로 짜여진 『자연의 책』을 자연 그 상태로 오해하면 안 된다.(634-4)
2. 물체의 낙하운동이 구체적인 자연이라면 갈릴레오의 낙하법칙은 추상화된 『자연의 책』이다. 경험의 자연은 존재의 지속을 보장하지만 추상의 자연은 자연에 대한 객관적 지시체[REF]를 생산하는 과학자들의 기입이다. 형이상학자는 그런 지시체가 추상화된 실제의 존재를 믿지만

(실재론), 그렇다고 해서 추상화된 자연이 경험의 자연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3. 만약 갈릴레오의 『자연의 책』이 아니라 경제화된 『자연의 책』일 경우 경제법칙이 경제의 재생산 양식을 대체해 버리는 권력을 갖게 된다.(644)
4. 총계정원장이나 회계장부가 생존에 도움될 수 있지만 생존을 대신할 수 없다는 뜻과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인이 만드는 경제는 가치독립적 혹은 가치중립적 사실에 기반하여 가치를 수치로 환원(계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645) 이는 곧 수치화에 중독된 경제이며,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다는 논리에 기반한 근대인의 경제학을 의미한다.

지구 위기의 경제적 원인

1. 경제가 아니라 총계정원장의 책 혹은 경제법칙의 시스템은 『자연의 책』이 갖는 권위보다 더 큰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총계정원장이라는 『경제의 책』은 “신용”credit의 책으로 되었다.
2. 신용원장이 경제의 책으로 되어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빛이 있는 사람이 신용원장을 주고 빛을 청산하고 싶어 한다. 빛과 신용원장이 맞교환됨으로써 청산이 이뤄졌다 혹은 청산되었다라고 말한다. 등가물의 교환을 통해 말끔한 청산이 성립하여 이런 등가교환에 의한 청산이 경제의 전부라고 근대인은 생각해왔다.
3. 이런 근대인의 생각은 지구의 자원이 무한하다는 가정을 설정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지구라는 보물을 담보로 얻어낸 빛으로 우리 지구인은 200년 이상 잘 살아왔다.
4. 우리들이 지구에 빚진 막대한 채무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648)

5. 많은 지구인들은 빛을 청산하지 않고 생자로 떼먹으려 한다. 그것은 지구인 스스로 부도를 맞게 되는 상황이다. 이것이 기후변화 같은 지구 위기의 경제적 원인이다.

근대인의 합리주의 경제학을 반박한다. - 양심의 거리낌

1. 근대인은 소위 주관적 관심과 도덕 그리고 선악을 넘어서서 정연한 첫 번째 자연first nature의 질서를 굳게 확신한다.
2. 과학적 객관성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과학, 더 나아가 과학화된 경제학은 가치와 무관하다고 합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들은 모든 존재양식들이 객관체라는 가정에서 세워져 있다. 철학사를 통해서 합리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언급해왔던 존재양식은 독립적이고 불변하다는 존재론에 기반했다. 그리고 참과 거짓이라는 판명한 이분법의 방식으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자부해 왔다.
3. 라투르는 이런 근대인의 주장들을 전적으로 반박한다. 존재는 오히려 불변이 아니라 변화이며 절대적이 아니라 관계적이다. 라투르의 표현대로 존재는 다른 존재(타자)와 항상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추상 관념이 아닌 생존 기반의 적정성 및 비적정성 조건으로 성립된다.(652)
4. 번역되는 존재양식은 처음부터 도덕과 가치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라투르가 가장 역설하는 명제이다.(653)
5. 도덕과 가치는 먼저 발견된 사실을 평가하는 주관적 태도가 아니라 사실의 존재 이전부터 사실에 결합된 채 변성하고 변이를 거치는 확장된 존재양식이다.
6. 예를 들어 재생산[REP] 존재양식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시공간으로 다른 존재자로 연계되며 도덕을 직접 의미하지 않지만 다른 존재자를 생

성하면서 새로운 의미의 도덕성을 발생한다는 데 있다.(653)

7. 라투르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비인간도 역시 객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이 생성된 존재자들이다. 왜냐하면 인간-비인간은 타자(사물 포함)에 대한 반응을 피할 수 없으며 그런 피할 수 없는 반응이 곧 책임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책임의 상황이 “양심의 거리낌” scruples으로 드러난다(발현된다).

존재양식의 존재자는 원래 가치와 분리되지 않는다.

1. 지시의 연쇄[REF] 존재양식도 사실facts의 존재자를 품고 있지만 근대인이 말하는 단절된 합리주의적 사실과 다르다. 그 존재의 연쇄작용으로 발생된 도덕적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발생학적 “사실”(따옴표에 주목)의 존재양식이라고 라투르는 말한다.(653)
2. 사물에 가치가 붙어있다는 뜻이다. 라투르가 말하는 [존재양식]의 존재자들은 원래부터 가치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3. 사람들은 객체 사물들의 존재양식 즉 기술, 종교, 법, 사물, 픽션 등의 결과물에 대해 그 안에 품어져 있는 도덕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라투르의 생각이다.(654)
4. “존재”와 “당위”는 철학사 텍스트에서처럼 대립된 이분화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존재자가 타자의 존재자를 통과하면서 발생된 결합체이다.(654)
5. 존재자들은 서로에게 고립될 수 없으며 불변의 동일성도 아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 타자를 통과하는 과정 자체이며, 그런 과정이 바로 절합 articulation이라고 앞 장에서 설명되었다. 절합은 도덕적 가치의 발현이다.

절합에 대하여

1. 과학의 존재자의 경우 사실과 가치의 문제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라투르에서 과학이 갖는 가치는 과학에 대한 관심interests에서 비롯하며, 관심은 다른 타자와 연결하여 사물-인간-사물-인간들 사이를 잘 동작하게 해주는 관절과 같은 절합의 역할을 한다.
2. 절합을 통해 사실과 가치 혹은 존재와 당위가 하나의 도덕적 연결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돌맹이, 고양이, 매트나 파이프처럼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물체에서도 절합이 잘 작동된다. 그래서 개천의 돌맹이 하나,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진 패트병 하나마다 절합이 작동되어 그 하나하나마다 소중한 가치가 생성된다. 이것이 근대인의 시선과 완전히 다른 라투르가 말하는 경제적 가치의 핵심이다.
3. 불행히도 근대인이 이뤄냈다고 자부하는 경제학은 존재와 당위를 대립시키고 사실과 가치를 분리함으로써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객체들의 연결고리 즉 “절합”을 붕괴시켰다.(655)
4. 절합의 작동이 상실된 근대인의 경제학이 오늘날 지구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라투르는 확실하게 진단한다.
5. (절합에 대하여) articulation을 ‘절합’이 아닌 ‘마디’로 번역하면 더 좋을 듯하지만, 한글판의 번역용어를 그대로 따른다. 어차피 ‘절합’이나 ‘마디’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이다.

도덕의 전달자로서 도덕 존재양식

1. 원인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자기원인causa sui의 존재자가 바로 실체

로서의 존재자이다. 그런 자기원인이 바로 목적이며 그 목적은 자기동일성을 확보하는 가치의 기준으로 된다는 것이 전통 존재론의 철학이었다. 한편 라투르 존재양식의 존재자는 자기 밖의 목적을 가진 타자성과의 연결과 절합을 통해 가치가 스스로 발생한다고 라투르는 강조한다.

2. 그런 타자성의 가치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발현되는 것이 “양심의 거리낌”이며 도덕의 전달자라는 존재양식인 도덕의 존재양식[MOR]을 낳는다.
3. 변신의 존재양식[MET]이 정신의 전달자psychophors를 인정했듯이, 도덕의 전달자도 가능하다는 것이 라투르의 전략이다.(655) 도덕 존재양식의 존재자는 객체들의 연결자이면서 동시에 도덕의 전달자이기도하다는 뜻이다.
4. 도덕의 전달자는 목적과 수단, 주어와 목적어가 연쇄적으로 결합되어 복잡성이 확장된 연결망들의 존재양식이며, 라투르는 애착(관심과 이해관계)의 존재양식[ATT]과 조직(대본)의 존재양식[ORG]와 함께 도덕의 존재양식[MOR]을 네 번째 그룹Fourth Group으로 묶었다.(656)
5. 어떤 존재양식에 결합되어 있는 [도덕]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존재양식의 존재자가 최적화된 조합으로 살아있는 것이며 그런 최적합이라는 평가를 아는 것이다. [MOR]도덕의 존재자의 최적합화는 마치 진화의 선택압처럼 작용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악성 역전malign Inversion의 사례 : 종교의 존재자를 천상(하늘)에 배치시키고 과학의 존재자를 지상(땅)에 배치시킴으로써 지상과 천상의 전통적인 이분화 사유로부터 종교와 과학을 이분화시키는 확장된 오류가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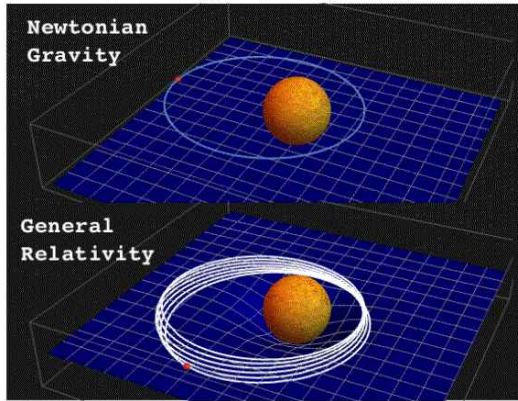
악성 역전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런 악성 역전은 교회를 절대 권력의 지위인 메타 제도로 간주한 근대인의 오류로 이어졌다.

객체는 도덕적이라는 신유물론의 경향

1. 근대인은 이성으로 구축한 윤리학이나 의무론을 통해서 모든 도덕적 언명을 다 포괄할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도덕은 윤리학을 통해서만 그 현존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근대인의 도덕은 합리주의 윤리학이 아니더라도 도덕을 품고 있는 존재자로부터 도덕이 방출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방사물질을 아무리 막아도 방사능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것과 같다.
2. 거꾸로 말해서 도덕이 방출되는 존재자에 대해 (존재자의 호소에 대해)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응답이 바로 ‘책임’에 해당한다.(658-9)
3. 객체로서의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존재자이다. 인간도 그렇지만 비인간도 도덕적이라는 말은 호소에 대하여 응답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 비인간 모두에 대해 응답이며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feeling responsible
4. 물질도 도덕적이다. 이런 점에서 라투르는 자신이 생각하는 유물론 혹은 신유물론을 “두번째 경험주의 유물론”이라고 표현한다.(660)
5. 라투르의 객체론은 전통적 의미의 유물론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유물론이라는 기준으로 굳이 분별하자면 라투르의 객체론을 “새로운 경험주의 유물론” 정도로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라투르 “객체”를 이해하기 위한 객체 일반론

1. 라투르 철학의 기초는 주체-객체 이분법의 오류와 모순을 지적하는 것에서 올려졌다.
2. 객체는 피동형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다. 즉 주체를 주관으로 하고 객체를 객관으로 하는 그런 이분법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3. 인간이 객체를 구성한다는 구성주의는 인간중심주의의 굴레에 속한다. 객체도 객체 스스로 세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사회구성주의라는 개념으로 객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라투르 후기 철학의 요점이다.
4. 여기에선 주체와 객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본 객체가 아니라 인간중심주의가 아닌 비인간의 객체로서 “객체”를 다루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하먼은 라투르의 비인간 객체를 객체지향 개념으로 설명한다. (하먼 2019)
5. 객체지향object-oriented이란 무엇인가? 중력의 예를 들어보자.(앞의 그림 참조) 행성의 운동과 중력에 의한 빛의 굴절이 중력의 존재를 먼저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의 질량에 선제하여 중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중력이론의 핵심이다.



The orbit of Mercury as predicted by Newton's theory of gravity, and Einstein's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Animation by Michalis Agathos).

6. 뉴턴의 고전역학 혹은 칸트인식론에서 공간이 먼저 선제하고 사물이 그 공간에 들어와 작용하는 것이지만, 아인슈타인에서는 공간이 사물의 질량에 따라 나중에 형성된다는 점이 공간-객체 관계의 차이이다.
7. 여기서 중력 대신에 객체라는 말을 대입하면 객체를 좀 더 이해하기 편하다. 세상의 인식론적 틀이 먼저 있어서 그 틀 안에서 객체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객체가 있기 때문에 객체의 존재론적 무게에 따라 중력이라는 인식론적 틀이 설명될 뿐이다.
8. 모든 객체는 고립되거나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모두에게 섭동된다. 그래서 객체는 협상과 외교의 행위자이다. 그런 행위자를 라투르는 실재라고 말하기도 한다.
9. 이런 점에서 모든 실재는 정치적이다. 모든 정치가 인간적인(인간중심적인) 것은 아니며 인간-비인간에 간섭받는다.
10. “객체 지향”이라는 용어는 사변적 실재론과 객체지향 존재론을 전개한 하먼Graham Harman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따온 것이다.(Harman 2022, 187) 물론 하먼Graham Harman의 ‘객체 지향’

용어를 이용하여 라투르의 객체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다.

11. 라투르가 객체지향이라는 용어는 그의 존재양식 12장 정치철학에서 잠시 나오는데, 거기서 객체지향이란 정치적 이슈(문제, 쟁점 등)의 무게가 정치라는 틀을 간섭하는 것이지 정치라는 합리적 틀이 이슈를 규정하는 것이 아님을 라투르는 강조한다. 정치는 사실들의 matters of fact 집합이 아니라 관심과 우려의 matters of concern 집합체이다. (Latour, Modes of Existence, p.337)
12. 여기서 사물은 정치적 이슈에 해당하며, 그런 사물의 무게(물리학적으로 말하면 무게가 아니라 "질량"임)에 따라 중력이 만들어지듯이, 정치적 이슈의 무게에 따라 정치 연결망이 형성된다.(라투르 존재양식 한글판 493쪽)
13. 라투르는 객체 개념을 차용하면서 컴퓨터 공학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존재양식 한글본 492쪽), 실제로 객체를 설명하는 라투르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인슈타인의 중력 개념을 통해 객체의 우선성을 판단하고 하고 있다.

(참고: 객체지향의 용어를 하먼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용어에서 따왔다는데, 컴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객체지향” 뜻은 무엇인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는 연산코드와 자료구조의 합으로 된 집합체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연산코드로 된 변수들의 묶음이 있고 그 묶음 안에 그 변수들을 어떻게 작동하게 하는 함수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형상을 객체라고 한다.

그리고 객체지향이란 이런 객체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객체들 사이의 집합체, 상호의존성, 하위 집합체에 어떻게 상속되는지의 관계를 객체지향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상속이라는 객체지향의 성질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x 와 y 라는 변수들의 묶음이 있고 그 변수들을 작동시키는 $y=2x+3$ 이라는 함수도 그 묶음 안에 결합되어 있다면 그 묶음의 단위는 x 와 y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도 항상 객체로 활성화된다. 그리고 그런 함수의 묶음이 통째로 하위 묶음으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연결을 “상속”이라고 부른다) 그 묶음의 함수값이 그대로 적용된다.

상속관계에서 상속의 내용을 추상화한 것이 클래스class이다. 클래스는 추상화 abstraction이다. abstraction이 기본형이다. 추상화의 abstraction은 플라톤 이데아처럼 질료가 아직 붙지 않은 형상의 구조와 비슷하다. 이런 추상적 형상에 질료가 채워지면서 파생된 구체의 개별체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기본형의 추상적 조건들을 그대로 상속한 파생형을 Implementation(구현형)이라고 한다.

근대인의 도덕 혹은 합리주의 윤리학의 귀결(도덕철학)

1. 보편적 도덕이 존재하며 그것을 추구한다.
2. 그들은 자신의 도덕을 타인(원주민들; 타자의 존재자)의 도덕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3. 당위와 사실을 구획해야 한다면서 사실의 근거를 천상에서 찾는 도덕 보편주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위가 사실로 환원될 수 있는 절대적 보편성의 기준이 불가능하다는 모순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근대인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물러나게 되었다.(661)

도덕적 존재자의 사양specifications (특징)

[사양1] -양심의 거리낌

1. 우리는 의식적이지도 않고 의도적이지도 않은 도덕감의 발현을 보여준다. 그런 도덕감이 발로되어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양심의 거리낌이다.scruple (662) 이는 마치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중에서 수오지심에 비유될 수 있다.
2. 도덕 존재양식의 특징에서 양심의 거리낌으로 발현되는 방식은 “도덕적으로”라는 부사 형태이다. 도덕의 명제는 항상 다른 명제를 연결하여 재생산되는 양식이라는 점이 아주 독특하다.
3. 객체에 대해 우리는 이미 많은 빛을 지고 있는데, 그런 빛에 대한 반응이 양심의 거리낌scruple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664)

[사양2] - 타자 관계성

1. 도덕의 존재양식은 이성의 윤리학으로 갇혀 있지 않으며, 도덕적 존재자는 누군가의 소유로 결코 제한될 수 없다.
2. 모든 인간-비인간에게 응답이 되면서 (즉 책임을 공유하면서) 모든 존재자는 나와 무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사적 문제인 오늘의 기후위기 문제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수오지심을 버린 채 뻔뻔하게 말한다면 경제와 지구는 다 같이 망하게 된다.(665)

[사양3] - 통약불가능성

1. 존재자들이 품고 있는 도덕의 무게는 서로 비교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통의 척도가 없기 때문이다. 라투르는 이런 특징을 도덕적 존재자의 “통약불가능성”이라고 표현했다.

2. 통약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도덕적 존재자들은 서로에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인 사양의 하나다.
3. 근대인이 만든 도덕학의 하나가 공리주의 윤리학이다. 공리주의는 개별 도덕적 존재자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양심의 거리낌”을 무시하고 모든 존재자들 사이의 도덕적 감각들이 서로 통약가능하다는 강한 신념을 갖는다.
4. 공리주의자의 도덕적 신념도 매우 강하면서 더 나아가 그들의 입장에서 도덕의 무게를 평가하고 그들의 척도로 중요한 도덕과 중요하지 않은 도덕을 구분하여 차별한다.
5. 강제된 강력한 도덕의 신념은 도덕적 양심의 거리낌의 존재양식과 전혀 다른 사실의 윤리학에 속한다. 이런 일방적 도덕 신념은 객관적이라는 명분으로 경험을 상실하고 초월적 관념에 빠진 도덕주의moralism 일 뿐이다.
6. 도덕의 존재자는 초월이 아니라 최적화의 소산물이다.(666)

라투르, 도덕적 존재자의 3 가지 사양

사양1 양심의 거리낌	사양2 타자 관계성	사양3 통약불가능성
도덕적 존재자는 경험적으로 발현되는 양심의 거리낌으로 타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응대한다.	도덕적 존재자는 인간-비인간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타자를 소유할 수 없으며 동시에 타자에 무관할 수 없다.	도덕적 존재자들이 품고 있는 도덕의 무게는 서로 비교할 수 없다. 공통의 척도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모순된 배리paralogism

1. 한편으로 양심의 거리낌으로 타자를 응대하는 존재자로 가득찬 경제의 무대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도덕의 무게를 측정하는 공통의 척도가 없다 하더라도 근접의 방식으로 지시양식을 통해서 계산하려는 존재자들의 비워진 경제의 무대도 있다. 비워진 무대라는 뜻은 합리주의 경제학은 있되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경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반대되는 양면성의 경제 양식이 오늘날 경제의 배리이다.
2. 가득찬 경제의 무대의 존재자는 계산으로 경제를 다 설명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타자에 대한 빛을 인지하고 있지만, 비워진 경제의 무대의 존재자는 논쟁 없는 사실/가치로 경제가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빛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아예 관심도 없다.
3. 자연을 물질로 간주하는 경제와 그런 동일성의 경제이론이 아니라 타자에 책임감을 갖는 경험적 경제의 차이이기도 하다.

모순(배리)에서 조정으로, 라투르의 경제인류학

1. 애착 양식, 조직 양식(대본), 도덕 양식을 이해하려면 그것에 연결된 지시의 기입inscription을 이해하면 된다.
2. 지시의 기입과 그 기입inscription 장치는 경제가 안고 있는 배리된 두 측면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려는 조치이다.(668)
3. 이성의 사악한 더블클릭으로 경제를 물질화하여 경제를 분열시킨 것으로부터 불평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라투르는 말한다.(669)
4. “경제의 문제는 객관적 지식(의 차원)이 아니며 객관적 지식이었던 적도 없다.”(669) 경제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지시체를 향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5. 이제 경제는 애착 존재양식의 다원주의와 타자성과 통약불가능성 [ATT], 조직의 결과가 아닌 과정의 흐름들[ORG], 끊임없는 변이과정을 통해 목적 없이 수행된 최적화의 도덕적 갱신들[MOR], 이 세 가지 존재양식을 전개하여 경제의 [배리]를 [조정]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외교관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라투르의 제안이다.
6. 외교관의 역할은 경제인류학의 과제다. 라투르 자신도 그런 외교관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실토한다. 그만큼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의 빛이 많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7. 애착, 조직, 도덕의 존재양식을 무시한 채 오로지 근대인의 합리성으로 재구성한 경제를 과학이라고 치부해 왔다. 실제로 경제과학의 지시유형은 객관화라는 명분으로 물질화된 불평등의 원천일 뿐이다. 그런 물질 지식에서 벗어나 이제 애착, 조직, 도덕의 존재양식과 지시기입의 존재양식을 결합한 새로운 과학을 지향하는 것이 라투르가 제안하는 경제인류학이다.(669)

물리법칙과 같은 경제학은 없다

1. 경제는 두 번째 자연second nature에 속하고 우리는 그런 두 번째 자연에 거주하는데, 그런 자연을 “수정궁”crystal palace으로 비유하고 있다.
2. 합리화로 직조된 근대 경제학은 첫 번째 자연을 온통 물질화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자연을 물리법칙과 같은 경제법칙으로 재구성하고 싶어 한다.(672)
3. 그렇게 만들어진 경제는 타자와의 연결망인 애착, 조직, 최적의 도덕성

을 무시한 채 자연의 절대적 질서와 그 질서를 계산할 수 있다는 초월적 메타배정자로부터 부여받은 기계적 인과법칙을 발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673)

생태학적 경제학

1. 사회, 언어, 심리처럼 경제도 자기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은 없다.(674)
2. 경제학은 이제 생태학과 공유되어야 한다.
3. 생태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만의 합리성이라는 제한된 존재 양식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경제를 하나로 묶는 내재적 활동(행위자의 수행성)을 인정하는 데 있다.
4. 구원의 경제학이나 신의 경제학이라는 명분니 권력과 합리성이라는 근대인의 권위를 갖는 경제학에서 탈출해야 한다. 그런 탈출로부터 생태학적 경제학이 가능하다고 라투르는 강하게 말한다.(676)

시장과 국가라는 폭군에 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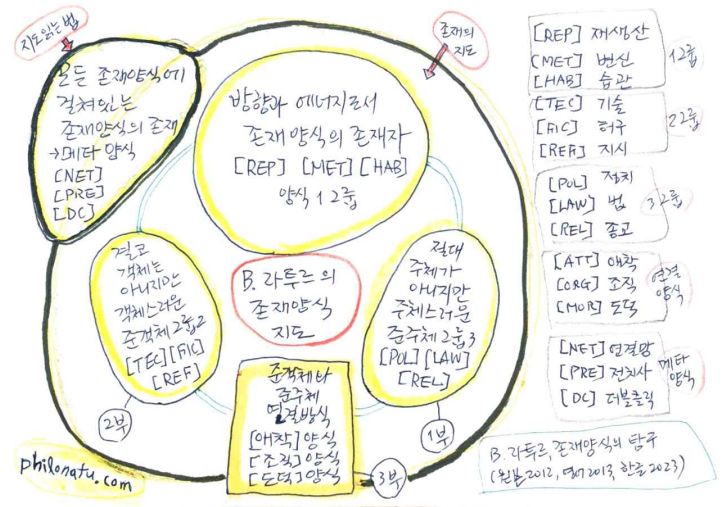
1. 근대인의 경제학은 진짜 자유로운 경제학을 맞본 적도 없다고 라투르는 말한다. 경제학을 이성으로 만든 근대인은 불행히도 이도 저도 피할 수 없이 양쪽의 폭군 사이에서 휘둘리고만 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시장”이라는 폭군과 보이는 손으로서 “국가”라는 폭군을 말한다. 그 두 폭군 사이에서 경제는 폭정에 시달리고 있다. 마치 페스트와 콜레라 외에는 선택지조차 없이 둘 중 하나의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과 같이 말이다.

2. 근대인은 경제의 섭리처럼 작동하는 시장과 국가를 법칙이나 신 혹은 (라투르 고유개념인) 메타배정자라는 최상의 지위로 승격시켰다. 그렇게 승격된 경제학의 모델은 물리학 모델과 비슷했으며, 세속적 종교의 지위까지 넘보게 되었다. 세속적 종교화에 이른 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이 극심한 불평등을 낳은 자본주의이다.
3. 시장과 국가 양쪽의 폭군은 근대인에게 메타배정자 구실을 해왔다. 둘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국가는 모든 경제 폭정을 앞에서 끌고 가고, 시장은 모든 경제 폭정을 뒤에서 밀고 간다는 차이일 뿐이다.(677)
4. 보이는 손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건 폭정의 “손”은 존재한다는 환상을 심어준 것이 근대 경제학이다. 우리는 이제 시장과 국가라는 손의 유령과 망령에서 튀어 나와 경제의 신, 경제의 메타배정자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라투르는 강조한다.(677)

라투르의 에필로그 :
경험철학과 생태화를 위하여

존재양식을 15개 나눈 이유

1. 존재양식을 15개 범주로 체계화한 것에 대하여 라투르는 자기 고백을 한다. 근대인의 이성적 체계화를 반박하면서 “체계적인 정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체계적 접근의 작은 소소한 이점이 있다.”



2. 15개 존재양식 그리고 5개의 그룹화라는 방식은 방법론적으로 쓸모가 있다는 뜻이다. 특히 준객체와 준주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존재양식의 그룹화는 매우 유용하다.

경험철학

1. 라투르가 말하는 존재양식은 양식good sense이 아니라 상식common sense의 경험이다.(688)

2. 여기서 경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존재자의 다양성을 본문에서 충분히 서술했다. 존재는 형식화된 존재의 틀 안에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념의 향방을 이끄는 전치사처럼 존재자에도 전치사가 보이지 않게 붙어 있어서 존재자가 타자를 만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양식이 발생된다. 여기서 그런 다양하게 발생하는 양식을 다양식plurimodal이라고 하고, 존재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비인간의 타자를 만나는 것을 경험이라고 라투르는 표현해 왔다. 그런 경험의 접근법이 곧 경험철학이기도 하다.(694)
3. 그래서 존재양식 또한 근대인이 만든 기하학적 존재와 다른 구체적인 경험철학의 존재자이다.

근대인과 소통하는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

1. 우리는 결코 근대적이었던 적이 없다고 한 언명에 더 나아가 앞으로도 근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라투르는 강하게 표현한다.(691)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언쟁되었던 근대화의 전선Modernization Front은 우리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다. 근대화의 전선을 간단히 다시 정리해보면 객관과 주관, 이성과 비이성, 낡은 것과 진보적인 것, 과학과 문화, 국지성과 세계성을 구별하는 이분법의 전략을 말한다.(691)
3. 근대화 전선은 결국 기후위기나 경제파국 혹은 생태파괴 등의 지구위기로 치달게 되었다. 근대화와 세계화 혹은 보편화라는 명분으로 근대인은 승리했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지구의 가이아에 청산불가능한 막대한 빛을 지고 만 것이다.
4. 우리가 생존하려면 지구에 진 빛을 갚기 시작해야 한다. 인간-비인간

의 타자에 대한 “양심의 거리낌”, 즉 내재된 생태적 도덕과 책임을 겉으로 발현시키면서 빛을 갉아가야 한다.(700)

5. 이런 변화를 라투르는 근대화 대신 생태화라는 언명으로 표현한다.
6. 개인 컴퓨터를 돌리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즈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윈도우즈 없으면 컴퓨터를 아예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리눅스나 우분투 등의 운영체제도 있다. 운영체제를 바꾸면 처음에 아주 불편하겠지만 그런 변화가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691)
7. 근대화 대신 생태화의 변신이 가능하다고 라투르는 강조한다. 물론 불편하고 적응도 안 되어 어색하겠지만 진짜 지구 위기에 닥치면 변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투르는 이를 위하여 근대인의 양식을 무조건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대적 이성으로부터 취할 것은 취하면서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새로운 존재자의 경험철학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8. 이런 조율과 조정의 행동을 외교적 행동이라고 한다.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타자와 만날 때 서로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외교관이 필요하듯이, 생태화로 가는 땅에서 우리 모두 외교관의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695)

<참고문헌>

- 그레이엄 하먼(김효진) 2019, 네트워크의 군주, 브뤼노 라투르와 객체지향 철학. 갈무리
- 김환석 2022, “브뤼노 라투르의 가이아 이론과 한국의 사례: 근대화 vs 생태화” 과학기술연구 22(1): 34-62.
- 김환석 외, 2014,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알렙
- 데란다, 마누엘 2009,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 잠재성에서 현실성으로.
- 라투르 2023, 『존재양식의 탐구, 근대인의 인류학』 (황장진 번역) 사월의책
- 라투르 외(이규현 역) 2022, 녹색계급의 출현. 이음
- 라투르 외(이상원 역) 2019, 실험실 생활. 한울아카데미.
- 라투르(박범순 역) 2021,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신기후체제의 정치. 이음
- 라투르(홍성욱 역) 2018, 인간 사물 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이음.
- 라투르(홍철기 역)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 라투르(황희숙 역) 2016, 짧은 과학의 전선. 아카넷
- 박범순 “대항해시대와 인류세: 라투르의 평평한 존재론에 대하여” 에피16: 231-259
- 심귀연 2024, 이 책은 신유물론이다. 날.
- 최종덕 1983, 『화이트헤드의 관계성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

원 철학과.

- 최종덕 1993, 「관계론에서 본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양자역학」, 『과학과 형이상학』(자유사상사 1993) 수록 논문
- 최종덕 1995, 『부분의 합은 전체인가』 소나무출판사
- 최종덕 2003, 「과학지식도 사회지식이다」, 『문화과학』 34호:68~83.
- 최종덕 2003, 『시앵티아』. 당대.
- 최종덕 2003, 『인문학-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휴머니스트.
- 최종덕 2005, 「과학의 진보와 역사의 진보 사이에서」, 박완규 편 『이땅의 철학자 무엇을 생각하는가』. 철학과 현실사.
- 최종덕 2007, 『이분법을 넘어서』. 한길사.
- 최종덕 2008, 「역사를 읽는 과학」, 『Crossroad』 4권 3호.
- 최종덕 2009, 「진보와 진화: 철학사의 조명」, 『진보평론』 41호.
- 최종덕 2017, “마르크스가 본 에피쿠로스의 행복한 자유”, 한국철학사상 연구회와 정암학당 편 『아주 오래된 질문들』 동녘출판사 2017: 137-162
- 최종덕 2017, 『비판적 생명철학』 당대출판사
- 최종덕 2020, 『의학의 철학』 씨아이알
- 최종덕 2023, 『생물철학』 씨아이알
- 최종덕 이상하. 1999. 「기술결과측정의 시민참여와 화이트헤드의 공재적 의사판단 구조」, 『화이트헤드 연구』 2집.
- 툴민, Stephen(이종흡) 1997, 코스모폴리스: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문주의자의 제언
- Beaulieu, Alain 2012, “Alfred North Whitehead, Precursor of Theories of Self-Creation” Revue d’histoire des sciences. 65(1): 81-101.

Berve A. and Maaßen H.(eds.) 2016, A.N. Whitehead's Thought through a New Prism.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Bijker WE and Law J (eds.) 1997, Shaping Technology/Building Society. The MIT Press.

Cool D and Frost S 2018, "Introducing the New Materialism" in
Downloaded from <https://read.dukeupress.edu/books/chapter-pdf/496886/9780822392996-001.pdf> by UNIV DENVER.

De Vries, Gerard 2016, Bruno Latour. Polity.

Harman, Graham 2009, Prince of Networks, Bruno Latour and Metaphysics.

Harman, Graham 2017, "INTRODUCTION", Object-Oriented Ontology: A New Theory of Everything. Penguin Random House.

Komlik, Oleg 2022, "Latour's Theses on Capitalism and Economics" 인터넷 Economic Sociology & Political Economy(Oct. 10, 2022)
<https://economicsociology.org/2022/10/10/latours-theses-on-capitalism-and-economics/>

Koole, Marguerite 2020, "Review of Rosi Braidotti" in Braidotti 2019, Posthuman Knowledge. Polity Press.

Latour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Latour B. 2010, "Coming Out as a Philosopher." (Social Studies of

Science 2010 40(4): 599-608

Latour, Bruno 2013, *An Inquiry into Modes of Existence: An Anthropology of the Moderns*, Catherine Porter (tr.),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486pp

Latour, Bruno 1986, "Visualization and cognition: Thinking with eyes and hands." *Knowledge and Society* 6(1): 1-40.

Latour, Bruno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Latour, Bruno 2010, "Coming Out as a Philosopher," (*Social Studies of Science* 2010 40(4): 599-608 라투르, 철학자로 선언하다.

Latour, Bruno 2012, *Enquête sur les modes d'existence: Une anthropologie des Modernes*. La Découverte(프랑스어 원본)

Latour, Bruno 2015, "Resetting Modernity in Different Countries: An Exercise in Philosophical Diplomacy, Europe x China" In: The 2015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 21 or CMP 11 was held in Paris, France, from 30 November to 12 December 2015.

Latour, Bruno, *Rejoicing: the Torments of Religious Speech*, (London: Polity).

Latour, Bruno. "An Attempt at a 'Compositionist Manifesto.'" *New Literary History* 41, no. 3 (2010): 471-90.

- Latour, Bruno. An Inquiry into Modes of Existence: An Anthropology of the Moderns. 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 Latour, Bruno. Facing Gaia: Eight Lectures on the New Climatic Regime. Translated by Catherine Porter. Cambridge, MA: Polity, 2017.
- Latour, Bruno. Pandora's Hope: Essays on the Reality of Science Studi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Latour, Bruno. War of the Worlds: What about Peace? Translated by Charlotte Bigg. Chicago: Prickly Paradigm, 2002.
- Lawson, Charles 2020, "Has Latour Really Unravellled the Real: The Journey from Laboratory Life to Down to Earth?" LawTechHum 14: (2020) 2(2) Law, Technology and Humans 22
- Rheinberger 1997, Toward A History of Epistemic Things. Stanford University Press.
- Schlehaider I. 2023, "Apart from the Experiences of Subjects There Is Nothing, Nothing, Nothing, Bare Nothingness — Nature and Subjectivity in Alfred North Whitehead" Histories 2023,3(2): 176-188.
- Simon M. Dyson 2018, "Assessing Latour: The case of the sickle cell body in histor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22(2):
- Stengers, I. "The challenge of Ontological Politics"

Toulmin, Stephen 1990, *Cosmopolis: The Hidden Agenda of Modern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al Dusek 2014, Book review "Bruno Latour's *An Inquiry into Modes of Existence: An Anthropology of the Moderns*." in *Notre Dame Philosophical Reviews*(2014.03.11.)

Whitehead, AN 1920, *The Concept of Nature*. Macmillan.

Whitehead, AN 1922, *The Principle of Relativity with Applications to Physical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hitehead, AN, 1929, *Process and Reality*.(Corrected Edition/1979)

<찾아보기>

ANT 강약점 35

가로지르기 20,

가이아 19, 87, 141, 248, 250

가치고유성 26

간극 176, 199, 200, 201, 205, 222, 226

객체 25, 41, 47, 51, 62, 68, 94, 96, 98, 104, 110-1, 118-9, 120,
123, 137, 139, 144, 156-160, 164, 193, 214-221, 228-240

객체 박물관 85

객체-지향 95, 178, 179, 180, 184, 237-9

갱신 70, 74, 132, 163, 168, 169, 181, 186, 191-2

경제 18, 19, 20, 35, 115, 148, 162, 175, 197-201, 207-11, 224-31,
233, 240-5

경제인류학 242-3

경험 25, 36, 43, 61, 67, 73, 86, 89, 91, 97, 101-3, 111-4, 131-2,
141-3, 147, 160, 190, 211, 229, 247-9

계보 57-60, 159-60

공백 14, 15, 25, 26, 27, 40, 43, 47, 55, 57, 62, 66, 67, 70-6, 83,
90-1, 99, 135, 138, 159, 182-3, 225

관습 92, 95, 118

광신주의 108, 168, 169

교차 18, 34, 35, 40, 58, 61, 65, 121, 135, 170-1, 184, 186

교환의 삶 222

구성주의 50, 79, 81, 85-7, 236

근대인의 오류 60, 102, 111, 117, 123, 125, 131, 197, 211, 235
 기술의 지그재그 112, 115-8
 기술의 혼종성 118
 기호 111, 131-141
 다공성 189
 대본 202-6, 211-7, 229, 234, 242
 대표성의 위기 176, 177, 181
 더블클릭 47, 48, 51, 66, 67, 71-6, 100, 101, 115, 116, 122, 123,
 143, 152, 164-170, 176, 192, 195, 223, 224, 242
 도덕 149, 190, 199, 200, 201, 231-5, 239-243, 249
 돌봄과 구원 165
 등가-교환 224, 225, 230
 마녀, 마녀전쟁 69, 92
 망설임에 대하여 191
 메타배정자 228, 244, 245
 목적론 127, 143
 문화의존성, 문화의 비 97, 99
 미적분 14, 124, 182, 183
 미학 50, 133-7
 민족정신의학 97
 반복 49, 59, 60, 70, 74, 132, 141, 150, 166, 181, 186, 191, 192
 발두색 51
 백인 11, 13, 94, 198
 번역 18, 25, 27, 40, 47, 61, 63, 66, 68, 71, 80, 120, 121(번역은 반
 역), 122(번역과 변신), 123-4, 129, 190, 221, 225

범주오류 30, 31, 46, 55, 58, 60, 73, 95, 101, 140, 143-5, 151, 154,
 169, 171, 182, 207
 법 26
 변신 63, 76, 97-100, 104-6, 120-4, 150, 163-8, 249
 불평등 201, 214-6, 242-5
 사랑의 친밀감 164
 사회 11, 35, 50, 112-3, 130, 162, 166, 185, 190, 200, 206-7, 211-2,
 219, 244
 상징 66, 68, 130, 131, 137-140, 144, 176, 185
 생략 145, 148, 149, 150(표-생략과 망각), 152
 생태, 생태화 12, 14, 18-9, 54, 87, 173, 175, 197, 244, 249
 소유 98-9, 117, 124, 163, 193, 208, 215, 218, 240-1
 수리오 50, 72, 82
 스피릿, 기술 109, 122-3, 126-7
 습관 57, 145-153
 시장과 국가 244-5
 신유물론 88, 235
 실재reality 38, 44, 45, 61, 63, 68, 77, 79, 81, 91, 96, 101-2, 131,
 143-4, 150-1, 177, 229, 237
 심리학 93, 96, 99, 100, 105, 106, 175, 212
 아버지의 법 190
 애착 199, 217, 200-1, 218-220, 222-6, 243
 애착-도덕, 조직의 3 양식 201
 양식과 상식good sense/common sense 34, 62, 172, 247
 양심의 거리낌 231-2, 234, 240-2, 249
 예술 50, 82, 108, 136, 158, 191

외교관 12, 19, 20, 36-7, 197, 243, 249
 이상파괴 79, 83-4, 108
 우주론적 존재양식 91
 원, 정치적 원 73, 181-6
 유물론 49, 65, 88, 94, 235
 융합 54, 65-9, 73, 101, 129, 208, 225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139-140
 이동성 222-3
 인간-비인간 14, 35, 58, 217, 232, 240, 241, 248
 일차오류/이차오류 30-3
 자본주의 198-200, 215, 219, 221, 245
 자아 10, 50, 91, 93-9, 104, 163
 자연주의 137
 작은 초월 83, 109, 111, 131, 138, 146-7, 151, 186, 205
 잘 말하기speak well 71-2, 76-7
 재물질화 207, 209
 재생산(양식) 47-9, 53-4, 57-9, 66, 88-9, 101, 106, 120-1, 218-9,
 225, 231, 240
 적정성과 비적정성 32-3, 35, 47, 73-4, 191, 195, 231
 전치사(양식) 33-5, 85, 145, 148, 150, 157, 202, 248
 절합 72, 131, 141, 157, 232-4
 정신생성적 연결망 93, 101, 116
 정치적 말하기 69-75
 제도와 탈제도 63, 92, 143, 152-4
 조로의 칼 115

조직, 조직화 63, 186, 199-207, 211-2, 216-7, 234, 243
 존재양식 18, 21, 24, 32-3, 35, 40, 53-4, 68, 72-3, 79, 92, 101, 103,
 111, 145, 156-8, 162, 205, 232, 244
 종교적인 것의 귀환 162-3
 준객체 156, 158, 193, 194, 206, 217, 220
 준주체 156, 158, 175, 188, 193, 195, 220
 증용의 정치 175
 지구위기 230-1, 233, 248-9
 지시와 암시 151
 지시의 연쇄 42-5, 73, 88, 122, 135, 184, 204, 228, 232
 직선 14, 66-77, 175-6, 179, 184-6, 195
 집합체 92, 162, 176, 185, 193, 199
 창설instauration 50, 82-5, 97-100, 160, 166
 초월성 55, 109-111, 147, 162-4, 185, 205, 209, 219
 코스모폴리틱스 178
 탈연동 125-6, 135-136, 191, 214
 통과, 통과과정 19, 26-7, 40-1, 47, 57, 66, 73, 83, 98-9, 232
 틀민 153-4, 179
 폭포효과 47, 48
 프로이트 95
 픽션 132-83, 158, 203, 232
 해석의 키 30, 34, 100
 화이트헤드 15, 34, 43, 47, 49, 50, 61, 62, 130, 229
 회심 166-8
 힘의 선 57-60, 159

라투르의 존재양식 해제
공백의 실재론

초판 2024년 6월 10일
지은이 최종덕
편집 최종덕
연락 philonatu@gmail.com
URL <https://philonatu.com>
출판사 없음
책값 없음- pdf/epub 무료판본



PDF/EPUB 무료 자유판본

숨적이는 책 시리즈

1권 『라투르의 존재양식 해제: 공백의 실재』

출간

2권 『화이트헤드의 자연철학』

예정